(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No 765 1982년3월5일(금) 6일(토)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4 Friday & Saturday, March 5 & 6, 1982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 명 규
편 집 인 : 이 석 현
광 고 부 장 : 송 광 호
편집자문위원 : 윤 방 현

MAR 9 1982
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8th FLOOR
TORONTO, CANADA M5S

"문지석에 혐의있다"

치안본부 발표, 수사관 방한 할듯

토론토 폭발사건에도 관련

(서울 본사전화) 한국경찰은 4일 캐나다교포 문지식(34)씨가 전대통령 암살음모사건에 관련 조사를받고 있다고 발표했다.

안응모 치안본부장은 토론토에서 그로서리·스토어를 경영한 문씨가 작년9월 체포됐으며 캐나다 경찰및 관계외국수사당국과의 협조아래 수사가 계속되고있다고 밝혔다.

안치안본부장은 3월중캐나다 수사관이 한국에 도착하면 수사에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에서 모 경영대학을 중퇴한 것으로 알려진 문은 81년6월12일 한국에 입국, 9월16일 관세법위반혐의로 한국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70년 J대 1년중퇴, 74년 5월 냉동기술자로 캐나다에 이민, 78년5월 캐나다 시민이 됐다.

문은 또 80년 7월부터 9월까지 무역차 중공, 홍콩, 마카오, 광동등지를 다녀오기도 했다.

문은 80년1월 토론토의 디스코클럽 알비브 폭발사건에 관련됐었다고 경찰은 발표했다. 문은 한국경찰에게 알비브클럽에 200만 달러 보험금을 노리고 폭발물을 장치했다고 말했다.

한편 4일 야노버 공판에 나온 합동수사반의 샌델리형사나 옥크형사는 한국경찰의 발표에 대해 "우리로서는 아직 문을 혐의 자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니나 수사상 그와의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해 조만간 캐나다 수사관이 한국에 파견될 것임을 비쳤고 "문이알비브 폭발사건에 관련됐는지는 전혀 몰랐다"고 덧붙였다.

알비브 폭발사건

범죄단이 보험금 노려

80년 1월9일 새벽5시7분, 토론토의 영·스트릿 근처와 블루어·스트릿·웨스트의 알비브(Arviv) 디스코·클럽에서 강력한 폭발물이 터져 이 건물이 있던 3층 건물이 완전폭파되고 유리파편이 수백야드밖까지 날아간 사고가 있었다.

이때 부상자는 하나도없었다.

경찰은 범인을 체포하지 못했으나 보험금을 노린 조직범죄단의 소행으로 짐작했다.

국제적으로 유명한 뉴욕 디스코의클럽 「스튜디오·54」를 본떠 만든 이 클럽 주인은 헤롤드·알비브 였다. 알비브씨는 이상하게도 또 다른 25만 달러 사건에 관련, 재판을 받고있는 5명중 하나였다.

부호 제·매만씨를 협박, 25만 달러를 뺏으려던 이들중에는 유명한 모터싸이클 갱단「아웃로스」의 토론토두목 프랭크·랜티도 끼어 있어 더욱 주목을 끌은 사건이었다.

그후 폭발사건을 잘아는 인물로 알려진 아놀드·드레이크씨가 1개월후 몬트리얼에서 소포를 뜯다가숨겨진 폭발물로 즉사, 사건은 미궁에 빠졌다.

경찰이 당시 「문」에 대한 조사를 했는지?, 「문」이 어느정도로 이 사건에 관계됐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두 혐의자 눈짓교환

재판 11일로 연기

대통령암살모의 사건 관련혐의자로 체포된 찰스·야노버(36)와 마이클·제롤(33)의 공판일자결정 재판이 11일로 연기됐다.

4일 상오 온타리오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판사는 제롤의 변호사 알렌·골드씨와 야노버의 변호사 얼·레비씨의 요청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변호사들은 수사반과 새 공판일자에사전 합의했다.

지난 1일 보석금 7만5천달러를 내고 가석방됐던 마이클·제롤은 검은 양복에 갈색코트 차림으로 나와방청석 맨앞에서 재판을 지켜 보았다.

머리를 잘 빗어넘긴 단정한 모습이 유연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는 그는 변호사옆에 조용히 앉아있었다.

유리칸막이 안의 피고인석에 나온 찰스·야노버는 묵묵히 서 있었다. 약간 통통한 얼굴에 무게가 있어 보이는 그는 방청석을 경멸하듯 훑어 보다가 한순간 제롤과 눈길을 교환하는듯 했다.

두 사람 다 살인, 폭력등 사건에 오래동안 몸담아온 흉악한 범죄인물로 믿어지지는 않는 인상이었다.

3월중 배구대회

여자팀 출전환영

창립기념및 제1회 춘계교민배구대회를 개최할 예정인 배구협회(회장 문영환)는 교민단체중 특히 여자팀과 노장팀의 많은 참가를 바라고 있다.

1월30일 창립된 배구협회는 3월20일이나 27일중 하루를 잡아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장소는 미정이다.

연락처는 923—3846(Mr. 문), 755—9925(Mr. 임)

社說 미인이여 나오라

— 미스코리아선발대회를 앞두고

캐나다 최고의 교포미녀를 뽑는 제7회 미스코리아 선발대회가 한달여로다가왔다. 이 미인대회는 캐나다 전국을 망라한 예술잔치인 점에서 최대규모의 문화행사로 꼽히고 있으니 전국의 천부적 육체미와후천적 재치, 지성미, 교양미를 갖춘 교포처녀들은 많이 출전하여 자신있게 자기를 평가받는 것이 보람되고 뜻있는 일이라 하겠다.

사람은 남에게서 인정받고, 정당한 평가를 받는데서 자신감이 생기고, 인간적 성장과 빛다운 장래설계에 힘을 보태게 된다.

그런데, 과거 6회에 걸친 캐나다미스코리아 선발대회에서 두가지 맹점이드러나고 있다.

그 하나는 전국규모의대회임에도 불구하고, 출전미인의 분포가 메트로토론토 중심의 지역규모 인상을주어온 것이 한 특색이다. 교민 일반의 관심도와 참여의식, 열기가 개최지및 그 인근주변에만 파급되고, 멀리 서부, 북부 지방에서는 매회마다 극소수만 참가함에서 그치고, 불참지역도 많았던 것은 앞으로 시정 되어야 할 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같은 무관심과 미온적 참여현상은 미인대회 이미지 부각(浮刻)이 미흡했거나 덜 선전된 점등이 요인(要因)으로 꼽히고 있다.

두번째 미인참가 부진요인으로서는 이른바 "점잖은 집안의 딸은 미인대회 같은데에 출전함은 쑥스러운 일"이라는 재래식 한국적 사고방식에서 용모가특출하고, 신체조건이 균형잡혔으며, 보태어 지성과 교양을 갖춘 우수한 미녀들이 흔히 미스코리아대회 진출을 꺼리는 경향과, 그보다도 주변의 성화같은간섭, 특히 부모나 친지, 형제들의 부당한 간섭 때문에 감히 출마를 단행할 결심이 서지 못하는 사례를 종종 본다.

구세대식 완고한 묵은생각에 사로 잡히기에는 지금 시대는 너무도 급진적으로 발전하면서 있으며, 미인대회에 대한 가치판단이 긍정적 방향으로 많이 변질되고 있음을 알아야한다.

"미스코리아에 나갈은집안 망신"이라느니, "혼인길이 막힌다"는 식의 완고한 고집은 버얼써 버렸어야했고, 집안에 적령기의 적임자가 있으면 서슴없이 내보내서 영예의 "미의 여왕"으로 뽑힘으로써 가문의영예로 삼는 것이 현대적 건전한 자세임을 재삼 강조한다.

미인대회의 성격이 결코, 상품평가회나 외적미 경합이 아니고, 신체적 단련상황과 지식·교양·예모등 현대식 문화여성으로서 갖추어야 할 숙녀의 구색(具色)을 평가받는 보다 바람직하고, 보람다운 행사라는 것을 교민들은 인식해야할 것이다.

따라서 적임자는 한번이에 도전하여 자기의 내적, 외적 장점을 객관적으로평가받는 유일한 최상의 기회가 바로 해마다 한번씩 실시하는 「캐나다미스코리아선발대회」인 것이다.

진·선·미·특기·매너·인기상등 정상급 미녀들이 뽑히면 그만큼 긍지도 생기고, 남들의 찬사와 부러움도 자아내 정녕 정상급미녀로 자처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우기 「진」은 모국에서 열리는 전국대회에진출하며, 「선」은 메트로 토론토의 다민족 문화축제인 미스캐라반 선발대회에 출전할 기회가 주어진다.

이땅에서 벅찬 희망과빛다운 미래에의 꿈에 부푼 교포처녀들은 캐나다 한인계 최고의 아름다움—미의 매력과 교양의 으뜸인 "미의 여왕"을 뽑는 미스코리아대회에 앞다투어 참가해 줄 것을 거듭 권하는 바이다.

젊고 아름다운 코리안의 자랑다운 모습을 높이 현양하는 것은 민간외교관인 이민의 딸의 자랑스런 사명이기도 하다.

오타와서 태권 시범

이대사등 참석, 기재 기증

(오타와 이태은지국장) 오타와 한국대사관 백승웅 무관(공군대령)은 지난달 26일 오타와태권도학교 에 태권도 기재를 기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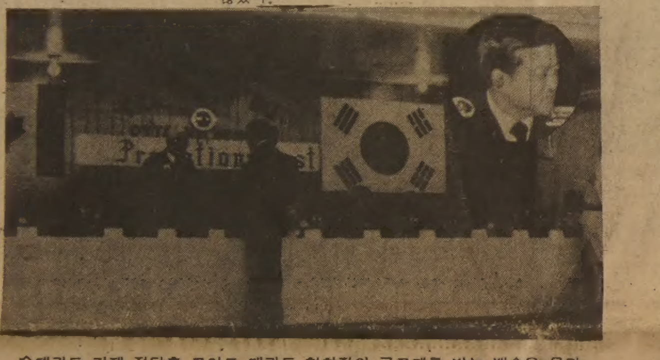
태권도 유단자인 백무관은 캐나다 전역에 태권도 인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음은 고무적 현상이라고전달소감을 밝혔다.

시범및 승단대회를 겸한 이날 행사에는 이규현대사를 비롯, 이현홍공사, 로이드·프랜시스 국회부의장(캐나다태권도협회장)내외, 외교사절단장, 베네주엘라대사 내외, 유고대사, 국방부대표 비미쉬내외, 국제올림픽 위원회의 기란두 부회장내외, 연방경찰 특별비상구조대(ERS) 레이몬드·케디날 대장등이 참석했다.

케디날 대장은 경찰훈련에 태권도 교습을 고려중임을 밝혔다.

남녀호신술, 어린이 시범등으로 200여명 참관자의 절찬을 받은이날 대회는오타와 CJOH—TV및 자방송이 보도했다. 이규현 대사는 축사로 이대회를 축하했다.

한편 프랜시스 태권도협회장은 백무관의 후원에감사하는 공로패를 증정하고 「한국의 태권도가 캐나다 국민체육에 큰 도움을 주게됨을 감사하며, 앞으로계속 태권도 발전을위해 일하겠다.」고 말했다.


◇태권도 기재 전달후 로이드 태권도 협회장의 공로패를 받는 백승웅 무관. (원내 = 백무관)

크레딧·카드 벅차면

차라리 은행돈 빌려야

차젝스·비자나 매스터·카드등 크레딧·카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청구서를 받는 즉시 잔금 전액을 지불하지못할 경우 차라리 은행에서 개인 융자를 얻는 편이 이자를 덜 물게 된다.

1일 현재 매스터·카드는 연리 24.6%, 차젝스·비자는 연리 24%를 부치고 있어 시중은행 금리인 19% 내지 21%보다 높을 뿐 아니라 소비자가 전청구서 발행일(Billing Date) 이후 물건구입금중 일부를 지불하면 남은 금액에 대한 이자만 물리는 것이 아니라 전체금액에 대한 이자를물게 되기 때문이다.

소비자협회의 한 관계자는 크레딧·카드의 뒷면에 이런 방침이 설명돼 있지만, 소비자들이 꼼꼼히 읽어보지 않아 막상 이자를 많이 물게 되서야 관심을 둔다면서 주의를 환기시켰다.

예를 들어 작년12월11일자 계산서를 받은 매스터·카드소지자가 잔액$674.98중 다음 청구서 발행일전인 1월5일에 $474.98만 지불하고 $200을 잔금으로 남겼으면 $200에 대한 이자만 물면 될것으로 소비자는 생각하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1월11일자 계산서에 나타난 이자액은 총$9.93. 말하자면 완불이 아닌 일부지불이면 소비자는 전체 $674.98에 대한 물건구입날자로부터 따진 이자 $9.14와 남은 $200에 대한 1월5일부터 11일까지 이자 79센트도 물게 된다는 계산이다.

매스터·카드의 데이빗·윌록씨는 1일 소비자가청구서에 명기된 잔액의 전부를 25일 이내에 완불해야만 이자가 안 붙으며, 일부만 지불할 경우 매일의 잔액에 이자를 가산하는것이 회사의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은하 보석상
ROLEX
가장믿고 살수있는
「로렉스 지정판매 대리점」
B) 534-7791, 534-9977
620A BLOOR ST. W.

캐나다
외환은행
364-2890
2 FIRST CANADIAN PLACE SUITE 1140

오늘의 예금금리	2월22일현재		
종 별	기 간	신용조합	일반은행
정기예금	30일	14.5%	12.5~13.5%
	200만불 돌파기념 특별봉사이율 봉사기간 : 3월20일까지		
보험이 보장하는 한인신용조합 ☎ : 533-9387~8			

SUNLIFE
백 용 빈
생명보험, 주택보험
R. R. S. P.
사업보험, 각종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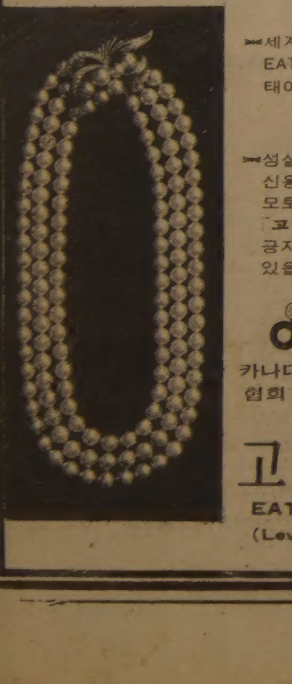
B) 497-3800
R) 284-90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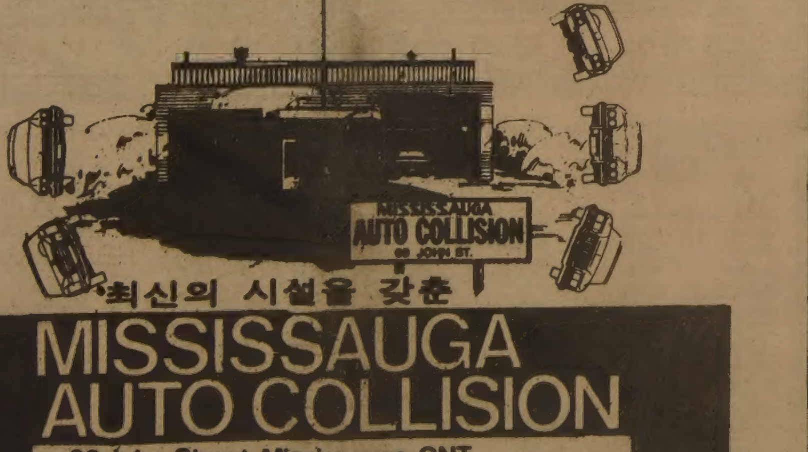
여러분의 단골백화점 미도파로 오십시요.
미도파백화점
B 536-1692
R 245-3539
454 BLOOR ST. W. TORONTO. ONT.

강학수 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 R. S. P 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MAILPERSON : PLEASE DO NOT DELAY. THIS IS A DAILY.

축
개업5주년

세계적인 명소 — EATON센타와 같이 태어난 「고려보석」
성실한 「써비스」, 신용과 권위를 폐사의 모토로 하고 있는 「고려보석」은 교민의 긍지를 함께 지니고 있읍니다.
카나다보석 협회 회원
고려보석
EATON CENTRE
(Level 1분수대 옆)

● 사고시 보험관계 일체처리
○ 수리중 차 대여
○ 완전한 차체수리
○ 사고차량 Towing Service
○ 페인팅(Oven Bake Finishes)


최신의 시설을 갖춘
MISSISSAUGA AUTO COLLISION
69 John Street, Mississauga, ONT.
Bus.: 275-3131, 3133 Res.: 622-1171
정 창 헌

SKY WAY
●각종 복사기
●각종 타자기—사무용, 가정용, 학생용
●캐쉬 레지스터
●계산기—사무용, 가정용
※신품과 중고 판매및 수리
※15년 경력으로 교민 여러분께 봉사

OLIVETTI, SHARP, 3M
MITACOPYSTAR, IBM, SANYO
215 CARLINGVIEW DR
UNIT 109 REXDALE 김인환
(B)675-1295~6 (R)671-0938

East Asian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전통적 종교열 냉각

초자연적현상·신흥종교에 관심

대부분의 캐네디언 들은 더 이상 전통적인 기독교를 신봉하지 않는다. 이같은 사실은 종교경향을 전문으로 연구조사하는 유수한 캐네디언 학자중 하나인 레지날드·비비 박사가 최근 전국적으로 실시한조사에서 밝혀졌다.

레쓰브릿지대학 사회학교수인 비비는 캐네디언의 90%가 아직 프로테스탄트(신교)나 로마가톨릭(구교)에 속한다고 주장하나 이들중 3명에 1명도 채 못되는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주말마다 교회에 참석할 뿐이라고 말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기독교인이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의 약 80%(10명의 교회멤버들중 6명과 10명의 교회등록인중 9명)는 기독교정수라고 할 수 있는 하느님에 대한 믿음, 예수의 신성, 죽음후의 삶, 성령의 체험및 기도등에 대한 확실한 이해와 신앙의 증거를 보이지 못했다.

비비는 이같은 새로운현상을 "무종교적", 혹은"집중되지 않은" 기독교라고 지칭하며, 대 다수의 캐네디언들은 삶과 죽음의 의미에 대한 해답 없이 살아간다고 말한다.

이같이 전통적 기독교인들은 줄어들고 있으나 캐네디언들의 대부분은 점성학, 초감각적 지각, 정신감응술, 선인식및 예감과 같은 초자연적 현상에 흥미를 갖고 있거나 믿고 있다.

비비는 성인 캐네디언의 절반정도가 정신감응을 경험했다고 믿고 있으며, 이보다 조금 많은 사람들이 예감이나 무슨 일이 일어나기 전 미리 지각하는 경험을 했다고 주장하는것을 발견했다.

이번 조사는 1500여명의 캐네디언을 무작위 추출, 표본으로 삼은 것으로 캐나다 전인구를 대표할만한 것이다.

비비가 발견한 다른 하일라이트는 다음과 같다.

□일반적 믿음과 반대로매우 적은 캐네디언들이 소위 말하는 신흥종교로 전향하고 있다. 오직 전인구의 1%만이 「초월적 명상」「헤어 크리쉬나」,「통일교」등의 그룹과 활동에 큰 흥미를 가진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들중 절반만이실제로 이같은 그룹의 멤버로 활약한다.

□사람들은 지역교회 대신 전자교회(TV에서 방영하는 교회)로 돌아서지 않는다. 오직 6%만이 정기적으로 종교프로그램을 시청한다. 이것은 75년의 9%와 57년 갤럽여론조사에서 밝혀진 29%의 시청률보다 상당히 떨어졌다. 노인들 경우만이 교회에 가는 대신 TV로 대치하고 있다.

□오직 로마 가톨릭 신도 10명중에 1명만이 개인적인 성령의 체험, 방언및병고침을 강조하는「 카리스마운동」에 관여하고 있다고 말한다. 지역적인 카리스마운동 참여도를 보면퀘벡과 노바·스코샤등 연해주들이며, 마니토바, 사스카치완등 프레리 지방이 가장 낮다.

□현재 28%의 캐네디언이 주일마다 정기적으로 교회로 출석한다. 25년 전에는 67%였다.

□3명중 2명의 성인 캐네디언은 유년시절 정기적으로 교회에 다녔으나 학교에 다니는 연령의 그들 자녀는 3명에 1명꼴로교회출석을 한다.

비비의 조사는 기독교인이거나 기독교의 영향을받았다고 주장하는 90%의캐네디언들의 대부분이 삶의 의미의 해답으로 더 이상 종교를 찾지 않음을 보여준다. 그들은 오히려 돈, 직업, 가족, 친구, 오락, 여흥및 사회적, 개인적 흥미와 같은 보고 만질 수있는 구체적 일에 몰두한다.

비비에 따르면 캐네디언의 65%는 그들의 하루 하루의 초점을 직업, 가족, 건강및 돈을 가장 중요한 생존문제로 삼는다. 이것은 그들이 존재 자체에 대한 궁극적인 문제를 추구할의사나 시간을 갖지 못하게 한다고 그는 말한다.

이같은 "집중되지 않은 대다수"(크리스천)를 위하여 교회는 사회적 신분증명과 같은 기능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출생, 결혼, 죽음과 관련된 예식을 주관하는데 교회가 사용된다. 결과적으로 기독교회는 대부분 캐네디언의 생활 전체에 극히 적은 영향밖에 미치지 못할 것이다.

비비의 최근 연구는 단적으로 캐네디언이 점점더 세속화되어 가며, 탈종교성을 띠고 있으며, 이런 경향은 앞으로 계속될 것이라는 점을 확인한다.

그는 캐네디언 10명중오직 3명이 장래에 종교의 영향력이 증대한다고 보며, 대조적으로 10명중 9명은 과학의 영향력이 커질 것이라는 견해를 갖고 있음을 발견했다.

그러나 그는 이같은 조사결과로 장래를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한다.

5년만의 해후 두번 결혼했다 두번 이혼한 리즈·테일러와 리처드·버튼이 지난주말 5년만에 처음으로 자리를 같이 했다. 리즈와 버튼이 함께 춤추고 즐긴 이날 모임은 리즈의 50회 생일파티로 런던의 레전드 나이트 클럽에서 열렸다 〈런던〉

개신교 재정난 심각

연합교단, 장로교등

캐나다에서 가장 큰신교피이며 교민들의 교회가가입돼 있는 연합교회(United Church)와 장로교회(Presbyterian Church)는 재정난에 직면하고 있다.

장로교회가 발행하는 교회신문 「프레스바이테리안 리포트」가 장로회는 헌금은 계속 늘어나는데도 82년도 30만달러 이상의 적자가 예상되어 교단본부직원을 해임할 위기에 있다고 말했다.

연합교단도 교지「옵저버」3월호에서 "지난 10년간 교회헌금보다 지출이 더많아 82년도부터는 몇몇 사업을 줄여야 한다"고 보도했다.

연합교회 재정담당 더글라스·보갈씨는 "81년도에 2,265만달러의 예산을 집행했으나 30만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면서 물가는 100% 올랐는데 헌금은 70%밖에 안올랐다고 말했다.

82,83년 계속 적자를 예상한 연합교회의 보르갈씨는 교회가 꼭 해야될 몇몇 사업을 줄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연합교회는 목사들의 연금과 새 교회를 지원하는데 4천만 달러가 쓰여질 것이라고 보르갈씨는 덧붙였다.

「옵저버」지에 의하면 예산절약 방안의 하나로 목회자들은 재훈련, 목회외 다른 직업을 갖도록 하는 방안도 갖고 있다.

런던한인회총회

새회장에 배동범씨

(런던 강상권지국장) 지난27일 런던한인회(회장하광용)는 런던한인교회에서 70여명 회원이 모인가운데 정기총회를 열고 제14대회장에 배동범씨를 선출, 새 이사진 구성, 회칙일부개정등 안건을 처리했다.

신임 배회장은 36년생으로 67년이민온 이후 런던한인회 창설멤버로 활약, 제2대 이사장을 역임했고, 현재 Central Motor 회사를 경영하고 있다.

문익주 독주회 14일 오후2시 입장권 $6, $7

위니펙교민 문익주씨의 피아노연주회는 3월14일(日) 오후 2시 세인트·로렌스·홀(St. Lawrence Hall)이며, 입장권은 $6, $7이다.

세인트·로렌스·홀의 주소는 27 Front St. E., 티켓문의를 위한 전화번호는 366－7723이다.

문익주씨는 이날 바하의, 서주와 후가, 베토벤 소나타 17번 작품 31 No.2, 브람스의 파가니니 주제에의한 변주곡등 6곡을 선사할 예정이다.

문씨는 마니토바대 교수 문승규씨의 장남이다.

마가렛·트루도 약속 다시는 책쓰지않겠다.

마가렛·트루도가 다시는 책을 쓰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트루도수상과 별거 이후의 생활을 그린 자서전 제1집 〈Beyond Reason〉과 제2집 〈Consequences〉을 출간한 이유가 경제적인것이라고 밝힌 마가렛은 트루도수상이 별거후 자기가 살아갈 수 있도록 보조비를 주었더라면 책을 안 썼을 것이라고 고백했다.

자서전 판매를 돕기위해 뱅쿠버에 들른 마가렛은현재 오타와의 모 TV 방송프로의 사회자로 일해, 연봉 약3만달러를 받고있어 경제적으로 안정됐으므로 꼭 책을 써서 돈을 벌어야만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고 말했다.

트루도 수상과 별거중인 마가렛

한국일보 구독 신청은 TEL : (416)533·2361

대학진학여부 부모가 결정

젊은이들의 대학진학 여부는 유치원 입학전 부모에의해 이미 결정된다는것이 연구결과 밝혀졌다.

지난10년간 연구, 이 문제를 고찰해온 욕대학휼·아니셀교수는 정부가 빈곤한 가정의 학생들에게재정지원을 통해 대학교육의 기회를 주려고 노력했으나 실패로 돌아갔다고 밝히고, 이같은 실패는 정부가 가정의 영향력을 무시한데서 왔다고 말한다.

·부모들은 부인할지 모르나 대학생들은 대부분 가족이 사회학 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그들의 대학진학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데 동의하고 있다고 말한다.

안니셀교수는 대학진학을 하지않는 젊은이들은이미 어릴때 부모가 이들에게 대학교육을 시키려는의사가 없음을 부모의 언행에서 체득, 스스로가 진학에의 동기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윌리엄스에 無期懲役선고

세칭 애틀란타 黑人소년 연쇄殺人혐의 재판

被害者중 최소한 2명은 殺害인정 有罪평결

〈아틀란타-AP〉 세칭 아틀란타 흑인 소년연쇄 살해사건의 범인으로 재판을 받아오던 흑인청년 웨인 윌리엄스(23세)가 27일 아틀란타 법원으로 부터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보다 앞서 8명의 흑인과 4명의 백인으로 구성된 배심원은 윌리엄스가 28명의 피해자중 적어도 2명을 살해한 증거가 확실하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윌리엄스에게 유죄평결을 내린바 있다.

검찰이 제시한 유일한 증거는 피해자의 시체에서 발견된 의복 섬유질과 윌리엄즈의 자동차 안에서 채취된 섬유질이 동일하다는 것.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윌리엄스는 『나는 아무도 죽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프래랜스 사진작가이며 대중음악 프로듀서 지망자인 윌리엄스는 조지아주 형법에 따라 7년간 복역하면 보석출감신청을 할수있다.

윌리엄스의 변호인은 그가 확실한 증거도 없이 스케이프고트(속죄양)로 희생되고 있다고 주장한 반면 검찰은 윌리엄스가 가수로 길러주겠다고 어린 흑인소년들을 꾀어내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감방으로 되돌아가는 윌리엄스.

윌리엄스의 범행동기는 그가 동성연애자이므로 피해자들은 동성애의 상대로 유인한 후 살해했을 가능성과 그자신이 가난한집 태생이므로 가난한 흑인들을 증오했다는 것등으로 추측되고 있다.

〈캐나다소설〉

사슴을 먹고 사는 사람들

(136)

팔리·모왓 원작·원재훈 옮김

이 협곡을 방어하고있는 비석들은 우리가 이곳을 처음으로 온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없이 증명하고 서있었지만 오호토는 이들을보고 얼굴에서 미소를감추지 못했다. 그는 북쪽으로 이동해온 사슴들이 지금쯤은 이좁은 사슴길 근처에 틀림없이 헤매고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날저녁 그는 사슴이 나타나지 않는것 때문에 초조한 기색도없이 즐거운듯이 잠을잤다. 그는 사슴과 함께 살아온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새에 사슴에 대한것들을 이미 느낄수있었던 모양이다.

우리는 그날저녁 사슴길의 동쪽 연변에서 잤지만 먼동이 트기전에 오호토의 목쉰소리로 인하여 잠을깨고 말았다.

"툭투! 사슴이왔다!"하고 소리를 지른다음 우리가 아직 새벽잠에서 덜 깬채로 침랑에서 뒹굴고 있는동안 오호토는 어대론가 사라져 버렸다.

우리가 이협곡에 도착한 것이 사슴이 돌아오기 하루전이었다는 것은 기적적으로 우연한 일치였다. 죽음의 땅을거쳐 그먼 서쪽 끝까지와서 겨우 우리가찾고있던 사슴을 만나게 되었던 것이다.

텐트에서 기어나오자 우리는 희미한 여명속에서이 노콕(비석)의 실루엣을볼 수 있었고, 이들은 기대감으로 긴장되어 보였다. 새벽바람이 이들의 머리에이고있는 햇볕에 타버린 이끼위로 스쳐지나갈때 그들은 마치 긴 잠에서 깨어나는것 같았다.

오호토가 보이지 않아서 우리는 비석들이 서있는곳에서 반마일 떨어져있는협곡의 중앙으로 옮겨갔다. 아침여명이 갑자기 밝아지자 북쪽에 위치한 산밑으로 길게 드리워진 그림자가 보이기 시작했다.

바위위에 걸터앉아 해가좀 더 떠오르기를 기다렸다. 잠시후에 벨벨같은 솜털에 싸인 긴 사슴뿔이 진주빛의 하늘에 뻗혀있는것이어둠이 걷히자마자 눈에 선명하게 들어왔다.

사슴은 그들의 일생을통하여 이길을 수없이 왕래했기 때문에 천천히 한가롭게 다가왔다. 그리고 이 사슴길에서 아무런 적을만나본일이 없었기 때문에전혀 조심하는 기색이 없었다.

해가 더높이 떠오르면서 선두에서 나이어린 수사슴이 그쪽에서 가장 가까운 비석에서 몇야드의 거리로 접근할때 까지 유유자적했다. 그때 바람이 휙 불어서 이누콕에 붙은 이끼 가 살아있는것처럼 바람에 움직였다. 그 수사슴은 그의 네다리로 넓게 버티고 갑자기 멈추어서 비석을유심히 바라보았다. 바람이 사슴쪽으로 불었지만 냄새도 맡을수없고, 이상하게생긴돌이 움직이지도 않을뿐 아니라 전혀 위협하는 거색도 없었다.

그러나 수사슴은 조심스럽고 기민한 경계태세를감추었다. 흩어진 자갈밭에서 앞다리를 번쩍 들면서 수사슴은 비석의 동쪽으로 방향을잡아 이누콕과 나란히 대각선으로 거리를두고 걸어가는데 비석들에게 불안을 느낀것 같았다.

뒤에 따라오는 30여마리의 사슴들은 별로 상관하지않고 따라왔다. 비석들이 서있는 중간쯤 왔을때 선두의 수사슴이 갑자기멈추고 놀라서 눈을크게 떴다. 그때 수사슴은 비석하나가 거의 분간할수 없을 정도로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을 느끼고 껑충뛰어 도망가 버렸다. 이 수사슴이 꼬리를 바짝세우고 도망가자, 뒤따르던 다른 사슴들도 위험을 눈치채고 각자 뛰어 달아나기 시작했다.

그작은 사슴떼가 바위투성이의 길을따라 껑충껑충 뛰어 도망가자, 길게 늘어섰던 비석들이 끝이나면서 호수와의 거리가 20피트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사슴때는 이사이에 몰려들어와에서있는이누콕으로부터도망치기에만 여념이 없었다. 그때 사슴떼가 안전한 곳으로 바쳐나가려고 할 때 오호토의 라이플이 돌뒤에 숨어있다가 불을뿜었다.

세발의 총성이 들렸고, 그들중 가장큰 수사슴 세마리가 이끼와 바위속으로 비틀거리며 쓰러져 버리는 동안 어린선두의 사슴은나머지를 이끌고 협곡의 끝이되는 남쪽산비탈로 번개처럼 달아나 버렸다.

오호토는 숨어있던 곳에서 뛰어나와 쓰러져가는사슴께로 달려갔다. 우리들도 곧 합세하여 몇분후에는캠프로 고기를 부지런히 날려와 불을피우고 오랫동안 우리의 창자가 원하던 고기를 실컷 먹게 되었다.

그다음 며칠동안 이협곡으로 밀려오는 사슴떼가점점 불어 내가 뉴엘틴의 고스트·힐스에서 본것보다더 밀집되고 숫자도 훨씬 많아 보였다. 좁은협곡을 지나갈때는 그들이 너무빽빽하게 밀려와서 울타리처럼 서있는 이누콕이 사슴이 지나가는것을 갈라놓지 못했다.

사슴이 오는때는 이땅의 죽음으로부터 활기에찬생동감으로 바뀌는, 전에 내가 윈디베이에서 보았던것보다 훨씬큰 규모의 생동감을 맛볼수 있었다. 날짐승이라고는 전혀 볼수없었던 창백한 하늘은 지금 새까맣게 하늘을 덮고, 날아오는 까마귀떼로 가득차있었다. 이 까만 새들은 삼삼오오로 날아오는것이 아니라 북쪽 지평선에서 갑자기 떠올라오는 매들과 함께 큰떼를 지어서 해숙한 하늘을 검게 물들이고 있었다. 어느날 아침에는 북극의 흰새떼가 세그룹으로 날아 거의다 지나간 사슴떼뒤를 좇아 남쪽으로 한가롭게 높이 떠갔다. 또 사슴떼가 지나간뒤에 독수리처럼 죽은짐승을 찾아 한떼의 갈매기가 날아왔다.

(계속)

The Hankook Ilbo

맛 사 지

DIXIE HEALTH STUDIO

Whirlpool * Sauna
Gym * Massage
Luxurious Surroundings
OPEN 10 AM-1 AM
5170 Dixie Rd.
(near airport)
MISSISSAUGA
624-8822

제63회 전국체육대회 파견 결산보고

◎DONATION 입금

고광남	$200	이창복	$300	최동열	$100	김종호	$633
원영신	$100	Peel클럽 (대표 김진현)	$300	실 협	$300	원종걸	$100
아이스하키협회	$200	박승만	$100	유영갑	$200	코리아하우스	$50
정기영	$433	외환은행	$100	원장호	$600	한국관	$50
배기덕	$433	박주삼	$100	곽준구	$100	Brandon스포츠	$200
남송우	$200	윤방현	$50	이오석	$700	미도파	$400
한용식	$100	원일재	$100	정길수	$400	캐네디꽃집	$200
송명진	$100	최동주	$200	조형준	$100	김남용	$200
신우원	$100	이기훈	$100	고성호	$1,100	김영상	$150
김근철, 김용기, 임정재	$200	장순채	$100	우희두	$200	한인회	$300
변의섭	$100	이기천	$100	이종원	$300	체육회	$200
		PKA (대표 오현구)	$200	유우상	$100	회사금	$710
				이영민	$100		
				최명조	$100	합 계	$11,229.00

TIE CITY 오원균 : 선수일동에게 쎄타기증

◎지 출

① 항공료 : 예산 $30,480
수금 $26,670

② 훈련및 장비구입 : 예산 $3,750 (수금 $3,750)
지출 : $3,747.95 잔액 $2.05

③ 체재경비 : 예산 $5,000
(Donation입금) $10,510
항공료 잔금 $3,810
서울체재비 $5,016
교재비 $230

◎총 Income $41,640
◎총지출 $39,473.95 → ◎현잔액 $2,166.05

재 캐나다 대한체육회 지부 아이스하키협회
제63회 전국체육대회 파견단 단장 : 고성호

감사의말씀

장학의밤 행사가 여러분들의 성원으로 기대이상의 성황을 이룬것을 만족하게생각합니다. 이 행사를 성공리에 끝마칠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상품을 회사해 주신분들, 특별기금을 내주신 분들 그리고 화환을 보내주신 여러분 들께 각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 수입, 지출 사무가 다 끝나지 않아 최종보고는후일에 드리겠으나 대게 다음과같은 성과가 있었음을 중간보고 드립니다.

참석인원 : 600명, 수입 : 약 $2만1천
지출 : $1만1천, 수익금 : 약$1만

1982년3월5일

카나다한인장학재단
이사장 구 상 회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9./yr, $9./mo. 구독료(선금) 年$99, 月$9. ISSN 0712—1733 2nd Class Mail 5248.

실협뉴스

—온타리오한인실업인협회 제공—

실업인협회
20 MOBILE DR.
TOR. ONT.
M4A 1H9
☎ 752—7771

난항의 밀크딜 드디어 완료

최고의 리베이트 K.B.A.회원에게

그동안 협회집행부는 실버웃의 로즌 데얼리 밀크회사와 두달이상 십여차례의 협상을 통하여 드디어 새로운 밀크 리베이트의레이트(Rate)및 스케일을결정하게 되었다.

2년전 협회전임회장단의 끈질긴 노력으로 전례없이 높은 리베이트(전년도 최고율 27%)협상이 이루어진 이후, 협회와 딜을 체결치못한 타밀크 회사들은기존 어카운트를 유지하기위해 앞을다투어 리베이트를 올려왔으며, 이로 인하여밀크회사들간에는 리베이트 조정에 대한 치열한 경쟁이 계속되어 왔다.

차선겸 협회장은"이번체결된 로즌 데얼리 새 계약이 시존 밀크시장의 리베이트보다 훨씬높게 책정됨으로써 또다시 밀크업계의 리베이트 문제에 혼선이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때일수록 회원들은요동되지 말고 협회의 장기적인 목표달성을위해 강력한 뒷받침과 행동통일이요구된다"고 말하였다.

금번 체결된 딜의내용은 치열한 경쟁유발을 방지키위해 밀크회사가 지상공개를 거부하므로 발표해 드릴수 없음을 양해하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협회사무실로 문의해주기 바란다. 새 계약내용중 근간이되는 사항은 다음과같다.

(1)매상고가 많은 스토어에대한 최대한의 고려.

(2)C·U(신용조합)기금으로 1%씩 협회를 통하여적립해오던 제도를 폐지하고, 직접 회원여러분에게 돌려주도록 함.

(3)리베이트 체크와 더불어 총판매액, 총반환액, 순판매액의 명시.

집행부동향

82.3.1 : Johnson—Nut—현 25% 레귤러 마진에다가 10% 디스카운트에서 30%+10% 디스카운트를 위한 협상.

82.3.1 : Globle pest Control Co.
현재 지정업체인 Pest Control Co.와 회원들간에 요금및 문제점이 많아 새로운 지정 업자 물색중($8 / Month fiat. Not Limited Charge) 내주중 완결발표 예정.

82.3.5 : 3월정기집행부 회의 여론조사서 집계, 사무실 이전계획및 주소록 발간에 관한 토의.

대단한 반응

여론조사 앙케이트

집행부 사업의 기초자료수집을위한 회원여론조사 설문지를 지난2월19일(금), 일제히 방송한바 있는데, 회원들의 반응이 대단히열정적으로 나타나 관계자들을 기쁘게 하고있다.

이 사업은 기획조사실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수 주전「실업뉴스」를 통해 반응을 얻으려 했으나 별 반응이없어 다시 각 회원스토어 앞으로 650매 이상을우송했었다. 이미 150매 이상이 접수되었으나 관계자들은 전회원들의 여론을 명확히 추출하기 위하여 마감기일을 3월15일(월)까지 연장하고 그 취지를 알려 적극적인 참여를 권장하기로 했다.

협회 집행부에서는 이여론조사의 집계가 끝나는대로 그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공개하고, 앞으로 협회운영을 그 조사의 통계를 바탕으로 유도해 갈 것으로 알려졌다.

회원에의 부탁말씀

◇차선겸씨

여러차례에 걸쳐 협상을 거듭한끝에 우리협회가 목적하였던 로즌 데얼리와의 딜이 결실을 보게 되었음을 기쁘게 생각합니다.(밀크회사들간의 과열경쟁 방지를 위하여 새로운 딜의 상세한 내용을 지상을 통하여 알려드릴수 없음을사과드리며, 협회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람.)

현재까지의 최고 리베이트를 얻는데 성공한 차제에 회원여러분에게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오니이익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협회가 회원여러분의 강력한 뒷받침을 배경으로 계속해서 유리한협상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설사 협회지정회사외의 여타업체들이 유사한조건을들고 접근해 오더라도 일시적인 이익에 현혹되시지 말고 굳건히 협회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협조해 주실것을 거듭 부탁드리며 아울러 다소 부담이 되더라도 가능한한 체결된 협회의 딜에 행동을 통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단합된 힘만이협회가 여타 상품회사들과딜을 유리하게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서 관건이 됩니다.

회원 여러분의 협조와단결을 다시한번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1982년3월1일

실업인협회장 차선겸

秒速 10㎞… 공포의 磁石총

美國서발사성공

발사순간 反動심해 위험

火藥대신 磁場의힘 이용

再使用불가 당분간 實用化 어려워

미국은 최근 광속다음으로 빠르다는 공포의 총레일건(궤도총)의 발사실험에 성공했다. 미로스알라모스국립과학연구소는 레일건의 발사시험이 뉴멕시코주의 맨코캐년에서 실시됐다고 발표하고, 그속도는 총알보다 10배정도 빠르고 우주선이 대기권을 이탈할때의 속도와 거의 같은 초속 약 10km정도라고 밝혔다.

재래식화약대신 자장의 작용으로 발생하는 힘에 의해 투사체(탄환)가 발사되는 레일건은 레일을 달리는 총이 아니라 레일로 만들어진 총이다.

한편 레일건의 투사로는 백금대용품으로 사용되는 니켈을소인탄탈(원자번호73)이 널리 쓰이는데 이는 고도의 충격과 열에 강한 다탄산수지인 렉샌(상품명)에 포장돼 장전된다.

이번 발사실험의 경우 전원공급은 맨코캐년의 자라저장고에 설치된 축전에 의해 그리고 전류의 증폭은 자속콤프레셔라 불리는 특수장치에 의해 이뤄졌다.

그러나 레일건은 발사순간의 반동으로 일종의「대폭발」이 일어나기 때문에 천연적으로 차폐막이 형성돼있고, 민간에서 격리된 맨코캐년같은 계곡이 발사적지로 선정된 것이다.

이 때문에 이번발사시험은 민간인의 출입이 일체 통제된 가운데 발사관계자들도 모래가마니로 구축된 대형벙커속에서 고성능 X레이카메라를 이용, 발사순간을 지켜보면서 투사체의 진행궤적을 체크했을뿐이다. 그러나 레일건은 현재로서는 재사용이 불가능해 실용화는 당분간 어려운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발사순간 투사체가 갖는 엄청난 속도때문에 레일이 심한 손상을 입기 때문이다.

그러나 레일건의 구경을 기존의 사각형에서 원형으로 개조할 경우 이같은 문제는 다소해결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있다.

遺傳因子없이 体内서 치명적疾病요인 작용

극소微生物 프리온發見

UC桑港연구진, 難治病원인 규명에 큰도움 예상

(샌프란시스코—AP) UC샌프란시스코 연구팀은 최근에 세포증식에 필요한 자체의 유전인자가 없이 인간과 동물의 세포속에서 번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종종 인간의 치명적인 질병의 요인이 되고 있는 가장 작은 미생물을 발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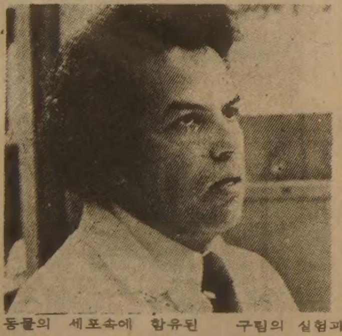
이 연구팀을 이끌었던 신경학자 겸 생화학자인 스탠리·프러시너박사는 이전에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미생물에 「프리온」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현재 인간에게 알려진 단백질 가운데 가장 작은 것으로 믿어지고 있는 프리온은 단백질(Protein)과 전염성(Infectious)이라는 두 단어의 앞글자를 따서 만든 이름이다.

많은 질병의 요인으로 믿어지는 프리온은 그러나 바이러스나 박테리아종류는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바이러스보다 더 작은 프리온은 번식에 필요한 충분한 유전인자를 가질수가 없을 정도로 작은 미생물이나 인간과 동물의 세포속에 침투하여 인간과 동물의 세포속에 함유된 번식유전물질을 대신 이용함으로써 자체의 유전인자가 없이도 번식할 수 있는 것으로 추리되고 있다.

만약 UC샌프란시스코 연구팀의 실험과 이론이 타당한 것으로 증명되면 종종 인간의 목숨을 앗아가는 수많은 질병의 발생원인을 규명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믿어지고 있다.



◇UC샌프란시스코 연구팀의 지도자 스탠리·프러시너박사—많은 질병의 요인으로 믿어지는 가장 작은 미생물체 프리온을 발견했다〈샌프란시스코—〉

한국관
연무 중휴
오전11시 새벽1시
최고의 음식 저렴한 가격
회의실 마련
봉사합니다.
최고의 음식, 저렴한 가격, 성실성의철, 염가로 단체손님 환영.
결혼피로연등 회의실 60석, 각종회의석 준비.
531 0277
대표 나옥녀
한국관

한국일보
광고 문의처
533—2361

O.K. Auto Body
Call 251-9889
Hee-Sam Kim Res. 242-4551
138 SIXTEENTH ST.
M8V 2K1
WE ACCEPT ALL INSURANCE WORK

멀티메디아 포켓북
(MULTIMEDIA DISTRIBUTORS)

127 TELSON ROAD MARKHAM
ONTARIO, L3R 1E7
TEL. (416)495—9499

실협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온타리오 한인실업인협회(K.B.A.)와 협약을 맺고 포켓북을 공급 써비스하게 되었읍니다. 아래와 같은 계약 내용을 따라 성실껏 봉사하겠읍니다. 자세한것은 언제든지 전화를 주시면 세일즈 맨을 보내드리겠읍니다. 감사합니다.

협 약 내 용

Net Billing(Total Invoic billing) 매 3개월 분기별

$0.00—$800.	리베이트 없음
$800.00—$1 500.	2.5% 리베이트
$1,500—$2.000	5% 리베이트
$2.000이상	7% 리베이트

Rebate는 매 분기말 15일이후 지급함
1982년2월19일 8
사장 Joe C. Dwek

회원상점 주소록
광고주 모집공고

본 협회는 회원 상점 주소록 발간을 계기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한인 업체 광고주를 모집합니다. 이에 관심있는 광고주께서는 마감 기일까지 본 협회 사무실로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청서는 협회 사무실로 요청해 주시면 우송해 드리겠읍니다)

— 아 래 —

(1)광고 종류 : ①전면광고(12×18cm)
②반면광고 (12×9cm)
(2)신청마감일 : 1982년 3월19일(금요일)
(3)신청 장소 : 본 협회 사무실
(752—7771)

단 : 광고도안은 광고주의 원고에의함.
1982년 3월 1일

한인실업인 협회장

L. L. B.
Video Amusement LTD.

리베이트 $100불 !
Rebate $100 협회원들에게

본사는 최근 붐을 이루고 있는 비디오 게임 머쉰 공급회사로서, 가장 이윤이높고, 인기가 있는 각종 게임을 신속하고 친절하게 봉사해 드리겠읍니다.
아울러 실업인 협회를 통하여 저희들 머쉰을 3, 4월중에 설치하시는 회원 여러분께는 첫 달 에 한하여 $100불의 리 베 이트를 드리겠읍니다.

※카버지역 : Metro Toronto 전ONTARIO지역
※신청연락처 : 실업인협회 ☎752—7771
※Service Dept ☎787—4551

알 림

안녕하십니까 ?
교민여러분의 Tax-Planning 경영상담및 제반회계업무에 있어서 보다신속한 써비스를 위해 금번 2월1일부터 개업한 김명숙 회계 사무소(Kim & Associated)와 기존 전병웅 회계사무소(Ben's 어카운팅)가 통합되었음을알려 드립니다.

◎주소 : 484 Bloor st. W.
(강찬영변호사사무실 내)
김 명 숙 회 계 사 무 소

◎전화 : 537—3171(B)
669—2710(R)

김명숙 · 전병웅 배

高度의六感…관상장이 빰친다

美전역 3百여稅關, 旅行者가 알아야할守則

현금·수표 5千弗이상은 꼭 申告해야만
일단 한번이라도 記錄되면「要注意人物」

외국여행을 마치고 뉴욕 케네디 공항에 도착한 교포들 중 공항의 세관을 통과할 때 날카로운 눈초리에 무뚝뚝한 표정을 한 세관원 앞에서 유쾌한 기분을 가져 본 사람은 없을 것이다.

또한 세관을 통관할 때 조바심을 갖는 것은 외국을 여행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으로 아무런 이유와 잘못도 없이 세관원의 표정에 자신도 굳어 신경을 곤두세우고 몸을 도사리게 되는 것이다.

여행객들의 성격및 심리적 상태의 차이는 있겠으나 세관을 통관할 때에 너무 신경과민이 돼서는 이득이 없다.

특별한 이유없이 서성대는 세관원의 간단하고 의례적인 질문에 답을 해야하는 경우 아무런 죄도 없이 당황하여 횡설수설하게 되면 의심을 받게 된다.

세관원들은 경험에서 얻은 예리하게 발달된 육감으로 인상, 태도, 거동, 대화등을 통하여 여행객들의 상태를 잘 식별하고 짐의 겉모양만 봐도 대강 그 속의 물건을 짐작한다.

이러한 세관원 앞에서 너무 신경과민이 되어 당황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특별조사실로 불려가 몸수색까지 당하는 애매한 시간 낭비와 피해를 보게 된다.

세계 각국에서 가장 많은 여행객이 모여드는 미국은 또한 마약을 비롯한 각종 밀수범등과 신경전을 하게 돼 미국의 세관원들은 마치 관상장이와 같이 여행객을 잘 식별해내고 이들의 육감은 고도로 발달되어 있다.

미국은 전국을 9개의 세관 구역으로 나누고 이안에 45개 관세지역에 속한 공항및 항만, 그리고 국경세관 통과지등 3백여 곳의 세관이 있다.

세관 제2지역인 뉴욕지역 세관의 공보담당 데니스머피씨는 미국전국에는 약1만여명이 세관에 종사하며 이중 수사권을 가진 세관조사관은 4천5백명인데 이들은 3백여 곳의 항만과 공항을 지킨다고 설명한다.

머피씨는 뉴욕지역의 세관에는 2600여명이 종사하며 이중 4백명이 세관원이라고 한다.

머피씨에 따르면 이들 정규 세관원 외에도 1천2백여명의 특수 순찰원과 96개의 수사전반, 25개 팀의 특별 수사반이 전국 중요공항과 항만에 배치되어 있으며 이밖에 6백여명의 특별 기관원이 전국 80여개의 지역과 해외 10개국에 나가 특수수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것.

81년도에 미국의 세관을 통관한 여행객 수는 3억1천4백28만1천5백13명이며, 기차, 선박, 각종 차량, 항공기등은 9천5백73만2천7백59대.

81년도에는 또한 총 2천5백억달러 상당의 화물이 미국 세관을 통관했는데 이로인해 세관이 여행객들로부터 거두어들인 관세수입만도 무려 91억9천7백22만2천1백85달러에 이른다.

이 액수는 80회계연도에 올린 세입 실적 82억3천10만2백43달러에 비하면 11.7%가 증가한 것으로 국고에 상당한 보탬을 준 셈이다.

머피씨는 이러한 통계 숫자를 설명하면서 미국을 여행하는 여행객 수는 해마다 평균 7%정도씩 증가하나 세관원의 수는 고정되어 있어 그 업무량의 증가로 인간인 세관원들은 신경이 날카롭게되기 마련이며 육감은 더욱 발달하게 마련이란다.

미국의 세관은 제1대 의회에서 1789년에 제정된 법에 따라 설립된후 지금까지 그법에 따라 모든 수입품목의 금액을 사정하여 관세를 거두며, 사기행위및 밀수행위를 단속하여 막고 있으며, 미국을 드나드는 모든 여행자, 선박등을 검사하는 것이다.

미국의 관세법은 1930년에 제정된후 4백여개에 이르는 각종 시행 세칙을 약 40여개의 정부기관에서 관장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외환관리법, 마약 단속법을 비롯 원자물질, 위조지폐, 동식물, 인화물질 단속법등이 추가되어 있다.

이러한 모든 관세법에 따라 세관원들은 약 1만가지에 이르는 과세품목과 9백가지의 쿼터 품목을 다루고 있어 이들의 업무량은 과히 짐작할 만하다.

이밖에 81회계연도에, 약 4천7백여만의 우편 소포와 8천4백40만여통의 우편물을 취급한 세관은 여기서 1천6백만달러를 거둬 들였다.

또한 같은해 마약 단속실적도 대단한데 54억달러에 상당하는 총 2만2천2백71건의 마약 사범을 단속하여, 2백34파운드의 헤로인, 3천7백11파운드의 코케인, 1만7천8백91파운드의 [illegible], 5백만파운드의 마리화나를 비롯, 기타 LSD등 화합마약 3천8백90알을 압수했다. 머피씨는 매년 [illegible] 출입 증가등으로 세관 통관 업무를 과학화하여 밀수범을 검거한다고 설명하면서 『세관을 통관할때에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정직이며, 모르는 것은 자세히 세관원에게 물어 신고를 정확히하는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현재 케네디 국제공항세관의 [illegible] 40여년간 세관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illegible] 슈윙씨는 여행자들 입국전에 준비해야 할 것은 도착전에 기내에서 받은 세관신고용지를 정확히 작성할것과 도착후 세관을 통관할때 세관원의 질문에 답할 준비를 하여 당황하는 일과 무안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충고하고 있다.

슈윙씨는 세관들은 가능한 미국을 방문하는 여행자들을 손님으로 대접하여 실망을 주지않도록 최대한의 친절을 베풀려고 노력하나, 수상하거나 정직하지 못한 여행객은 손님으로 대접할수 없으며 친절을 베풀수 없다고 피력한다.

여행객들의 상당수가 무엇을 신고해야 될지 몰라 당황하나 신고 대상 물품은 여행자 자신이 제일 잘 알고 있다고 슈윙씨는 설명.

슈윙씨는 또 여행자중 일부는 외국에서 취득하는 물건중 『이것쯤이야』하고 신고를 안하는 수가 있는데 이 경우 세관원의 검사시 발견되면 세금을 내야되는 것은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벌금까지 내야된다고 설명한다.

케네디 공항등의 세관을 통관할 때 세관원은 여권을 요구한후 여행자의 성명등 몇가지를 즉시 자기앞에 있는 컴퓨터에 찍는 것을 볼 수 있다.

전에 이미 세관에 기록된 일이 없는 여행자는 아무런 인적 사항이 스크린에 나타나지 않으나 기록이 있는 사람은 즉시 그사람의 모든 인적 사항과 과거에 세관에서 있었던 기록이 스크린에 나타난다.

이 같이 스크린에 기록이 나타나는 사람은 정밀검사를 받게되며 과거기록에 따라 세금도 더 내게된다.

외국에서 취득한 물품을 고의로 신고를 안했거나 모르고 신고를 안한 차이는 사실상 하나도 없다.

슈윙씨는 일단 세관 컴퓨터에 기록되면 그 여행자는 다음 미국에 입국시 미국어느 세관을 통관하나 기록이 컴퓨터 스크린에 나타나 상습적으로 무엇을 숨기려는 사람으로 낙인이 찍혀 정밀검사를 받을 가능성이 많다고 설명하고 있다.

신경과민 당황하면 몸수색당하고 時間낭비
작년 麻藥54억弗어치 압수…犬公이 색출하기도
남의 선물 잘못 전하다가 낙인찍히는 낭패일쑤

슈윙씨는 결혼, 생일등의 선물로 받은 물건, 수리를 했거나 교환한 물건, 남의 심부름으로 다른사람에게 전할물건, 입국후 팔려고 하는 물건과 사업상의 목적으로 구입한 물건등 해외에서 취득한 모든 물건이 신고 대상이라고 설명한다.

이 밖에 해외에서 사서 몸에 걸친 것과 사서 이용한 물건도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슈윙씨는 밝힌다.

몸에 걸치는 것중 비싼 밍크 코트, 다이아 반지등 값진 물건은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은 출국전에 신고하면 귀국시 문제가 되는것이 없으나 신고가 안된것은 세관원 문제를 삼을 수 있다고 슈윙씨는 설명한다.

미국 세관에는 구두로 신고하는 방법과 서류상으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떤경우라도 기내에서 받은 신고용지는 작성하여 세관원에게 주어야 한다.

구두로 신고하는 경우는 해외에서 취득한 모든 물건을 세관원에게 설명하면 세관원은 최고 3백달러까지의 면세액내의 것은 통관시키거나 경우에 따라서 일정양식의 서류를 작성하도록 요구할때도 있다.

서류상 신고품목은 해외에서 취득한 물건의 소매가격이 면세액(3백달러)을 초과할 경우, 1리터이상의 주류와 2백개피이상의 담배, 개인의 사용목적이나 가정에서 사용할 목적이 아니고 사업상에 필요한 물건과 매매할 물건, 심부름으로 남에게 전달할 물건등 수입세나 소득세에 해당하는 모든 물품을 기록해야된다.

슈윙씨는 해외에서 산 물건은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는 것이 좋고 선물로 받은 물건은 소매가격이 달러로 얼마정도 되는지를 알고 있으면 세관 통관시 시간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한다.

가격을 알수 없는 품목은 세관원이 미국내 가격을 참작하여 세금을 환산한다고 슈윙씨는 말한다.

슈윙씨는 또 여행자들이 가장 방심하는 물건은 남의 심부름으로 제삼자에게 전달할 물건이라고 밝히면서 비록 본인의 물건이 아니더라도 과세 대상이 되는 물건은 검사에 걸려 기록이 남게 되어 훗날 여행시 상습범 취급을 받게될 수도 있다고 경고 했다.

남의 심부름하는 물건을 신고하여 세금을 물게 될 경우 자신이 지불할 능력이 없으면 세관에 보관시킨후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추후에 함께 찾아가는 방법이 바람직한데 이때 세관은 첫5일간은 무료로 보관해 주나 이 기간이 끝나면 보관 창고로 보내 세금외에 운송비 보관료등을 지불해야된다고 슈윙씨는 말한다.

슈윙씨는 과세 대상이 여러가지인 경우, 예를들어 6%와 30%의 관세를 내야 되는 물건이 있으면 기록에 올라있지않은 여행자에는 6%짜리에만 세금을 부과시키고 30%짜리는 면세로 통관시켜 준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여행을 자주하는 사람의 경우 2배내지 3배의 세금을 부과시키는 수가 있으며 컴퓨터 스크린에 기록이 나타나면 6배이상의 세금을 부과시키는 경우도 있다고 슈윙씨는 설명한다.

슈윙씨는 케네디공항의 인터내셔널 어라이벌 빌딩의 경우 여행객이 여권 검사, 세관 검사등을 모두 마치는 시간은 보통 30분정도 걸리나 비행기가 한번에 여러대가 도착하는 경우는 45분이상 걸린다고 한다.

1시간에 평균 2천5백명내지 3천명이 검사를 받고 나가는데 최고 4천명까지도 검사를 받고 나간 경우도 있다고 말하는 슈윙씨는 세관원1명이 여행자 1명을 다루는 시간은 평균 2분으로 잡고 있다.

케네디 공항에도 세관원외에 마약 밀수범을 검사하는데 공을 세우는 역을 톡톡히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견공들이다.

슈윙씨는 하루에 4마리내지 6마리의 견공들이 마약및 음식류를 넣은 짐을 코로 식별하는데 견공1마리가 담당하는 짐은 1시간에 약 4백개의 가방을 검사해 치운다고 한다.

슈윙씨는 자기가 아는 범위에서는 뉴욕일원에서는 아직 한국인 마약 밀수범이 검거됐다는 이야기를 들은적이 없다고 설명한다.

밀수범을 식별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다.

첫째는 여권인데 예를들면 수라파를 3주간 여행한사람이 타일랜드를 2일간 방문한 기록이 있으면 「조사 대상이 된다.

또한 세관원들은 여행자의 짐 가방을 보고 식별을 잘 한다. 뉴욕지사

헐리웃에 로맨스滿發

레이놀즈, 리틀 버리고 앤더슨과 熱愛
오스몬드는 스나이더와 뜨거운 사이로
소문뿌린 신디·윌리엄스, 허드슨과 곧 결혼

봄을맞는 헐리웃의 로맨스 몇가지.

버트·레이놀즈가 LA 채널7 앵커우먼 토니·리틀을 버리고 TV극 신시내티의「WKRP」스타 로니·앤더슨과 교제중인가하면, 마리·오스몬드가 TV극「듀크스·오브·해저드」의 존·스나이더와, 캘리포녀 제리·브라운주지사와 소문이있었던 TV극「라번과 셜리」의 신디·윌리엄스가 골디·혼의 전 남편인 빌·허드슨과 결혼한다는 소식이다.

이중 로니·앤드슨은 골든글로브상 수상후보로 지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상식에 참석하는 대신 하와이에서 레이놀즈와 나흘간의 여행을 즐겼던것.

한편 이들이 즐거운 시간을 가졌는 반면 LA에 남은 그들의 옛 걸프렌드와 보이프렌드는 배신감에 사로잡혀 있었다.

리틀은 앤더슨 때문에 자신이 밀려났다는데에 모욕감을 느끼고 있는데, 지난 연초에도 리틀은 앤더슨에게 레이놀즈를 빼앗겼었다.

즉 지난 크리스마스를 리틀과 함께 그의 농장에서 지냈던 레이놀즈는 12월30일 리틀에게 농장을 떠나달라고 부탁했던것.

리틀이 이유를 묻자 앤더슨이 오기로 되어있다고 말했으며, 앤더슨은 그곳에서 나흘을 묵었었다.

리틀은 당시 레이놀즈의 이같은 태도에 매우 당황했었는데, 리틀은 레이놀즈와 함께 연말을 보내기위해 2주간의 휴가를얻어 놓았었기 때문.

리틀은 『왜 휴가를 일찍 끝내고 돌아왔느냐』는 사람들의 질문을 피하기위해, 레이놀즈의 농장을 떠나고도 LA에는 돌아오지 않았었다고 한다.

지난 골든글로브상 시상식에서 존·스나이더와 다정히 노래를 불렀던 마리·오스몬드는 둘이 결혼까지 생각하고있는 상태.

이들은 골든글로브상 시상식이 [illegible] 유타에 있는 오스몬드 스튜디오에서 "다윗들의 행렬" [illegible] 쇼가 끝난후 한 사진기자 [illegible] 오스몬드에게 [illegible] 요청했으나, 그녀가 스나이더와 이야기 하느라 정신이 없자 할수없이 스나이더를 떼내고 오스몬드의 사진을 찍었을 정도였다.

◆존·스나이더와 마리·오스몬드

◆버트·레이놀즈와 로니·앤더슨.

스나이더는 몰몬교는 아니지만, 이미 오스몬드의 부모를 만나보았으며 그들로부터 인정을 받은듯.

독실한 몰몬교인 오스몬드의 가족들은 그녀가 보이프렌드를 사귀는데에 항상 장애가 되어 왔었다.

언제나 몰몬교를 믿겠다는 오스몬드는 그러나 스나이더와 결혼하게 된다면 교회밖에서 결혼식을 올리겠다고 말하기도한다.

브라운주지사와 로맨스를 갖기도했던 신디·윌리엄스는 오는 5월4일 가수 빌허드슨과 결혼식을 올릴예정.

골디·혼과의 4년간 결혼기간중 4살및 2살짜리 자녀를 두고 있는 허드슨은, 80년 혼과 헤어진뒤 알리·맥그로우와 염문을 뿌리기도 했었다.

이들은 5백명의 하객을 초청했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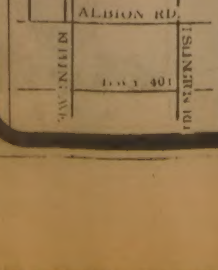
◆빌·허드슨과 신디·윌리엄스.

시계및귀금속 수리
(M &J WATCH JEWELLERY REPAIR)

안녕하십니까?
각종 팔목시계와 귀금속(금줄, 팔지, 반지) 일체를 저렴한 가격으로 신속 정확히 수리해 드립니다.

마 능 욱

1530 ALBION RD. REXDALE,
(KIPLING 과 ALBION)



TEL :
742－1205(B)
745－1632(R)

토론토대한기도원
창립9 주년특별집회

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금번 창립9주년을 맞이하여 한국 대한 수도원 전진원장님을 모시고 집회를 마련하였사오니 동참 하셔서 영육간에 치유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일시 : 1982년3월18, 19, 20, 21일(4일간)
시간 : 오후7시30분
장소 : 중앙한인교회(구한인교회)353 Sherbourne St.
강사 : 전진원장
대한감리교 신학졸업, 현 대한수도원 원장

후원 : 토론토기독여성 연합회
주최 : 토론토대한기도원

연상만건축설계사무실

SANE·MAN YOUN ARCHITECT
M·ARCH. O·A·A·

개 업 안 내

지난10년간 토론토에서 캐네디안의 건축설계 사무실에 근무하여온 본인은 이번에 온타리오주 건축사 면허를 취득하여 아래 장소에 다음에 적는 사람들과 협동의 관계를맺고 건축설계 사무실을 개업합니다. 교민 여러분의 많은 이용 있으시기 부탁 드립니다.

DANA FERGUSON : MECH·ENGINEER
DOUG NAYLOR : MECH·ENGINEER
STEFAN SIMEK : STRUCTURAL ENG.
CLIVE CLARK : ARCHITECT

약 력

1964 : 경기고등학교 졸업
1968 : 서울공대 건축과 졸업
1971 :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1972 ~ 1982 : 토론토에서 캐네디안 건축설계사무실 근무

161 EGLINTON AVE. E, SUITE 702
484－4895 484－6110(B), 482－7472(R)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地震 보름만에 또 來襲

1日 0時28分 震央 蔚珍海底
震度4…78年이래 최대규모

지난 2월14일 서울근교에서 진도3의지진이 발생한데 이어 15일만인 1일 새벽 진도4의지진이 다시일어나 전국을 놀라게 했다.

慶北蔚珍앞바다에 진앙지를 둔 이번 지진은 지난 78년 洪城지방에서 발생한 진도5의 강진이래 가장 큰 규모였다.

중앙기상대는 1일0시28분2초부터 30분에걸쳐 전국 일원에 지진이 발생했으며 蔚珍과 三陟일대는 진도4, 그밖의 지역은 진도3~1로 기록됐다고 밝혔다.

기상대는 이번 지진의 진앙지는 동경1백29도8분, 북위37도2분인 蔚珍북동쪽45㎞ 해저5㎞지점이었다고 밝히고 진도4의 蔚珍·三陟지역에서는 기왓장이 떨어지고 진열대위의 상품이 떨어지면서 건물이 심하게 흔들렸으나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는 없었다고 말했다.

또 진도3인 大邱·永川·浦項등지와 진도2인 秋風嶺·江陵·春川·부산·淸州·忠武지역에서도 건물이 흔들리고 그릇등이 부딪쳤으며 진도2~1인 서울에서는 고층아파트가 흔들려 잠자리에 들었던 시민들이 모두깨어 불안한 하루밤을 보냈다.

이날 지진은 우리나라에서 발생했던 다른지진과는 달리 강도센 여진이 초진에 이어 간헐적으로 3차례 발생했는데 蔚珍지역에서는 1일0시28분2초부터 10초까지 8초동안 강도4의 초진이 일어난데 이어 28분30초부터 35초까지 5초동안 진도3, 새벽1시15분께에는 진도1의 여진이 있었다.

三陟지방에서도 이날 0시28분께 5초간 진도4의강진이 1차로 발생한데 이어 2분뒤인 30분부터 3초간 강도2의 지진이 일어났다.

大關嶺에서도 이날 0시28분30초부터 15초간 진도3, 29분5초부터 15초간 다시 진도3의 강진이 계속됐으며 29분50초부터 10초간은 진도2의 지진이 뒤따랐다.

서울지방에서는 이날 0시28분36초부터 진도2~1의 지진이 3~4초간 일었다가 다시 진도1이하의 여진이 23초간 계속됐다.

觀光客등 待避소동 大邱·蔚珍등주변

【地方綜合=】1일새벽에 일어난 지진으로 경북蔚珍을 비롯 전국 각 지역의 주민들은 잠에서 깨어나 밖으로 뛰어나오는등 연휴중 뜻밖의소동을 빚었다.

강도4~3으로 집이 흔들리는등 지진을 뚜렷이느낄수 있었던 大邱·蔚珍지방 주민들은 잠을 설쳤고 연휴를 맞아 만원을 이뤘던 蔚珍白岩온천 숙박업소등에서는 관광객들이 한때 대피하기도 했다.

특히 지난14일밤에이어 보름만에 또 발생한 지진이어서 많은주민들은 관계기관에 문의전화를 하는등 불안을떨치지 못했다.

야간당직근무를 하던 경북蔚珍경찰서수사과장 林貞道경위(55)는『유리창이 소리를 내며 떨리고 30년전에 지은 낡은 단층 목조청사 전체가 갑작스런 파도에 배가 요동치듯 10여초가량 흔들려 지진임을 직감했다』면서『즉시 관내 지·파출소에 연락, 피해여부를 확인했으나 별다른 피해는 없었으며 놀란 주민들의 문의전화가 빗발쳤다』고 말했다.

根本대책마련 시급 3百年周期說 증명

◆서울대자연대 鄭鳳日교수=울진지역은 우리나라동해안 지진 다발지역에 속한다. 기록에 보면 이지역에서 15세기에 1회의 경진을 시발로 16세기에 들어 경진7회, 약진1회, 중진1회등 모두10회의 경진이상의 지진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있다.

특히 1681년 5월엔 襄陽과 三陟일대에 땅이꺼지고 해일이 이는 강진을 일으켜 큰 피해를 입힌것으로 기록되어있다. 따라서 이번 울진의 경진은 3백년만에 일어난 비교적 큰 규모의 지진으로 3백년주기설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지진에 대한 근본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본다.

"統一、民族自決원칙에서"

3·1節63돌맞아 全대통령 기념사 "우리世代에 기필코 實現"

全斗煥 대통령은 1일 통일은 반드시 민족自決의 원칙에서 실현돼야하며 기필코 우리세대의 손으로 통일을 이룩하고야 말겠다는 확고한 결의와 자신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全대통령은 이날 상오10시 서울世宗문화회관에서 열린 3·1節 제63주년 기념식 기념사(劉彰順국무총리代讀)를 통해 이같이강조하고『민족통일의 正道를 개척하는데 있어서 우리는 3·1운동이 제시한 역사적교훈을 중시해야한다』고 말했다.

全대통령은 도지역과 이념, 종교, 계층의 구별없이 온겨레가 참여하는 통일이야말로 진정한 민족통일이라고 강조하고『민족을 離間시키고 민족성원간의 반목과 갈등,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나 선동은 중지돼야하며 南北韓간에 민족異質化를 멈추고 해소하는 실질적인조치들이 하루바삐 취해져야 할것』이라고 촉구했다.

全대통령은『무슨일이든 말과 회담만으로 이루어지는것은 없다』고 지적하고『통일에대한 우리의집념을 키워가는한편 그것을 현실화할수있는 자체역량의 축적을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해나가야 겠다』고 밝혔다.

全대통령은 평화와 인류의 행복에 공헌하는 방식의 통일을 강조하면서『전쟁을 수단으로한 통일은 조국을 폐허로 만들것은 물론, 그리고 세계의 안정과 평화를 크게 위협하게될것』이라고 말했다.

全대통령은 3·1운동을 통해 우리민족은 自主이어야하고 獨立이어야 하며『우리민족은 하나임』을 확인시켜 주었고「세계속의 우리」의 未來像에 대해 분명한 인식을 다져주었다고 말했다.

"農民도經濟교육 預金風土를"
全대통령 抱川郡·軍部隊 새벽巡視

全斗煥 대통령은 3·1節 공휴일인 1일새벽 西部전선의 軍부대와 京畿道抱川郡廳을 차례로순시, 장병들과 당직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이날새벽 4시30분 청와대를 출발한 全대통령은 새벽5시18분 ○○군단사령부에 들러 군단장으로부터 부대현황과『팀스피리트82』훈련계획을 보고받은뒤『敵의 기습침투에대비한 작전개념의 확립과 대비전방안을 연구해야한다』고 당부하고 抗道陣地를 전투력도 보강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全대통령은 이어 抱川郡廳을 찾아 李在天 郡守로부터 郡內업무현황을 보고받고 볏짚을 이용한 취사용 메탄가스시설의 연구보급에 관심을 표명하면서 冷害등 이상기온에 철저히 대비토록하라고 지시했다. 全대통령은 또『버섯이나 약초재배등 지역특성에 맞는 여러가지 농가소득증대방안을 계속 연구해 농민의 農外소득을 올리도록 해야할것』이라고 말하고『郡관내 각기관의 공무원들이 간요원이 되어 철저한 농민 경제교육을 주도, 올해物價를 한자리數에서 안정시키도록 경제홍보를 강력히 추진해달라』고 강조했다.

全대통령은 특히 식량절약과 농촌연료절약에도 힘쓰는 한편 농민들도 農協이나 우체국에 예금하는 풍토를조성토록 지도해달라고 당부했다.

全대통령은 歸京길에 쉐라톤 워커힐호텔에 들러 17층옥상에서 88년올림픽의 조정경기장으로 지정된 渼沙里 일대와 江華등을 살펴봤다.

이날 순시에는 周永福국방장관 李範錫비서실장 黃永時육군참모총장 李春九내무차관 許和平정무1 李鶴捧정무2, 李熺健·金泰鎬 정무비서관등이 수행했다.

"反民族음모 解明을"

民統協 全대통령 危害음모관련 성명

민족통일 중앙협의회의 千寬宇 의장은 1일 全斗煥 대통령危害음모 사건과 관련, 對北성명을 통해『北韓측이 만일 이反民族的범죄행위와 관련이 없다면 우선 도주한 음모주범을 캐나다로 즉각 송환하는등 행동으로 이를 증명해야할것』이라고 말하고『하루바삐 南北대화의 탁자로나와 평화통일에 대한 그들의 의사를 실증하라』고 촉구했다.

千의장은 이날상오10시 서울江南區論峴洞 협의회 회의실에서 성명을발표, 이같이 밝히고『全대통령이 北韓측의 제의를 포함한 민족통일방안 주장을 협의키위해 平壤, 서울또는 세계어디서든지 南北韓당국최고책임자회의를 열자고 제의하고 있을뿐 아니라 현재로서는 가장현실적이며 실천가능한 민족화합민주통일 방안을 제의함으로써 평화통일에 대한 관심이 국내외에서 크게고조되고있는이때 全대통령을 危害하려는음모가 캐나다와 美국의 수사당국에의해 밝혀지고 그배후에 北韓측이도사리고있는 증거가 드러나고 있는데 대해 큰놀라움과개탄을 禁할수없다』고 강조했다.

中共 古參 관리 2百萬 곧 辭任

「社會主義 倫理운동」 전개
全人代 곧 발표·改憲착수
거의 33年前 建國유공자…終身制 폐지

◇中共黨주석 胡耀邦㊨과 중공군총참모장 楊得志㊧가 28일 중공이 선포한 사회주의윤리의 날을맞아 北京시내 북해공원에서 청소작업을하고있다。 【北京28日AP電送=聯合】

【北京28日AP=聯合】비효율적인 관료체제를 정비하기위한 행정구조개편작업이 진행됨에 따라 33년전 공산당의 승리를 통한 중공정권수립에 크게 기여한 약2백만명의 고참관리들이 곧 사임할것이라고 중공의 관영 영자지 페킹·리뷰(北京周報)가 28일 보도했다.

페킹·리뷰지는 약2백만명에 달하는 이들 고참관리들은 현재 黨중앙위와 국무원(내각) 산하 1백29개기관에 재직하고있는 2천여만명의 관리들중 일부라고 말하고 이 고참관리들은 곧 시행될 퇴직제도에 따라 현직을 떠나게될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잡지는 정부가『사임하는 이들 고참관리의 만년을 행복하도록 해주기위해 세심한 배려를 할것이며 이들은 자신의 능력이닿는데까지 계속 사회에 공헌하게될것』이라고 말하면서『중공인민은 이들이 국가에 남긴 위대한 공로를 결코 잊지않을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잡지는 사임하는 고참 관리들외의 다른관리들도 윤번제로 재교육을 받게 될것이라고 말하면서『현관료제도속에는 책임을 전가하는풍조가 만연해있으며 2~3일이면 끝날일을 수개월이나질질끄는 일이 허다하다』고비판했다.

이 잡지는 또『지도급관리들의 종신재직제 또한 폐지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만약『그렇지않으면 개인숭배풍조를 불식시키는 일이 어렵게될 것이며 黨과 국가의 정치적 생활이 정상화되지못할것』이라고 지적했다.

【北京27日AP=聯合】中共은 아직도 일부 남은 좌파정책을 반영하고있는 1978년 헌법을 대체할 새헌법초안을 검토중이라고 관영新華社통신이 27일 보도했다.

【北京28日UPI=聯合】공산당주석 胡耀邦등 중공지도자들은 28일 최고실력자 鄧小平의 관료체제혁신과 관련된것이 분명한 대대적인「사회주의 윤리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관영언론들은 1일을 기해 공식적으로 시작되는「사회주의윤리 달」을 하루앞둔 이날 1천여만명의 北京시민중 2백만명이 거리로 나와 이운동의 일환으로 전개되는 거리청소운동에 참여했다고 보도했는데 거리의 인파로 미루어 이 숫자는 과장되어있는것으로 보인다.

현재 개회중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는 오는5일 폐막에 앞서 중앙관료체제에서 최고 20만명의 관리를 숙청하려는 鄧小平의 계획에 관한 결정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崔德新도 관련 可能性

全대통령危害음모 僑胞「文」서울서 체포

【터론토支社】속보= 캐나다거주 한국교포崔重華를 중심으로한 全斗煥 대통령위해음모사건은 캐나다밖의親北괴교포조직들이 깊이관련돼 있는것으로 드러나고있다.

1일 캐나다합동특별수사부의 관계자들은이번사건이 오래전부터 캐나다밖의 조직들과함께 추진되어온것으로 단정, 일단의 친북괴단체들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이관계자는 또 崔의아버지와 오래전부터 친하게 지내온 崔德新(전天道敎敎領)도 이사건에 깊이 관련되어있을지 모른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합동특별수사부는 현재까지 검거된 2명의 캐나다인들을 모두가『단지 돈에 욕심을 냈을뿐, 암살을 실행에 옮길계획은 전혀없었다』고 주장하고있어 崔부자를 조사해보아야 진상규명이 가능한데 캐나다와 북괴간에는 범인인도협정은 물론 국교마저없어 신변의인도를 요구할길이없다.

수사부는 그밖에 지금까지 체포, 수배된 3명의 캐나다인외에 다른단체나 인물이 하수인으로 관련돼있다는 판단아래 마피아단과 암흑가를 대상으로한 수사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연방경찰의 오크빌분서는 이사건과 관련,『한국에서 잡힌것으로 알려진 文智植은 체포된 캐나다인 공범 야노버와 잘알고있는 사이이며 인조보석상인文이 3개월전입수사건으로구속돼재판을받고있는것으로 안다』고말했다.

한편 이번사건이 드러난뒤 캐나다교민사회에서는 崔부자가 말레이지아대사로 재직할당시 미화8천달러를 횡령한사건으로 대사관에서 해임됐고 북괴를 방문했을때 융숭한 대접을 받고 넘어가 공명심에 사로잡혀있었다는 소문이 퍼지고있다.

【터론토支社】한 밀을 터론토교포 소식통은 文智植(별명 기술자)이 이번에 터론토에서 탈지된대통령 위해음모사건과 관련되어 한국에서 체포되었다고 전했다.

文이 어느정도 이사건에 관련되어있는지는 알수없다. 文의 부친은 한국군 대령 출신으로 문의 가족으로서는 부인과 어린아이 2명이 있는것으로 알려져있다. 그는 터론토를 약1년전 떠나 한국에 돌아갔다.

北傀、西海岸에서 石油탐사 준비중

【싱가포르28日外信綜合=聯合】19개국 7백여 관련기업체대표들이 대표를파견, 싱가포르에서 연국제에너지회의는 28일 특히 北傀를비롯한 버마, 방글라데시등이 종전의 폐쇄적 태도를버리고 외국회사를 끌어들여 석유의 탐사개발에 본격 나선점에 주목했다.

地平線

재작년인 80년 6월10일 그림처럼 아름다운 로잔의 한 호화저택에서 스위스의 유명한 실업가가 시체로 발견됐다. 그의 이름은 엘리·핑카스. 나이60세였던 핑카스는 笑氣가스회사, 투자회사, 부동산회사등 3개의 업체를 거느린 갑부로 스위스에서는 알아주는 실업가였다. 그는 또한 지방은행의 임원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 그는 15년동안 세상을 등쳐먹은 은행사기꾼으로 쇠고랑을 찰판이었다.

▼존경받는 실업가로 행세하면서 그가 등쳐먹은 은행돈은 자그마치 1억4천1백만달러였다. 지금의 환율로 치자면 자그마치 1천억원이나 되는 큰돈이다. 감쪽같이 속아넘어간 은행은 스위스에서 8개은행, 미국에서 2개은행이었다. 세계에서도 이름난 스위스은행들이 이같이 사기에 걸렸으니까 국제금융시장이 발칵뒤집힐만한 사건이었다.

▼핑카스가 은행을 등친 수법은 간단했다. 자기가 거느린 회사이름으로 융자를 받아, 그돈을 밑천삼아 딴사람의 이름을 빌어 딴은행과 거래를 트는 식이다. 알기쉽게 말해서 거액의 계꾼과 같은 수법이다. 게다가 미군이나 서독군이 발행한 계산서를 위조해서 은행을 속여먹었다. 가짜서류가 들통나지만 않았던들 그의 사기행각은 계속됐을 것이었다.

▼우리나라 금융사상 최대의 74억원 부정대출사건 장본인인 朴永復이 형집행정지중 또다시 은행사기를 저질렀다. 이번에 걸려든 돈은 모두 3억7천여만원. 이중에서 1억원은 정확하게 말하자면 담보제공자를 등친 것이라고 할수있는 돈이다. 나머지 2억7천여만원 가운데 6천여만원은 사채시장에서 끌어들인 6억을 예금한뒤 대출받았다고한다.

▼그나머지 2억1천만원은 4백만원의 뇌물을 주고 만든 가짜신용보증서로 대출받은 돈이었다한다. 이 과정에서 그는 유령회사와 가짜이름으로 거액의 은행돈을 손에 넣었다고 알려졌다. 가짜서류를 만들었다는점에서 그는 스위스의 핑카스와 같은 수법을 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2차 박영복사건의 특징은 스위스은행이 넘어갔던 사건과다른데에있다.

▼핑카스는 존경받는 실업가로 행세할 수 있었지만, 박영복은 거액의 은행사기죄로 형집행정지중이었다는게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게다가 박영복의 뇌물에 넘어가 신용보증서가 나올수있었다는것도 다르다. 금융제도의 권위와, 行刑제도의 권위가 한꺼번에 먹칠을 당했다고 할만한사건이 아닐수없다. 단순히 속아넘어갔다고 혀를차고 지나칠수없는 문제임을 똑똑히 인식해야할 것이다.

社會漫評

"그간의 罪를 비오며…"

구독신청은
(416)
533·2361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 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 동 산

김 종 조
535—0028
535—7200

SunLife
OF CANADA

김 신 명
●생명보험
●연금제도
●교육보험
●그룹보험
●주택, 건물 사업금융
모기지보험
●R. R. S. P
922-3111 (B)
791-8196 (R)

Annie's
Beauty Care Center
(Hair Wizards)

개업 특별 할인

(3월 2일 개업)

미용·화장
전문센타

이 할인권을 갖고
오시는 분에게
10% 할인합니다.
82년 5월말까지 유효.

◎ 매니-큐 화장법
◎ 얼굴 화장법
◎ 얼굴 맛사지법
◎ 피부보호 화장법
◎ HAIR-REMOVAL 보호방법

6093 Yonge St. (영×휜치)
○. Just North of Finch
○. Yonge 센타 플라자내
☎ : 223-7884~5 Mrs. 리

REWARD

yourself with a challenging and exciting
career with good salary and excellent
fringe benefits in the:

METROPOLITAN TORONTO POLICE

APPLICANT MUST BE:
1. Canadian citizen or British subject.
2. Age: 17 to 20 years for CADET.
At least 21 years for CONSTABLE.
3. Weight must be proportionate to height
(In good physical condition).
4. Holder of a valid Ontario Driver's License.

AS A POLICE CONSTABLE OR CADET
REQUIREMENTS:
EDUCATION: Applicant must also have 27 Ontario credits in courses taken at level four or higher or equivalent.
VISION REQUIREMENTS: Uncorrected vision to be not less than 20/30 in both eyes and not less than 20/50 in one eye. Normal colour vision.

For further information attend,
call or write our:

METROPOLITAN TORONTO POLICE
EMPLOYMENT OFFICE
365 BLOOR ST. EAST, SUITE 908
TORONTO M4W 4L3
(416) 967-2391

Between
8:00 a.m. - 4:30 p.m. Monday through Frid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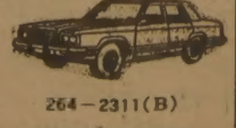
MARVIN STARR

〈취급종류〉

소형차 : ACADIAN, PHOENIX
SKY LARK, J2000
중형차 : LEMANS, GRAND·PRIX
CENTURY, A6000,
FIRE·BIRD, RIVIERA
대형차 : 스테이션웨곤, PARISIENNE,
LESABRE, ELESTRA, PARK·
AVENUE, 벤트릭, USED·CAR

◎차종류에 따라 Cash Rebate(Bonus)있음
◎카나다에서 Buick Line 으로는 Top Sale dealer임

* Best After Service * Best Price



264—2311(B)
439—5030(R)
3132 Eglinton Ave. E.
(Markham×Eglinton)

조 의 문

秘錄 現代史發掘

5·16革命에서 維新前夜까지

<18>

維新前夜

「10·17」産室은 宮井洞 內閣도 與黨도 몰랐다

『공무원과 학생들을 모두 새마을 사업에 강제 동원하고…도대체 이런 강제적이고 전시효과적인 새마을운동을 언제까지 계속하겠단 말인가』

1972년 10월17일, 大邱의 慶北道廳에서는 국회內務委 국정감사반의 의원들의 찌렁찌렁한 호통이 울리고 있었다.

내무위뿐이 아니었다. 건설위는 水原에서 「그린벨트」에 묶인 私有地를 보상하라」고 아우성이었고 農林委는 光州에서, 法司 文公 交通 保社委는 釜山에서, 재무위는 서울에서 중소기업은행을 감사하느라 와글거렸다. 외무위는 해외에서, 뉴욕의 유엔대표부와 파리대사관을 감사한다고 열을 올리고 있었다.

불과 몇시간뒤면 「국회해산」이라는 날벼락으로 자신의 목이 달아나리라고는 상상도 못한채. 물론 이미 국회해산의 눈치를챈 일부의원들은 자료보퉁이를들고 슬그머니 國監場을 빠져나가기도 했다.

『그날 하오부터 서울에서 무엇인가 심상치않은 움직임이 있다는 얘기가 지방 國監에 나선 의원들 사이에도 나돌았지만 그것이 비상계엄에 국회를해산할줄은꿈에나알았겠습니까』

1년6개월만에 途中下車한 당시8代의원들의 솔직한 술회이다.

10월17일 어둠이 재빨리 짙어진 하오 7시를 기해 10·17조치(維新)가 선포된것이다.

5·16으로 시작되어 10월유신까지 이어지는 이른바 제3共和國기간은 잇따른 過怒과 試行錯誤들으로 激動과 파란의 연속이었다. 이기간동안 국내외를 놀라게하고 失望과 충격을준 사건들을 꼽자면 헤아릴수가없다.

공화당事前조직, 4大疑惑, 통화개혁, 3粉暴利, 공화당의 抗命파동, 3選改憲, 珍山파동, 韓·日협정비준, 언론윤리위회법파동, 臥牛아파트, 司法파동, 6·8부정선거, 鄭仁淑사건, 국가비상사태선언등은 대표적인 사건들.

특히 언론윤리법파동때는 본사기자들은 取材거부쟁과 官製언론윤리위 소집反對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1면에 싣기도했다. 이엄청난 사건들은 결국 10월유신으로 절정을 이루게된다.

10·17조치는 워낙 극비리에 추진되어왔기때문에 제한된 참여자외에는단행될때까지 아무도 눈치를 채지못했다.

당시 金鍾泌총리의 內閣도 이작업에 疏外당했으며 執權與黨 共和黨도 까맣게 몰랐으니 국회의원들인들 알리가 없었을것이다.

10월 維新의 大作業이 착수된것은 72년5월 중순께 부터였다.

당시 李厚洛중앙정보부장이 平壤을 다녀온지 (5월2~5일) 10여일 지난뒤였다.

작업의 本據地는 10·26사태가 일어난 宮井洞의 저택 사무실. D데이를 10월17일로 잡고 각분야별 준비작업이 극비리에 착수된것이다.

李부장휘하의 직원들과 고위층의 정무 비서관 H씨와 그밑의 Y씨, 공보비서관K씨가 처음부터 참여했다.

이들은 매일 은밀하게 작업진행상태 그날 그날의 진행狀況을 고위층에 보고를 하고 새로운 지시를 받아 다시 작업을 진행시킨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시 K某비서실장이 가끔 독려차 나타났고 정부측에서 S법무장관과K씨(뒤에 내무·법무장관)가 합류했다. 하자로 韓泰淵 葛奉根교수가 憲法學會를 중심으로 改憲案 작업에 들어간것은 훨씬뒤였고 홍보작업을 위해 언론계출신 인사들이 참여한것은 D데이가 가까와서였다.

당시 관계자들 자신도 5월부터 6개월동안 작업이 계속되었는데도 그처럼 비밀이 끝까지 유지되었다는데 대해 스스로 놀라고 있다.

10월17일하오ㅡ비상계엄이 선포되기 불과몇시간전 朴正熙 대통령은 특별보좌관들을 모두 집무실로 불러모았다.

갑작스런 뜻밖의 소집에 놀란 이들은 서로 얼굴만 쳐다보며 朴 대통령의 눈치만 살필뿐이었다.

朴 대통령은 굳은 표정으로 한동안 담배연기를 깊이 들여마셨다가 길게 내뿜을뿐 말이 없었다. 이윽고 서랍에서 서류를 꺼내더니 내던지듯 이들 앞에 놓았다. 『모두들 한번씩 읽어보고 각자 의견을 말해봐』

「국회해산」「정당활동정지」「憲法의 效力정지」「憲法改正」등의 활자가 눈에 들어오는 순간 보좌관들은 가슴에 무언가 「꽝」하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다.

소감을 말해보라는 지시에도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다.

갑작스런 충격에 놀란가슴을 진정시키기에도 바빴던 것이다.

침묵만이 흐르고 있을따름이었다. 이윽고 밖에서 某비서관이 문을열고 들어오더니 某國대사가 와있다고 전했다.

朴 대통령은 그전갈에 대뜸 못마땅한 말을하고 조건반사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래도 만나긴 만나야지』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접견실로 떠났다.

內閣도이작업을거의모르고있었다.

당시 金鍾泌총리도 선포3~4일전 李厚洛씨로부터 얘기를 듣고 알았을 정도였다는 後聞. 「10·17」작업의 總帥였던 李씨는 朴 대통령에게 총리에게 알리는 문제를 수시로 의논했는데 그때마다 『미리 알리면 保安이 안된다』고 고개를 저었다는 것이다.

이작업에 참여했던 유일한 각료인 S법무장관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각료들은 그날 17일 당일에 알게되었고 일부는 그날 하오 열린 중앙청 국무회의 석상에서 알았다는 것이다.

당시 金溶植외무장관은 17일하오 3시께부터 駐韓 각국대사들을 차례로 불러 미리 이조치를 알리는 외교적 예의를 차리고 있었으니 金外務가 그나마 시간적으로 일찍 알았던 각료중의 하나였다.

與黨인 共和黨도 철저하게 疏外당했으나 維新에 관한 마스터 플랜이 완성된뒤 마지막 단계에서 공화당의 의견을 듣는 형식절차를 밟은 것으로 뒤늦게 드러나고 있다.

◇10월維新이 단행되기 1년동안의 時局은 激動과 긴장의 연속으로 우울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이러한 분위기는 維新이단행되기앞서 국가保衛法파동으로 한차례 소용돌이에 빠졌다. 사진은 71년12월 白斗鎭국회의장 사회로 여당의원들만이참석, 국가보위법을別館에서 날치기통과하는모습.

超憲法的인 保衛法파동·南北회담 衝擊속에

6개월 極秘작업 "國會해산·戒嚴令" "金總理알면 保安안돼" 사흘전 통고

문제의 D데이인「10·17」을 며칠 앞둔 어느날 당시 공화당 사무총장이던 K씨는 고위층의 정무비서관인 Y씨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정부의 某種조치에 대해 黨의 의견을듣고 싶으니 두사람만보내달라』는 것이었다.

당시 대변인 S의원과, S의원과 평소 친하게 지내던 교수출신의 L의원(現의원)이공화당의 「密使」(?)로 파견되었다. 이들이 간곳은 현재의 엠배서더호텔로 改築하기전의 錦繡莊호텔이었다.

그곳에는 이미 당시고위층의 공보수석비서관 K씨, 정무비서관Y씨, 스피치 라이터였던 S씨 (뒤에 維政會 3期의원), 사회담당보좌관L씨 (현의원), 그리고뒤에維政會1기로 들어가 2期까지 근속한 언론계출신의 L씨등이 와있었다.

이들은 며칠뒤에올 「10·17」의 내용해설과 홍보책자를 이미 준비해 두고 있다가 찾아간 공화당의 두密使에게 보라고 내밀었다.

「10·17」의 擧事계획을 처음接한 이들은 우선 놀란는게 첫순서였고 그다음은 당시의 국내외정세로 보아 무슨 조치가 있어야한다는 원칙에는 수긍을 하면서도 계엄령과 같은 非常수단을 써서는 절대안된다고 反論을 제기했다.

또 그런 조치가 合法性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민투표같은 절차는 꼭 거쳐야한다는 주장도 곁들였다.

그러나 고위 비서진의 태도는 이미 확고 했고 구체적인 부수사항도 거의 끝났기때문에 「變更은 不可」라는 強硬한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스타일의 黨政협의는 3일동안 계속되었다.

두 密使는 極秘에 붙여야한다는 至上命令때문에 黨舍에서도 눈을 피해 금수장으로 몰래 가야했다. 이 비밀협의는 S비서관 (스피치라이터)이 책상을 치는등 激論의 연속이었다.

이일이 끝난뒤 사무총장이던 K씨는 密使중의 하나인 L의원에게 『무슨조치의 필요성을 암시하는 時局觀을 의원들에게 간추려얘기해주도록 의원총회를 갑작스럽게 소집했다.

L의원의 「時局강연」이 끝나자 공화당의원들은 『의원들을 무슨 학생취급하는거냐』고 불평을 늘어놓아 분위기가 뒤숭숭했다.

「10·17」이란 조치는 일체 얘기할수없고 그것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수 없는 국내외 사정만을 얘기했으니 영문을 모르는 의원들이 불만을터뜨린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이러한 철저한 保安에도 불구하고, 막바지 마무리단계에서 누설을 염려한 당시의 고위층측근은 僞裝전술을 동원했다.

즉「10·17」을 불과 열흘남긴 10월6일朴正熙 대통령이 11월13일부터 18일까지 日本을 공식방문하여 天皇 및 다나까 (田中) 수상과 정상회담을 한다고 공식발표를 한것이다.

그러나 訪日한다던 11월13일朴대통령은 서울에서 닉슨美 대통령의 越南평화협상 特使인 알렉산더·헤이그를 接見했다.

당시 청와대를 출입취재하던 L某씨는 訪日공식발표전 朴 대통령이 日本에 간다는 소문을 듣고 당시 대변인K씨에게 이를 확인하려했다.

그러자 K씨는 『절대로 그런일이 없다』고 訪日說을 한마디로 잘라 부인했다.

며칠뒤 이사실이 공식발표되자 L기자는 K씨에게 『금방 공식발표될것을 왜거짓말을 했느냐』고 다그쳤다.

10월17일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朴대통령의 訪日이 어렵게되자 K씨는 그기자에게 『그것 보시오. 내가 그런일 없을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소』라고 회심의미소를 지었다.

10월유신이 과연 언제부터 무슨 동기로 구상, 추진되었는지는 당시의 主役들이 입을 열지않고있어 확실히 드러나지 않고 있다.

이문제의 眞相을 파악하기위해서는 유신이 있기바로한해전인 71년의 4·27 대통령선거로 거슬러 올라가 維新이 나기까지의 1년6개월간의 政局과 정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朴 대통령은 3選까지 허용된 헌법에 따라 실시된 4·27선거에서 新民黨의 후보를 激戰끝에 90만표로 누르고 당선된다.

이어서 5·25總選에서는 야당인 신민당이 전례없이 89석 (공화당 1백13석) 이란 막강의 위세로 8대국회를 팽팽한 對決場으로 만들어버린다.

여야간의 만만치 않은 세력분포로 긴장감마저 돌던 국회는 開院되던해인 10월2일의 소위 抗命波動으로 공화당의 內紛까지 겹쳐 政局은 混亂에 빠진다.

朴正熙 대통령은 그해 12월6일『泰平무드에 젖어있는 오늘의 우리 사회의 斷面을 눈여겨볼때 나는 6·25사변의 前夜를 회상하지않을수 없다』며 느닷없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 안보제1주의를 力說했다.

이어서 12월27일 여야간의 극한대립끝에 대통령에게 非常大權을 안겨주는「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라는 이름의 超憲法적인 법안을 여당단독으로 처리 공포했다.

다음해 保衛法파동으로인한 후유증때문에 여야는 국회를 6월까지 열지못하고 어수선하던 政局에 느닷없이 7·4南北공동성명이란 衝擊波에 국민들은 모두 어안이 벙벙한 따름이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제기되는 의문은 維新이 과연 언제부터 發想되었느냐는것이다.

이에대한 해답을 4·27 대통령선거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根源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많다.

『요즘 야당사람들은 내가 終身總統制를 만들것이라는등 터무니없는 인신공격을 하고있지만 한번만 기회를 더주면 물러나겠다』『나를 대통령으로 뽑아달라고 호소하는 정치연설은 이것으로 마지막임을 확실히 밝혀둔다』

4·27선거투표를 눈앞에두고 24일과 25일 釜山과 서울에서행한 이마지막 유세에서「10월維新」의 눈치를엿볼수있다고 發想시기를 이무렵으로추리하는 의견도있다.

4·27선거를 전후하여 총통제 얘기가 한창에 많이 나돌았고 특히 선거가 끝난뒤에는 某某인사들이 終身執權제도를 연구하기위해 유럽으로 출장으로 떠났다는 얘기도 들렸다.

선거후 얼마안되어 청와대에서는 朴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이 한자리에 모여 선거의 승리를 自祝하는 酒宴席上에서 했다는 얘기를 하나의 단서로 주장하는 사람도있다.

당시 그자리에서 朴 대통령은『만일 내가 지고 新民黨후보가 선거에서 이겼더라면 어떻게 되었겠느냐』고 물었다는 것이다.

『나는 조국近代化를 신앙처럼받드는 신념을 갖고있는 사람』이라는 註釋을 붙이면서.

이말은 곧『내가 졌더라도 조국近代化의 사명을 이룩할수있는 기회는 마련했을것』이라는 말로 주위에서는 받아들여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때부터 곧「10월維新」을 결심했다는「物證」은 아직 찾을길없다.

이러한 일반적인 추측에 대한 反論도 많이 있고 이 反論또한 그럴듯하게 들린다.

만일「10월유신」을 이때부터 결심했더라면 무엇때문에 처음부터 그것을 斷行하지 비상사태선포나 국가보위법을 중간에 만들어서 파동을 일으켰겠느냐는 것이다.

非常大權을 안겨준「국가보위법」으로 대통령이 全權을 휘두를수도 있었지만 그것으로 후유증이 계속되고 여야간의 정치적爭點이 되고 있어 아예 국회를 해산하고 새헌법을 만들려고 했던게 아니냐는 추리도 상당한 설득력을 지니고 있다.

왜냐하면「국가보위법」에서 주어진 非常大權이 고스란히 유신헌법에 그대로 옮겨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유신과「7·4성명」과의 관계이다.

『朴 대통령이 4·27선거를 전후해서 유신에 대한 구상을 했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결정적인것으로 알고있는 李씨가 平壤을 다녀온뒤부터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쪽 사정을 직접 눈으로 보고 나니까 이런 방만한 체제로는 도저히 안되겠다는 생각을 하게된것으로 알려지고있습니다』

당시 한 관계자의 이러한 말은 유신과 남북대화의 직접적인 관계를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는것같다.

국가보위법은 당초 某기관의 간부였던 K씨 (뒤에 某廳長)의 책임아래 大然閣호텔의 한 방에서 부터·작업이 착수된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논의된것은 法案자체보다 어떻게 국회에서 통과시키느냐는것이 문제의 焦點이었다.

12월6일의 비상사태가선포된지 4일후인 10일 朴 대통령은 與黨국무회의에서『非常사태하에서 필요한 법률을 빨리 만들도록 서둘라』고 지시했고 당시 金鍾泌총리는 각부처별로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지시, 무임소장관실에서 17개항을 취합하여 17일의 정부·여당연석회의에 올렸다.

그러나 朴 대통령은 그정도 조치는 평시에도 할수있는것 아닌가면서 강력한 單一法案을 요구했다.

다음날 아침 朴 대통령은 白斗鎭국회의장 金총리 白南檍共和黨의장을불러 立法의 방향과 국회에서의 처리대책을 협의했다.

이어서 20일밤 金총리와 白당의장이 청와대에서 밤10시까지 이문제를 논의한끝에 대통령에게 大權을 주는 입법인만큼 의원발의형식이 좋다고 최종결론을 얻었다.

『이무렵 국회에서는 무언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감돌기 시작하면서 선거제도가 中선거구나 大선거구로바뀔것이며 내년(73년)에 이문제가 議論될것이란등의 얘기가 의원들사이에 나돌았어요. 그래서 선거구민을대하는 태도도 달라지는것 같았지요』

8代의원 K씨 (공화)의 회고다.

21일하오 당시 정책위의장인 具泰會의원외 1백10인의 공화당의원이름으로「他法보다 우선처리」라는 꼬리표가 붙어 국회에 정식제출되자 신민당은 기다렸다는듯「決死的으로 沮止투쟁하겠다」고 맞섰다.

다음날 본회의 보고발의직전순간부터 新民黨의원들은 단상점거 농성에 들어갔다.

이날밤9시 공화당의원들이 귀가하자 新民黨의원들은 본회의장과 법사위가있는 別館등으로 나누어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밤이 깊어지면서 의사당은 썰렁하고 자거나 내의나 잠옷바람으로 왔다갔다 하는등 흡사 수용소를 방불케했다.

朴 대통령이 23일「이번會期안에통과 안되면 비장한 각오」라고 국회에 公翰을 보낸뒤라 혹시나 크리스머스를 기해 기습하는게 아니냐고 25일子正을 전후해서 신경을 곤두세웠다.

농성이 시작된지도 닷새를 넘겨 占據의원들도 지쳐서 잠이든 27일 새벽3시.

10대 가까운 대형 검은 트럭이 한 都心의 새벽공기를 뚫고 太平路의사당앞에 서는가 했더니 어느새 트럭에서 내린 가죽잠바에 防石帽를 쓴 수백명의 기동경찰이 別館을 막아서는「人의鐵柵」으로 변하고 말았다.

농성하고 있던 야당의원들이 얼결에 놀라 우르르 몰려나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악을썼다.

어떤 의원은 자기자동차를 가져오라고 아우성이었다. 방벽을 이룬 기동대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당기겠다는것이었다.「너희들은 대한민국의 아들이 아니냐」고 차라리 처절한 정도의 절규를 하며 기동대의 머리위로 기어올라가는 의원도있었다.

이윽고 제4별관 3층 외무위 회의실에 불이 켜지고 사람의 그림자가비치기 시작한다.

기동대를 향해 악을 쓰던 야당의원들은 불켜진 창을 보고 발을 동동구르며 「야 이도둑놈들아, 국민이 무섭지 않느냐」고 소리쳤다.

창에비친 불은 3분만에 꺼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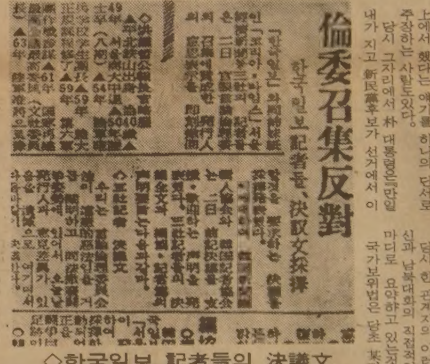
공화당의원들은 별관뒷문으로 들어왔다가 뒷문으로 나간것이다. 법사위와 본회의가 열려 국가보위법이 전격 통과되었던 것이다.

법사위는 高在珌위원장의 사회로 1분만에, 본회의는 白斗鎭의장이 나서 장소와 시간을 변경한 사유를 설명하고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2분만에 끝냈다.

共和黨의원1백11명에 무소속의 金在春 趙炳鳳의원등 1백13명과 국회사무총장 의사국직원이외에 풀기자3명, 民主共和報 카메라맨1명이 現場에 있었다.

이날 각의원들에게 自宅 대기령을 내렸던 共和黨은 27일밤 12시가 지난뒤 장충동의 迎賓館에 집합하도록 개별적으로 일일이 연락했고 영빈관에서 간단히 형식적인 의원총회를 한뒤 3대의 Y고속버스에 분승, 별관으로 왔던것이다.

【特別取材班】



倫委召集反對

한국일보 記者들, 決議文採擇

◇한국일보 記者들의 決議文

言論倫理委法 파동으로 어수선했던때 한국일보와 姉妹紙인 코리아·타임스, 서울經濟기자들이 官製언론윤리위 소집反對를 촉구하는 결의문채택을 보도한 64년 9월 2일자本報.

「秘錄 現代史발굴」일단 中斷합니다

5·16革命에서 維新前夜까지…讀者성원에 감사

알림

한국일보社는 야심적인 기획으로 매일 연재해오던「秘錄 現代史발굴—5·16혁명에서 維新前夜까지」의 시리즈를 오늘로서 일단 중단합니다.

지난 9일에 제1회분을 시작했던 이 연재기사는 野史로서가 아니라 正史로서의 秘錄 現代史발굴을 추구하면서, 지난60年代에서 70年代에 걸쳐 격동했던 第3共和國의 內幕을 진지하게 취재보도해 왔으나 이제 20회미만의 連載만으로 그 1部를 일단 매듭짓는 아쉬움을 남기게 되었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뜨거운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애독자여러분께 깊은 感謝와 양해를 바라오며 언젠가「秘錄 現代史발굴」의 속편이 계속 연재되기를 독자여러분과 함께 기대하고자합니다.

第3共和國은 길어서 20년, 짧게는 10년밖에 지나지않은「가까운過去」이며, 국민 모두의 當代史라는점, 또한 오늘의 상황에 곧 바로 이어지고있고 進行形의 歷史라는점에서 균형된 史料의 표현과 판단을 얻어내는 일이 결코 쉽지않았음을 지적해둡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기록될수있었던「現代史발굴」은 이제 시작단계에 불과하다고 하겠읍니다. 반드시 밝혀져야할 진상은 앞으로 계속될 끊임없는 노력여하에 달려있는것이라고 하겠읍니다.

그동안 뜨거운성원으로 애독해주시고 叱正, 자료 제공, 證言등으로 도와주신 여러분들에게 거듭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매혹의 저음가수

배 성 : 특별출연

기 간 : 2월18일부터
매주 목, 금, 토, 일
오후8시30분부터

히트곡 : 사나이부르스
망 향
기적소리만
향 수
무정한 여인등 20여곡

거구장

회갑, 생일잔치, 동창회및 각종파티 예약환영

영업시간 :
평일 오전11시~새벽2시
일요일 오전11시~새벽1시

밴 드 :
목, 금, 토, 일 저녁8시30분~2시까지
권순근과 그의 악단

5 BETHRIDGE RD.

742— 1618

蘇、波和解정책에 制動

야루젤스키 訪蘇…波사태 논의

戒嚴일부를 緩和 旅行·國際전화등

【모스크바1日AP·로이터=聯合】 야루젤스키 폴란드공산당 제1서기겸 수상이 1일 모스크바를 방문하는것을계기로 계엄하의 폴란드장래 문제에대해 소련과 폴란드간에 이견이 드러날것으로 보인다.

야루젤스키 수상은 폴란드국민의 反계엄항쟁이 수그러지면 구속인사를 석방하는등 계엄을 완화하려 하고 있으나 소련지도층은 폴란드공산당이 사태의 주도권을 장악할때까지 어떠한 완화조치를 취하는것에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련은 계엄통치의 계속을 결의한 지난주에열린 폴란드 공산당전체회의의 결과에 대해 만족해하고 있는것으로보인다.

【바르샤바28日外電=聯合】 폴란드계엄당국은 1일부터 계엄통치에 따른 제한을 부분적으로 완화할것이라고 폴란드 내상인 세스와프·키스차크장군이 28일 발표했다.

키스차크장군은 이날 발표를 통해 국경지대를 제외한 국내여행자유화와 바르샤바와 지방행정수도간의 자동전화 재개 국제전화 재개등이 계엄완화조치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발표문은 외국 관광객들은 폴란드의 공식여행사를 통한 경우 폴란드여행이 가능하나 택시운전사를 제외한 폴란드인들은 통행금지를 준수해야 할것이라고 밝혔다.

蘇、새權力鬪爭 軍部-KGB까지 관련

【모스크바28日UPI·AP=聯合】 브레즈네프 소련최고회의간부회의장겸 공산당서기장(75)의 가까운 혈족들이 일련의 스캔들에 관련됐다는 소문들이 끈질기게 나돌아 그를 궁지에 몰고있는것은 소련지도층내 군부와 비밀경찰(KGB)까지 관련된 모종의 새로운 권력투쟁이 일고있음을 시사하는것이라고 모스크바의 소련및 서방관측통들이 28일 말했다.

관측통들은 당이론가이자 공산당제2인자였던 미하일·수슬로프가 지난 1월25일 사망한 직후부터 이미 소련공산당및 정치국내 권력투쟁이 시작됐던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관측통들은 브레즈네프가 최고회의간부회 의장직이나 당서기장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한것같지는 않지만 그의지위가 수슬로프의 사망으로위축된것은 확실시되고 있다고 말했다.

소련및 서방관측통들은 이같은 소문들이 사실과 완전히 다르다고해도 브레즈네프를 궁지에 몰기위한 계획된 연출임에는 틀림없다고 말하고 이러한 연출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는 알수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日자위대 구축함出動 日해상자위대소속 구축함3척이 오는3월할 하와이근처에서 실시되는 림팩82훈련에 참가하기위해 27일 요꼬스까(橫須賀)港을 떠나고 있다. 【요꼬스까(橫須賀)28日AP=聯合】

美월街 연쇄爆發사고

4곳서、人命피해없고 건물만 파손

【뉴욕1日AP·로이터=聯合】 뉴욕의 월·스트리트 금융가에서 1일새벽(현지시간)푸에르토리코 민족주의단체 민족해방군(FALN)소행으로 보이는 4건의 연쇄폭발사건이 거의동시에 발생했다고 경찰이 발표했다.

폭발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뉴욕 증권거래소 아메리카증권거래소 메릴린치증권빌딩 체이스·맨해턴은행건물등 네곳으로 경찰은 사고당시 이들 기관이 통상적인 휴점시간이었기 때문에 한명의 인명피해없이 출입구와 창문이 파손되는 정도로 그쳤다고 밝혔다.

사고직후 익명의 한괴한은 AP통신사에 전화를걸어 FALN이 이번사건을 저질렀다고 밝히면서 맨해턴서쪽지역 모처에 이번사건과 관련된 FALN메시지가 있음을 알려왔다.

FALN은 지난 1975-80년사이 미국내에서 여러차례 폭발사고를 일으켜 5명을 살해하고 최소한 1백명을 부상시킨 일이있다.

이들은 미국이 그들의 치령인 푸에르토리코를 독립시켜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미국내 교도소에는 현재 11명의 FALN 요원들이 복역중이다.

사우디 產油量減縮 7백여만배럴로

【바레인28日로이터=聯合】 세계최대 석유수출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지난 1월하루 7백90만배럴에서 2월에는 7백만배럴로 산유량을 감축했으나 이같은 산유량감축으로는 석유가인하압력을 완화시키기에 충분치 못하다고 석유업계 소식통들이 28일 말했다.

세계석유시장의 수요감소와 공급과잉때문에 이란 이집트 멕시코가 2월중 가격인하를 단행했으며 OPEC는 3월중 각료회의를 열고 석유정책을 조정할 계획인데 이회의에서는 사우디의 산유량이 민감한 의제가 될것으로 보인다.

外信안테나

◆日、美의 카리브開發계획支援=일본은 무역마찰에 따른 미일관계악화를 줄이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레이건 미 대통령의 카리브개발계획을 지원할 방침인 것으로전해졌다.

일본 산께이(産經)신문은 28일 사꾸라우찌 외상이 3월중순 미국을방문, 이같은 방침을 전달할예정이며 이는 일본이 서방진영의 일원으로서 카리브 제국공산화를 제지하는데 협력하기위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東京=聯合】

◆OAU 심각한危機=아프리카 단결기구(OAU)는 28일 사하라 아랍민주공화국(SADR)의 전격 가입문제를 둘러싼 회원국간의 의견충돌을 해결하지 못한채 일주일간의 각료회의를 끝내고 이문제에 가장 불만이많은 모로코가 OAU의 분열을 선언함으로써 이 기구창설 19년사상 최대의 위기를 맞게됐다. 【아디스아바바=聯合】

金榮煥、전승으로 霸權

薛旻敬、세트得失로 女子部서 우승

그랑프리 테니스폐막

실업테니스 81년도 1~4차 연맹전 우승자들이 겨루는 그랑프리 대회에서 金榮煥(대우중공업)과 薛旻敬(농협)이 각각 남·녀부를 석권, 1위부상품 컬러TV와 VTR을 받았다.

金榮煥은 같은 大宇소속의 周昌男·林志鎬를 연파하고 1일 장충코트서의 최종전에서 張裕根(현대정공)을 6-2, 6-2 스트레이트로 제압, 3전 전승으로 우승했다.

薛旻敬(농협)은 최종전에서 동료 金壽玉에게 1-2로 역전패, 薛·金과 趙恩玉(국민은)이 모두 2승1패를 마크했으나 세트득실에 앞서 행운의 1위를 차지했다.

薛은 得세트5-失세트2, 金은 5-3, 趙는 4-4를 기록했다.

◇최종일 전적

▲남자부

林志鎬2(4-6 6-3 6-4)1周昌男(대우)(대우)

金榮煥2(6-2 6-2)0張裕根(대우)(현대정공)

▲동순위=①金榮煥 3승 ②林志鎬 2승1패 ③周昌男 1승2패 ④張裕根 3패

▲여자부

金壽玉2(4-6 6-3 6-2)1薛旻敬(농협)(농협)

趙恩玉×(×-× ×-×)×金男淑(국민은)(농협)

▲동순위=①薛旻敬 2승1패 ②金壽玉 2승1패 ③趙恩玉 2승1패 ④金男淑 3패

◇제2일전적

金榮煥2(7-5 6-0)0林志鎬

周昌男2(6-1 6-1)0張裕根

薛旻敬2(6-1 6-3)0趙恩玉

金壽玉2(6-3 6-3)0金男淑

한국 金8개로 優勝

세계태권도폐막 홈팀 에콰도르 2位

【과야킬(에콰도르)=聯合】 제5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마지막날 경기에서 韓國은 金메달2개를추가, 10체급중 8개의 金메달을 따냄으로써 종합 5연패를 달성했다.

또 홈팀인 에콰도르는 金1, 銀2개로 2위를 차지했으며 3위는 金1, 銅2개를 추가했다.

이날 마지막날 경기에서 페더급의 張明三(東星高)과 라이트미들급의 丁國鉉(韓體大)이 멕시코의 이그나치오·불란코와 에콰도르의 두반·칸가에게 각각 판정으로 이겼다.

이날 폐회식에서 金雲龍세계태권도연맹총재는 유창한 스페인어로 올해 처음 참가한 이곳 콜롬비아등 중남미 국가에서 태권도가 명실공히 세계의 스포츠로 발전했다고 말하고 83년 덴마크대회에서는 좀더 나은 기량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한국팀은 3월1일부터 콜롬비아를 방문한뒤 7일께귀국할 예정이다.

◇최종일전적

▲페더급결승

張明三(東星高)판정 이그나치오·불란코(멕시코)

▲라이트미들급결승

丁國鉉(韓體大)판정 두반·칸가(에콰도르)

◇한국의 할렐루야팀의 李榮武가 28일 도오꾜(東京)에서 열린 日本의 요미우리클럽팀과의 친선경기 전반전에서 득점을 올리고있다. 【東京28日AP=聯合】

金得九 새東洋왕좌에 前챔피언 金光玟 판정으로물리쳐

金得九는 28일 淸州에서 벌어진 프로복싱 동양태평양연맹(OPBF) 라이트급타이틀전에서 챔피언 金光玟에게 심판전원일치의 판정승, 새 챔피언이 되었다.

코너즈 우승 멕시코테니스

【몬테레이(멕시코)28日AP=聯合】 美國의 테니스스타 지미·코너즈는 28일 멕시코에서 열린 상금37만달러(약2억6천만원)의 몬테레이컵테니스토너먼트 결승전에서 南阿共和國의 조한·크리크를 6-1, 2-6, 6-3으로 물리치고 우승을 차지했다.

할렐루야 日팀꺾어 친선축구 2對1로

【東京28日AP=聯合】 할렐루야프로축구팀은 28일 도오꾜의 고오라꾸엔경기장에서 벌어진 日本요미우리클럽과의 친선경기에서 2-1로이겼다.

2만5천여명의 관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열린 경기에서 할렐루야는 전반에 2골을 얻어 유리한 경기를 벌이다가 후반에 1골을 허용했다. 할렐루야의 전반 득점선수는 金喆用(16분) 李榮武(29분)였다.

한국、브라질에 또져 바레인3국 농구서

【마나마(바레인)27日=聯合】 韓國남자농구대표팀은 27일 이곳에서 벌어진 브라질과의 친선경기에서 1백10-92로 패배함으로써 지난19일 쿠웨이트 독립기념농구대회에서 패배한데 이어 브라질에 2연패를 기록했다.

韓國팀은 전반전에 55-44로 뒤진후 후반에도 브라질을 따라잡지 못하고 1백10-92로 패배했다.

河亨柱등 7명우승 세계J柔道파견 선발전서

제3회 세계주니어유도선수권대회(4월9~11일·브라질)파견선수 선발전이 1백22명의 선수가 출전한 가운데 28일 汝矣島유도회관에서 열려 하프헤비급의 河亨柱(東亞大)와 엑스트라라이트급의 李璟根(嶺南大)등 7개체급 우승자를 가려냈다.

국가대표선수인 河亨柱는 이날 준결승에서 金炳益(漢陽大)을 허리후리기 한판으로 물리친데 이어 결승에서는 張海昌(京畿大)을 누르기한판으로 이겨 패권을 잡았다.

기교파인 李璟根은 또 金宗徹(慶尙高)을 가로누르기 한판으로 눌러 우승을 차지했는데 유도회는 오는9일 이번대회 4위내입상자들로 최종평가전을 가져 대표선수를 확정케된다.

◇체급별 우승자

▲엑스트라라이트급=李璟根(嶺南大) ▲하프라이트급=蔡炳成(韓體大) ▲라이트급=安炳根(柔道校) ▲하프미들급=金炳宰(京畿大) ▲미들급=金哲(韓體大) ▲하프헤비급=河亨柱(東亞大) ▲헤비급=白長基(飛鳳高)

서창규(육군3士)1위로 골인

3·1節경축 도로 사이클대회

【議政府=聯合】 3·1절 경축 제29회 전국도로사이클대회가 육군3士, 東洋나일론, 産業基地開發公社등 31팀 1백4명의 선수들이 참가한 가운데 1일 議政府-東豆川간 4왕복코스에서 열려 徐昌奎(육군3士)가 3시간47분09초63으로 1위를 차지했다.

제9회 아시안게임 파견선수 선발전도 겸한 이대회에서 선수들은 4왕복 코스 1백55.8㎞를 패주, 2위는 徐判洙(동양나일론)가 3시간47분10초10, 3위는 金圭根(동양나일론)이 3시간47분10초76으로 차지했다. 신인왕은 3시간47분14초79로 10위를 차지한 金瑾洙.

일반부 黃奎勳우승 20㎞ 단축마라톤서

제2회 회원사친선 서울시 단축마라톤대회가 28일하오 永登浦구민회관앞에서 구파발검문소앞에 이르는 20㎞코스에서 열려 黃奎勳(韓電)과 漢獻(崇文高)이 일반부와 고등부의 우승을 차지했다.

금년 처음열린 일반부경기에서 黃奎勳은 1시간2분23초의 기록으로 2위인 동료 鄭鍾模를 5초차로 누르고 우승을 차지했다.

휴가차 일시귀국 具然默감독

中東의 우리선수 활약알려 姜萬守는 대표팀 復歸원해

배구지도자로서는 처음으로 中東지역(76년 바레인)에 진출했던 具然默감독(62·前鮮京合纖감독)이 28일 휴가차 일시귀국, 현지에진출한 姜萬守 金忠源등 한국선수들의 활약상을전했다.

◇具然默

具감독에 의하면 지난79년 알·자지라클럽팀선수로 진출한 姜萬守는 뛰어난 기량을보여 자지라를 UAE최정상팀으로 끌어올렸을뿐아니라 걸프·에어리어의 최강팀들이 출전하는 걸프선수권 전반기대회서도 소속팀이 1위를차지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했다는 것.

具감독은 오는5월 계약이 만료되는 姜萬守선수가 귀국후 한국 국가대표선수로 다시 활약하고싶어한다고 전했다.

姜萬守는 비록 계약금을 받고 외국클럽팀선수로 뛰었지만 국가대표선수로서 다시 활약하고싶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또한 선수겸 前국가대표 세터 金忠源은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인정받아 中東국가들로부터 국가대표팀코치 제의를 받고있다는것.

具然默감독 자신은 2년전부터 아랍에미리트(UAE)의 카웃된 具감독은 80년9월 바레인 주니어대표팀을 이끌고 방콕 아시아게임에 출전했으며 소속팀을 1부리그로 끌어올리는 성과를 보였다.

流星의 賦 <321>

李炳注 作 李友範 畫

虛實의 時間 ⑱

낮은 말로 하는 소리면 또 모른다. 그런데 청주한씨의 소리는 카랑카랑하여 온집안에 고루 울릴만큼 높다. 계남은 생모 강씨를 모시고 다른집에 살고 있었지만 그날은 아버지 자수(自修)의 생일을 하루 앞둔 날이라서 대소가가 한집에 몰려있었던 것이다.

계남이 죽산박씨(竹山朴氏)를 아내로 맞아들인 후론 청주한씨도 계남을 대하는품이 여간 신중한것이 아니었는데 오늘따라 성질을 부리게 된 것은 자기가 낳은 아들들이 계남과 비교하여 변변치 못한데 불만이 있었던데다, 공교롭게도 그날 자기의 아들이 계남의 구령에 따라 『이리 가라』고 하면 이리로, 『저리 가라』고 하면 저리로 달려가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천출의 자식이 정실의 자식을 종놈 취급하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을 받아 드디어 노기가 폭발하고 만 것이다.

계남의 생모 강씨는 며느리 앞에서 당하는 꼴이 창피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자기가 당하는 굴욕은 어떤 것이라도 참아왔던 강씨였지만 같은 굴욕을 며느리에겐 맛보이고 싶진 않아

『며느라, 넌 집으로 돌아가서 집이나 지켜라』

하고 며느리를 돌려보냈다.

이것을 고자질한 사람이 있었다.

청주한씨는 펄펄 뛰었다.

『그년을 불러오라』

『이년을 가만 안둘라』

는등 고함을 지르곤 이윽고

『저놈 때문에 이 홍씨집안은 망할 것이다』

하곤 계남을 면박했다.

모든 말을 다 참을순 있어도 자기때문에 집안이 망할 것이란 말은 참기가 어려웠다. 같은 고통을 다 겪었는데도 연만한 부모에게 효도를 하기 위해 호사스럽다고도 할 수 있는 한양의 생활을 청산하고 낙향한 자기자신이 아니었던가. 그러나 당장 불평을 털어놓을 수도 없었던 것은 내일이 바로 아버지의 생신이었기 때문이다.

(생신 앞날 밤에 시끄러워서야 어디 아버지의 마음이 편하겠나)

하고 계남은 목구멍에까지 찬 눈물을 애써 삼켰다.

혼자 뒤뜰로나와 신혈에 비친 앙상한 배나무를 보고 섰으려니 그 옛날 뒤뜰에 데리고 와서 배를 따며다 가르쳐주던 어머니 한씨로부터 흐뭇하게 매를 맞은 기억이 되살아났다. 그 기억과 더불어 계남은 배나무 가지를 어루만져 보았다. 마른 가지인데도 느껴질동 말동한 생명의 맥박이 있었다. 다순것이 물이 오르고 있는 동청이었다. 바야흐로 봄의 시작을 알리는 소식이기도 했다.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49>

朴婉緖 作 金光培 畫

숨바꼭질 ⑱

『너 몰라보게 예뻐졌다』

일환이가 라면을 훌쩍이다 말고 부신듯이 목이를 쳐다보았다. 목이는 그의 뻐드렁니와 경멸이 시키면 연통속같은 콧구멍이 암만해도 보기싫어서 눈살을 찌푸렸다. 일환이가 황홀해할수록 목이는 참담해지고 있었다. 일환이가 라면 국물을 들이마시기위해 양은그릇을 들어올렸다. 마디가 굵고 손톱이 짧은 거친 손이 찌그러진 양은 그릇과 잘 어울렸다. 나도저 사람과 저렇게 잘 어울릴까? 그런의문이 목이를 참담하게 만들고 있었다.

그는 얼토당토않았다. 흡연인과는 『장발장』이 나타나서 그녀를 고원으로부터 구해줄것같은 희망이 헛된 꿈이라는 걸 알아차릴만큼 철들고부터 목이는 『장 발장』 대신에 미래의 연인을 꿈꿔왔다. 그것을 꿈꿀수가 있었기때문에 부모를 갖춘 양갓집 딸을 부러워하지않을수도 있었다. 그것을 꿈꿀수가 있었기때문에 남다른 불행과 고독을 속마음까지 다치지않고참아낼수도 있었다. 그렇게 친밀한 미래의 연인이건만 그 모습은 아직 고정되기전이었다. 그것은 그녀의 사춘기의 섬세에 미묘한 감정을 일으키고 스쳐간 실재하는, 또는 이야기속의, 스크린속의 수많은 이성으로부터받은 느낌의 다발같은것이었다.

좀 쌀쌀하다면 한대접을 국물까지 비운 일환이의 얼굴은 더욱 꼴불견이었다. 연속에 더운 국물이 들어가니까 콧물이 줄줄이 검댕과 함께 흘러내렸다. 그걸 쓱쓱 잠바소매로 문질러 얼굴이 더럽게 얼룩진것도 모르고 그는 뻐드렁니를 드러내고 싱글대고 있었다.

목이는 그런 일환이를 의식적으로 냉담한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그와 친밀한 다발의 막연한 느낌속에서 비로소 구체적인 연인의 모습을 뽑아내려 하고있었다. 그녀의 미래의연인은 모든 면에서 일환이와 정반대여야만 했다. 그는 뻐드렁니여서도 안되고, 천격스러운 들창코여서도 안되고, 불결해서도 안될 것은 물론이거니와 무식해서도 안되고 가난해서도 안됐다.

연기가 가시자 창밖의 공기는 다시 투명해졌다. 그투명한공기를 무참하게 톱로 가르고 지나간 주황빛빨래줄위에 산중의 적요로움이 위태롭게 엉켜있었다. 먼 곳을 지나가는 꿩의 발자국소리, 또는 그와 유사한 환청에도 주황빛 선은 전율했고, 그럴때마다 종점에서 시동을 거는 버스의 엔진소리가 산의 뿌리를 미미하게 흔드는 걸 앉은채 감지할수 있을만큼 적요로움도 세련돼갔다.

『목아, 우리 좋은 참 잘어울리는 한쌍이 될 것 같지 않니?』

일환이가 잠긴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얼굴은 더럽게 얼룩졌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만났을 때 처럼 터무니없이 밝게 빛나고 있었다. 목이는 그런 그에게 엷은 연민을 느끼면서 가볍게 부정했다.

『어머머, 당치도 않아』

『짜식 당치않긴, 누가 보아도 우린 어울리는 한쌍일걸』

『어째서?』

『너도 나도 천애의 고아고, 그러면서도 어려서부터 속아는 사이고, 나는 너를 좋아하고 또 너를 행복하게해줄 자신이 있으니까』

일환이가 소년처럼 으스대며 말했다. 목이는 자신도 모르게 끌수 없을만큼 짧은 순간 그런 그를 싱그럽게 생각했다.

김명종 한약방

녹용보약(보약과 에키스 약제), 심신 모두 피로, 기혈부족, 신경과민, 노이로제, 허리병, 근육통, 부인병, 불임증등에 대한 한약과 녹용, 웅담.

한약과 경전인 본 초방약에 의거한 진맥과 처방으로 조제함.

2433 FINCH AVE. W. #411
☎ : 745-2058

新新酒樓 SUN SUN RESTAURANT

정통적 중국음식. 뱅킷·카트에 담아서 원하는 대로 픽업하는 식사의 정찬.
영업시간 : 월~일(9시~오후11)
490 DUNDAS ST. W. TOR (스파다이나 코너)
☎ : 977-3142
닭, 오리, 돼지, 바베큐신설

각종 가죽옷 도산매

PERFECT LEATHER GOODS

온타리오 주 내에서 가장큰 가죽제품 스토어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마음대로 선택할수 있음
192 SPADINA AVE.
☎ : 368-4215, 368-0114

당신의 운명을 말해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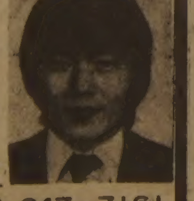
(손금 카드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드림)
●어려운 문제로 고민하시는 당신께 꼭히 도움이 되어드릴것을 약속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는 어느분이든 예외없이 충고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번와 보세요! 초능력적인 힘을 보실것입니다.
●예약은 필요없읍니다.
PRIVATE AND CONFIDENTIAL READINGS
291 AUGUSTA AVE
921-0552 7일 오픈 9시~저녁9시

CHINA HOUSE 차이나 하우스

두개의 벵쿠잇 방,
오후 4 : 30이후 배달도 합니다.
CANTONESE & MANDARIN CUISINE
925 EGLINTON AVE.W
781-9122

Grant Brown

쎄일즈·매스터 이 한 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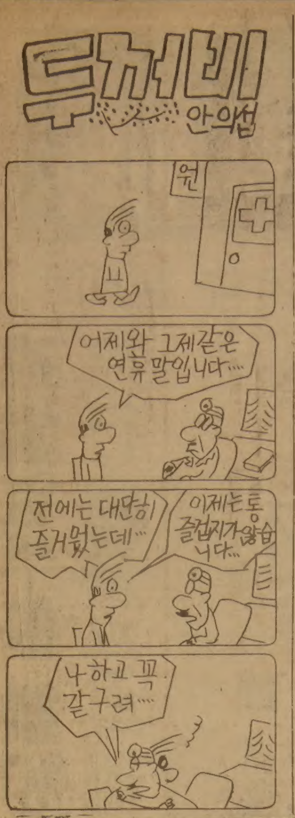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J2000. 이한구
1575 WESTON RD. B) 247-7161
WESTON, ONT. R) 977-2731

거북이선물집

각종귀국선물 염가봉사
617 BLOOR ST. W. TOR.
☎ : B) 535-2143 R) 656-3446
대표 이 창 석

BIG SEVEN무역선물센타

(구 아세아선물센타)
●우황청심환, 녹용등
●각종 귀국선물 염가봉사
678 BLOOR ST. W. (고려식품 옆)
☎ : 533-7966 김 영 철



결혼예물, 보석 및 시계… 미도파 보석부 다이아몬드, 에메랄드, 루비, 사파이어, 진주, 오팔 536-1692

3·1節 어제 63周年

"獨立유공" 援護확대를

孫子女국한 叙勳뿐인 抗日유족 惠澤없어

순국先烈유족회 "教育費 원호라도"

순국선열유족회는 27일 현행 독립유공자특별원호법이 원호대상자를 독립유공자의 손자녀(孫子女)로 국한함으로써 독립유공자의 서훈을 받고도 원호혜택을 받지못하는 유족이 많이 있다고 지적, 이를 시정하게 해달라고 관계당국에 호소했다.

순국선열 유족회가 이날 당국에보낸 「독립유공자 교육보호에 대한 호소문」은 정부가 원호법을 시행하면서 독립유공자 유족의 범위를 손자녀로 규정함으로써 항일운동사상 초기에 순국한 유공자의 유족들은 아무런 보호도 받지못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들 유족들에게 최소한 교육에관한 원호혜택이라도 제공해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이 호소문은 또 독립유공자 서훈을 받고도 원호법의 유족 제한때문에 교육원호 혜택을 못받고있는 유족의수가 2백70명 정도라고 밝혔다.

전국서 紀念式

天原 柳寬順광장서 횃불행진도

1일 63돌을 맞는 3·1절 이날 서울을비롯한 전국에서는 일제히 기념식을 갖고 63년전 조국광복을위해 일제의 탄압에 항거한 선열의 뜻을 되새겼다.

이날 서울에서는 상오10시 世宗문화회관대강당에서 丁來赫국회의장 俞泰興대법원장 劉彰順국무총리등 3부요인을비롯 학생, 공무원, 독립유공자, 시민등5천여명이 참석한가운데 기념식이 열렸다.

또 서울시내 4대고궁과 어린이대공원등이 광복회원과 그가족들에게 무료로 공개되었다. 한편 일요일인 2월28일에 이어 연휴 이틀째인 이날 서울근교에는 다소 쌀쌀한 봄바람속에서도 성급한 상춘인파로 붐볐고, 2일 봄방학 개학과 함께 한학년씩 올라가게 되는 초·중·고교 학생들은 새학기 교과서와 시간표를 정리하며 바쁜 하루를 보냈다.

또 이날상오10시 중원지방의 기미독립운동 진원지였던 충남 天原郡並川面塔院里 梅峰山기슭 柳寬順사우 광장에서 1천여명의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3·1절 기념식이 열렸고, 이에앞서 28일하오6시에는 아오네장터에서 3·1운동의 민족혼을 기리는 횃불행진이었다.

한편 이날하오2시 서울파고다공원에서는 광복회(회장 金相吉)주최로 3·1독립운동을하다 희생된 선열에대한 추념식이 열렸다.

3·1節기념식서 北傀음모를 糾彈 在日民團

【東京1日=聯】 재일민단은 1일 제63회 3·1절을 맞아 일본전국의 49개 지방본부별로 3·1절 기념행사와 함께 북괴지령에 의한 全대통령 위해음모사건규탄궐기대회를 일제히 개최했다.

이날 상오11시 東京민단중앙회관에서 열린 중앙본부및 東京지방민단대회는 崔慶祿주일대사 張聰明단장등 5백여명이 참석한가운데 63회 3·1절을 기념한후 이어 북괴지령에 의한 全대통령위해음모사건을 규탄하는 궐기대회를 열었다.

4월부터 지역豫備軍중대장 軍務員임용

處遇개선…兼職금지

국방부는 1일 전국의 지역예비군 일반중대장을 오는 4월1일부터 군무원5급(사무관급)으로 임용, 각종 처우를 개선하고 예비군업무만을 전담하도록했다.

지금까지 지역예비군중대장은 민간인 신분으로한달에 12만원의 수당을 받으며 하루4시간동안 예비군업무에 종사하고 다른직업을 가질수 있도록 허용되어왔었다.

지역예비군 중대장으로임용될경우 중대장 직책만을 전담하는대신 한달 25만여원의 봉봉과 그밖에 상여금, 정근수당, 근속수당, 정보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금을받으며 특정물품의 면세구입과 연금, 의료보험 혜택도받게 된다. 국방부가 이날 각군에 시달한 임용지침에 따르면 지역예비군 일반중대장은 원칙적으로 45세이하의 육군전투병과 및 해군해병과출신예비역 소령또는 대위로 임용토록되어있다.

그러나 해당 읍·면·동에 이같은 자격에 알맞는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市·郡·區관할지역내에서 적격자를 선발임용하며 市·郡·區지역에서도 적격자가없을때는 전투병과의 중·소위또는 비전투병과의 소령및 위관급장교를 정적으로임용할수있도록했다.

새 임용제도에따라 전국의 지역예비군중대장 상당수로 교체가 불가피할것으로 보이는데 지역예비군대장이되려면 먼저 예비군지리대에원서를제출한다음 지역대장위원회의추천을받아야한다.

商街아파트불…歌手집 태워

1일상오7시12분께서울鍾路區崇仁2洞204의11崇仁상가아파트 4층 506호가수 梁喜歴씨(36·본명 梁京□)집에서불이나 내부43평을 모두 태워 5백여만원의재산피해를 낸뒤40분만에꺼졌다.(사진)

불이나자 상가아파트 주민 2백여명이 비상계단과 고가사다리를타고 대피하는 소동을 벌였는데 경찰은 주방에 있던 LP가스가 새어나와발화된것으로 보고 정확한원인을 조사중이다.

海外토픽

새經口피임약 開發

★佛, 性能力까지 일거양득

프랑스에서 10명의 남성들을 대상으로 경구피임약복용시험을 해본결과 피임효과는 물론 성욕이나 성적능력도변함이 없었으며 남녀상호간의 허심탄회한 대화와 협조라는 면에서는 오히려 상당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리용에서 발표한 한연구보고서가 주장.

남성피임연구협회(AMCR)와 정자연구보존센터(CSSC)가 합동으로 발표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남성이 아침저녁으로 여성호르몬프로게스테론을 만든 정제를 복용하면서 남성호르몬 테스토스테론으로 제조된 겔을 바르면 약6~9개월사이에 정자가 없어지며 약을 사용하지 않을경우 3개월만에 다시 정상상태로 돌아올수있다는것.

연구보고서는 또 실험을받고있는 남성들의 심리적 상태를 관찰해본결과 이들에게서 성적충동이 감소됐다거나 임포상태에 빠졌다는등의 변화는 찾아볼수 없었으며 오히려 섬에 대해 솔직한 대화를 나눌 기회가 생겨 부부간에 새로운 신뢰와 대화의 분위기가 이루어졌다고 주장. 【리용=AP】

地下서 71일간生活

★時間감각 완전 喪失

과학실험을 위해 지하13·3(?)m의 암굴에서 71일간을보낸 과학자들은 굴속에서 완전히 시간감각을 상실, 40시간 계속 일할수 있었으며 15시간까지 잠을 잘수도 있었다고 소련의 이즈베스티아지가 보도.

이 신문은 해가 뜨고 지는 것을 전혀 알수없는 굴속에 들어가자 과학자들은 하루24시간의 개념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느꼈다고 밝혔는데 세계에서 3번째 깊은 이동굴은 그루지아공화국의 아보카치아산맥에서 70년대에 발견된것이다. 【모스크바=UP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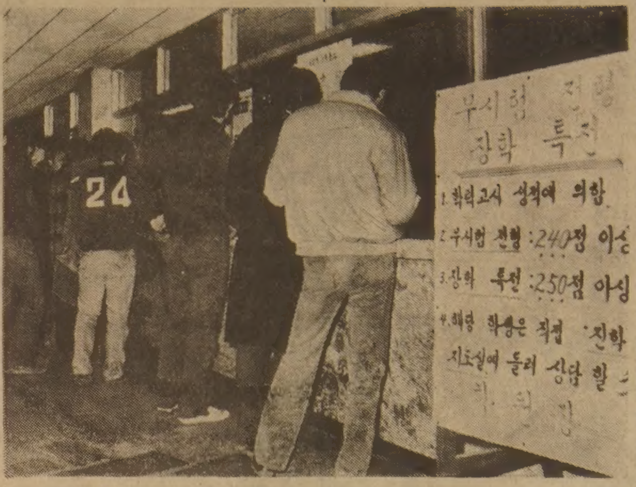
후유증再版…再修生 격증

學院街 다시 好景氣

"눈치"실패등 高點者 몰려

무시험 銓衡·장학 特典도

대학입시계 학원들이 다시 호황을 누리고있다. 대학입시제도 개혁파함께 몰락하리라던 학원가가 뜻밖에 몰려든 재수생들로 왕년의 경기를 되찾기 시작한것. 지난해까지만해도 대부분의 학원들은 본고사폐지, 대입모집정원의 대폭증가로 인한 재수생격감 현상때문에 적자에 허덕였으며 몇몇 학원만이 예전의 명성을 밑천삼아 간신히 꾸려나갔다. 그러나 이번 대입전형결과 재수생의 자연증가와함께 특히 눈치작전에실패한 고득점자및 1지망에 떨어지고 2, 3지망으로 밀려난 수험생들이 다수 재수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바람에 학원가가 갑작스레 되살아나 대학교육에대한 대책이 정말 다루기 어려운 난제임을 실감케했다.



서울J학원의 경우 지난4일과 10일 두차례 15학급 1천2백명을 모집했는데 1천8백명이 몰려 1·5대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이중 무시험전형으로 뽑은 학력고사 2백40점이상자만도 4개반 3백20명에 이르렀으며 그밖의 E, D학원등도 수강생을 초과수용하고도 더이상받아들일수없어 종합반의 경우 필기시험을 치러 성적순으로 끊고있는 실정이다.

T학원 진학지도실장 鄭基成씨는 「지난해에는 고득점자가 없었으나 금년에는 교육개혁전과 마찬가지로 서울大등 일류대에 실패한 수험생들이 학원을 찾는게특징」이라고 말했다.

鄭씨는 또「명문대의 2·3지망 합격생들이 등록을포기하고 재수하는 경우가 지난해보다 훨씬 많은것같다」면서 「이대로 몇해 더가면 학원가는 완전히 예전의경기를 되찾을것 같다」고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서울시내 42개의 입시학원중 소문난 몇몇학원에 재수생들이 대거몰린다는것은 예전과같은 현상이지만 그밖의 학원들도 지난해보다는 훨씬 많은 수강생들이 등록을 하고있다.

한편 올해 대학에 합격하고도 재수의 길을 택했다고 볼수있는 각대학의 등록포기자들은 서울大의 경우 신체검사결시자 52명을 포함, 모두 1백13명이나 됐고 漢陽大2백78명, 中大81명, 慶熙大96명, 成均館大40명, 外大78명등 지난해의 10명이내에서 몇십배씩 늘어난것으로 나타나있다.

이같이 저조한 수험생들이 재수를 택한것은 2·3지망학과를 자신의 적성을 전혀 고려하지않은채 거의 무의미하게 선택했거나 눈치와 배짱경쟁에서 진것을 특히 억울하게 생각하기때문이며 재수생수증을 막기위해 채택된 현 대학입시제도가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사실을입증시킨것.

대학입학정원의 제약에따른 재수생의 자연증가현상은 피할수 없다고해도 올해와같이 고득점자중에서 재수생이 다수나온다면 재수생 누적현상은 몇해안가 예전과같이커다란사회문제로 등장할것 같다. 【盧基昌기자】

空氣銃 도난

殺傷가능…實彈2백발도

서울東大門區龍頭洞235의4 승지양장점 주인 黃光錫씨(29)가 공기총1정 (총번51294)과 실탄 2백발을 도난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도난당한 공기총은 망원렌즈가 부착된것으로 인명살상이 가능한 것이다.

野山에 拳銃 學生이 발견

지난달26일 하오4시께 서울道峰區樊洞산28의1 공주릉뒷산에서 S중2년 權□□군(15)이 4·5구경 권총1정과 탄창1개를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權군은 이날 동네친구들과 함께 산위에 올라가 놀던중 오리나무밑에서 누런봉투를 발견했는데 이 봉투안에 총번이 2051802로 돼있는 권총과 탄창이 지난2월3일자 모일간지에 싸여져 있었다는것.

故 姜秘書役영결식

한일은행본점은행장 비서실 폭발사건때 범인을덮쳐 비명에숨진 비서역 姜信學씨(38)의 영결식이 28일상오9시 서울大병원 영안실에서 거행됐다.

이날 영결식에는 미망인 金福焱씨(32)등 유족과 安永模한일은행장과 동료행원등 5백여명의 조문객이 참석했다.

"私製다이너마이트"

韓一銀폭발 鐵板·뇌관등 出處조사

속보=서울南大門경찰서는 1일 한일은행본점 은행장비서실 폭발사건때 범인洪福基씨(24)가 사용한 폭약이 다이너마이트 종류의 폭약에 철판조각을 넣고 전기뇌관을 연결해만든 사제폭탄이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를 통보받고 폭약, 철판 뇌관등의출처를수사중이다.

과학수사연구소는 현장에서 수거된 범인의옷과 화약흔이 묻어있는 카피트조각, 가느다란 백금선이든 유리조각, 금속파편등을 감정, 다이너마이트성분인 니트로글리세린을 검출해냈으며 백금선은 화약제조회사에서 제작된 전기뇌관의 한부분이라는 사실을 밝혀낸것.

訓鍊통지한것처럼 자기손도장을찍어

방위병 拘束

서울南部경찰서는 1일 서울銅雀區新大方1洞사무소방위병 李昌男이병(22)을 사문서위조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의하면 李이병은 지난해 7월18일께 新大方1洞예비군중대본부 방위병으로 근무할때 예비군 金俊福씨(33·전남珍島郡鳥島面小馬島里190)에게 정기 감사훈련통지서를 전달하며 갖다가 金씨가없자 자신의 손도장을찍어 통지서를 전한것처럼거짓수령증을만들었는것.

이때문에 金씨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혐의로 입건됐는데 金씨가 경찰에서「지난6월부터 8월까지 집을비우고 있었기때문에 통지서를받은적이 없다」고 항의,이같은 사실이 밝혀진것.

◇「열대의 번개」 空輸 완전무장을한채 烏山기지에 공수되어온 美7사단 장병들。군복에는 「열대의 번개」를뜻하는 7사단마크를 달고있다。【烏山=李基龍기자찍음】

팀스피리트82

美步兵 속속投入

팀스피리트82 한미연합훈련에 참가하는 美하와이주둔 보병25사단주력부대 장병 4백20명과 캘리포니아주둔 보병7사단 선발대 40명이 28일상오 항공편으로 烏山기지에 각각도착, 훈련지역인 중부전선으로 투입됐다.

美7사단 2여단 32대대소속장병 40명은 美공수사령부소속 C141수송기편으로 27일 캘리포니아 오드기지를 출발, 알래스카에서 급유를 받은다음 15시간의 비행끝에 28일상오8시35분 烏山에 도착, 예정된 훈련지역으로 이동했다.

또 M16등 개인장비로 무장한 하와이주둔 25사단사령부및 의무중대요원 4백20명도 보잉747전세기편으로 이날상오9시25분에 烏山기지에 도착, 중부전선으로 배치됐다.

【釜山=聯】 2만3천톤급美육군전세화물선 찰즈·레이크스호가 팀스피리트82 훈련에 참가할 최신예전투장비와 차량5백여대등을 싣고 27일하오8시 釜山항에입항했다.

이선박에 실려온 장비들은 곧바로 美보병7사단 병력의 팀스피리트 훈련기지인 중부지방○○기지로 수송됐다.

漁船1척 침몰

암초에좌초… 9명실종

新安 10마일海上서

【木浦=聯】 1일하오2시10분께 전남新安郡荏子面在遠里허사도앞 10마일 해상에서 전북群山 안강망어협소속 제601경성호(57톤·선장이등섭·41)가 항해도중 암초에 부딪쳐 좌초됐다.

이사고로 배에타고있던 10명중 선장 이씨등 선원 9명이 실종되고 선원 이탄순씨(40·충남舒川郡長項邑창선동2가)가 인근해상을 지나던 경기도 인천선적 부천호(58톤)에 의해 구조됐다.

이날 사고는 경성호가 항해부주의로 앞에있던 암초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항해하다 부딪쳐 배밑에 구멍이 뚫리면서 침몰돼 일어났다.

해경 목포지구대는 경비정2척을 현지에 급파, 실종자 수색작업에 나섰다.

광고 정정

지난 2월25일(목요일)자 전면 광고중,
—삼복, 한밭, 서울, 제일 식품점…
새조개 깐것 1병은
◎회조개 1LB $3.49 로

D.Y. 참기름 1LB를
◎1병 $7.99 로 바로 잡습니다.

한국일보 광고부

DOMINION SMALLWARES

안녕하십니까.
금번 제가 도미니온·스몰웨어에서 쎄일즈·슈퍼바이저로 일하게 되었읍니다. 언제든지 찾아 주시면(전화) 감사하겠읍니다.
김 형 철 배

Feb.22 - Mar.5 1982

Neilson choco chuhks	5 lb x15¢	9.99
Fleers soft dub bub deal pack 4x20x30¢+2.40	free	13.65
Cracher jack	36x40¢	9.99
Rowntree& Cadbury& Lowney's Reg. choco bar	36x40¢	9.99
Cadbury thick bar	36x55¢	13.75
Rowntree& Cadbury& Neilsons family size bar	24x99¢	15.09
Hershey almond choco bar Peanut bitter cup	36x40¢	9.29
Y & S Twizzlers	70x 5¢	1.85
Y & S Twizzlers	60x10¢	2.89
Life Savers candy	24x30¢	4.55
Breath savers	12x35¢	2.55
Breath savers	18x35¢	3.95
Hi - C pops	24x10oz	5.99

DOMINION SMALLWARES
920 CALEDONIA RD.
789-7214(MR. 김)
DUFFERIN / CALEDONIA / KEELE / LAWRENCE

고향의 맛!
한식, 중국식요리 각종음식준비
— 각종국수 전문 —
서울하우스
615 BLOOR ST. W. ☎: 532-0602

JAGUAR 종합보험
*저렴한 염가로 여러분께 봉사함.
*자동차보험.
*비지네스 보험.
*집보험.
*생명, 상해보험, 등
1033 PAPE AVE.
전화 : 425-5656(Miss. 정)

KAWAI 피아노
●KAWAI 피아노는 세계에서 가장큰 회사중의 하나입니다.
●KAWAI 피아노는 일본 정부에서 그 품질을 보증하는 우수한 피아노 입니다.
●KAWAI 피아노는 캐나다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읍니다.
●HILLCREST MALL ☎: 883-9407
●MARKHAM PLACE ☎: 881-8211
대표 : 윤호섭
세일즈 매니저 : 알렌

캐나다, 새 關聯者 搜査

全대통령危害음모사건 容疑者 더있는듯

빈·카리브海등서 謀議

工作金 80만弗…6만8천弗압수

【터론토 지사】 속보=캐나다의 마피아단을 포섭한 全斗煥대통령위해 음모사건의 주범 崔重華는 지난80년부터 아버지 崔泓熙(전 말레이지아대사, 예비역장성)의 사주를 받아 거사를노려왔음이 밝혀졌다. 캐나다의 합동특별수사본부는 27일 崔泓熙가26일 사건전모발표와 함께 자취를 감춰버려 행방을쫓고있다고 새로운 사실을 밝히고 崔는 지난 80년9월 平壤을 다녀온뒤 북괴의북미공작책임자직책으로 활동하면서 아들을 앞세워 이번음모사건을 배후조종했고 캐나다의 일부 친북괴교민이 북한을방문할때는 반드시 자신의 사전승인을받도록해왔다고밝혔다.

경찰은 또 崔의아들 崔重華가 벤츠 자가용을 몰고다니는등 평소 사치가심해 그동안 많은자금이 북괴로부터 전해졌을 것으로 추정하는한편 공작금 6만8천달러는터론토의 로열뱅크에 예금된것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수사본부는 그밖에도 崔重華의올해나이가 28세로 최근 2년동안 거사를위해 야노버등 공범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쳐왔으며 자가용 승용차에는고성능 무전기까지 가설해 다니는등 치밀한 준비를 꾸며왔다고 밝혔다.

【터론토 지사】 全斗煥대통령위해기도사건과 관련해서 더많은 용의자가 체포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 캐나다경찰소식통이 26일말했다.

그는 수사가 아직도 진행중이라고 덧붙였다.

이 경찰소식통은 수사가 터론토암흑가의 폭력조직에까지도 확대되고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곳의 일간 터론토·선지는 崔重華가 폭력조직과 관계가 있다는 사실이 경찰수사에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崔가 유럽과 카리브해지역에서 北傀요인들과 국제적요인암살모의를 한것으로 보인다고 이신문은 말했다.

이 신문은 일련의 암살음모중 하나가 작년7월 北傀영사관이 있는 빈에서 열렸었다고 말했다.

이것은 이 음모의 배후에 北傀요원이 관련돼있다는증거라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경찰은 또 압수된 공작금 6만8천달러이외에 더많은 돈이 체포된 암살청부용의자들에게 지불되었는지는 확실치않다고 말했다.

한 소식통은 암살음모에소요된 공작금이 80만달러에이른다고 말했다.

한편 崔泓熙는 25일 터론토·스타紙와 회견을 가진뒤 캐나다를 떠나 제3국으로 잠적한것으로 믿어진다고 韓國관변소식통이 전했다.

"北傀危害음모에 경악"

李文公성명 對話거부 음험한 속성立證"

◇聲明을 발표하는 李文公장관

정부대변인 李光杓문공부장관은 27일하오 성명을 발표, 『分斷된 조국의 평화통일을 위해 民族和合 민주통일방안이 제의돼 南北간의대화가촉구되고있는 이때 북한공산집단이 國際暗殺조직까지 끌어들인 全斗煥 대통령危害음모가 캐나다와 歐美여러나라 수사당국에 의해 밝혀진데 대해 온국민과 함께 분노를 금할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북한 공산집단이 국가원수암살지령을 내리지 않았다면 북한에 있는 이사건의 주범 崔重華를 즉각 캐나다로 돌려보내야하고 민족적 양심이 命하는바에 따라 우리측의 거듭된 대화제의를 수락, 민족화합의 광장으로 나와야할것』이라고 촉구했다.

李장관은 『국가원수에대한 危害음모사건은 북한 공산집단이 평화적통일에 대한 의사가없으며 전복과 武力도발에의한對南赤化통일책략에만 급급하고 있음을 實證한것』이라고 지적하고 『이 사건은 겉으로 南北협상을 추진하면서 6·25南侵을 감행했고 대화를 하면서 땅굴을 팠으며 평화를 팔면서 전쟁을 획책해온 북한공산집단의 음험한 속성을 다시한번 드러낸것』이라고 규탄했다.

그는 또 이성명에서 『이사건은 각국에 겉으로는 우호와 친선을 내세우면서 안으로는 국가전복을위한 게릴라와 테러활동을 조직적으로 지원해온 북한공산집단의 暗殺폭력과 不法無道性을 국제사회에 드러낸것』이라고 지적했다.

駐加한국인 對策강구

"親北불순分子 뿌리뽑아야"

한편 캐나다에 거주하고있는 한국교민들은 27일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일부친북괴불순분자들을뿌리뽑아야한다고 주장, 교민회중심으로모임을갖고대책을협의키로했다.

崔泓熙 行方도 추적

아들崔重華 北傀체류 확인

【터론토支社】 崔重華의 아버지崔泓熙는 자기의 아들이 현재 北韓에 체류하고 있음을 확인한것으로 26일 보도됐다.

崔泓熙는 이날 터론토·스타지와 가진 회견에서 자기의 아들이 현재 北韓에 체류중이며 오는5월경 캐나다로 돌아올것이라고 말했다.

최홍희는 자기아들이 지난 1월하순 캐나다를떠나 北韓으로 갔다고 말했다.

터론토·스타지는 또 캐나다경찰이 현재 캐나다정부가 北傀와 범인인도협정을 맺고있지않고있기때문에 그가 北傀를 출발할경우 그의 송환을 시도할것임을 밝혔다고 말했다.

◇崔의 豪華주택서 謀議 터론토교외의 고급주택가에 자리잡고있는 崔泓熙의 주택. 이곳에서 全斗煥대통령 危害음모가 꾸며졌다. 이 주택은 現地시가로 약50만달러를 호가하고있다. 【미시소거(온타리오州)26日UPI=聯】

原油價 계속下落勢

【파리26日AP=聯】 국제원유시세는 선진공업국들이 자국경제의 석유의존도를 감소시켜나감에따라 앞으로 당분간 가격인하압력에 계속 직면하게될것이라고 파리에 본부를 둔 국제에너지기구(IEA)가 26일 분석했다.

IEA가 작성한 국제원유시장에관한 보고서는 현재의 원유수요감소추세가 82년 1·4분기에도 계속돼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원유수요가 5~7% 줄어들것이라고 전망하고 금년 나머지기간도 81년수준에서 『상당한량』의 수요감소를 기록할것이라고 지적했다.

IEA는 이같은 지속적인 수요감소가 에너지절약과 대체에너지 선호등 세계에너지정책변화에 기인한것이라고 분석하면서 국제원유시장의 악화가 비정상적인 과잉비축에서 비롯된것만은 아니라고 평가했다.

IEA는 따라서 석유는 제2차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지난78~79년의 석유파동 이전에 국제산업경제에서 누렸던 주도적 역할을 두번다시 회복하지 못할지도 모른다고결론지었다.

對南阿共禁輸완화

美특정生必品해제

【워싱턴27日AP=聯】 미국정부는 인종차별정책에대한 항의의 표시로 지난4년동안 실시해온 남아공화국에 대한 상품금수조치를 일부 해제, 특정생필품및 저급기술을 판매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단·데니시크상무성무역담당부차관보가 26일 밝혔다.

제5共和國 1周맞아 大赦免

2百50명線、일부政治犯 포함될듯

정부는 제5공화국출범1주년이되는오는3월3일을기해대사면을단행할방침이다.

27일 관계당국에따르면 이번 대사면의규모는 모두2백50여명선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데 사면내용은 모범수형자모범소년원생등에대한형집행정지와특별가석방및특별가퇴원등이다. 한편 형집행정지대상자중에는일부정치범들도 포함될것으로 알려졌다.

全大統領 나이지리아서 招請

【라고스=聯】 세후·샤가리 나이지리아 대통령은 全斗煥 대통령이 나이지리아를 공식방문해주도록 초청했다고 아우드나이지리아외상이 26일 밝혔다.

아우드외상은 이날 이곳을 공식방문중인 盧信永외무장관과함께가진공동기자회견을 통해이같이 밝히고 全대통령의 나이지리아 방문시기는추후 양국간의 외교채널을 통해 협의될것이지만 나이지리아측은 연내에 정상회담이 실현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아우드 외상은 全대통령이 초청을 수락하면 양국간의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 주변정세와 아프리카지역정세를 포함한 국제정세에관해 의견을 교환하고 특히 나이지리아측은 한국측이 관심이 있는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제3국과의 수교문제등에 관한 한국측의 입장을 경청하게 될것이라고 말하고 또한 한국이 이룩한 경제발전의 경험을함께 나누는 문제등 양국간의 경제협력증진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될것으로 본다고말했다.

全대통령의 나이지리아방문초청은 이날샤가리 대통령이 盧장관에게 공식으로 전달했는데 全대통령이 이초청을 수락, 아프리카의 지도국인 나이지리아를 공식방문할 경우 정부의 대아프리카 외교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할것으로 보인다.

한편 盧장관은 이날 샤가리 대통령을 약20분동안 예방한 자리에서 한·나이지리아 양국간의 협력관계강화를 희망하는 全대통령 친서를전달했으며 샤가리 대통령은양국간의 우호협력을 다짐하고 全대통령을 조속히 만나고 싶다는의사를밝힌 全대통령에게 보내는친서를 盧장관에게 전했다.

샤가리 대통령은 이자리에서 「한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정부인사나 기업인들이 모두 한국의 발전상과 근면성에깊은 인상을 받고있는데 한국의 개발경험및 기술과 근면성을 배우고싶다」고 말하고 『한국과 나이지리아가 가까운 관계로 발전하고 있는데 대해 만족한다』고 말했다.

盧外務 오늘歸國

盧信永외무장관은 프랑스, 印度, 나이지리아, 스리랑카 등 4개국巡訪을마치고 28일 하오 4시40분 KAL便으로 귀국한다.

盧장관은 印度의 뉴델리및 나이지리아의 라고스에서 열린亞·中東및阿·中南美지역공관장회의를 주재하고 순방국外相들과 일련의 外相회담을갖기위해 지난14일 출국했었다.

제3차 公館長회의 日程 모두끝내

【라고스=聯】 금년도 제3차 공관장회의는 26일하오(현지시간) 경제관계회의를 끝으로 3일간의 회의를 폐막했다.

民正·民韓 國會운영 協議

民正黨과 民韓黨은 27일 오는 2일부터 시작되는 제110회임시국회본회의의對정부질문에 나설 發言者회의를 갖고 각기 질문의 방향과 重點추궁사항등을협의했다.

民正黨은 이번 對정부질문을통해 정치·외교·안보부문의 경우 의회와 정부의 동반자적인 협조관계, 全斗煥대통령의 對北제의에 따른실현방안, 북괴를 압도할수있는 적극외교정책방안을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경제부문에서는 물가안정을 유지하면서 제2의 경제도약을 실현할수있는 새로운 경제정책의 방향, 국제수지개선과 수출촉진방안, 민간주도경제의 실천과 산업구조개편방안, 농어촌과 중소기업의 육성대책, 기술혁신과 생산성향상등을 따질계획이다.

한편 民韓黨은 이날 질문자 회의에서 國會法, 지방자치제법, 언론기본법, 정치규제자 解禁문제등 정치현안에 대해 대표질문자는 물론 議題別 질문자도 일제히 거론, 정부로부터 국민이 공명할수있는 답변을 얻어낼수 있도록 총공세를 펴기로 했다.

56개無許可 神學校 學生모집 中止토록

李文敎 경고 전국百19校亂立…告發조치

문교부는 27일 지난해 정부의 무인가신학교 정비방침에따라 학생모집이 금지된 신학교들이 올해 다시 신입생을 불법모집하고있는데다 또다른 무인가신학교들이 더 생겨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계속 법을어기는 무인가신학교는 폐쇄조치와함께 모두사법당국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李奎浩문교장관은 이날 이같은 정부방침을 밝히면서, 종교의이름아래 무인가신학교의 설립이 없어 놓고 용납된다면 법질서의 파괴는 물론 우수한교역자의 양성도 기대할수없다고 말했다.

李장관은 『그러나 종교계학교의 특수성을 고려, 종교인들에대해 호소와 설득을 편다음 그래도 안될경우에는법적제재를 가하게될것』이라고 설명했다.

문교부는 지난해 전국1백17개 무인가신학교중 1백10개교를 폐쇄하고 정식인가신청을 해온 63개교중 7개교에 정식인가를 해줬는데 올해는 무인가신학교가 오히려 1백19개교로 늘어났고 이가운데 56개교는 이미 신문등에 신입생모집광고까지 냈다는 것이다.

다음은 신입생모집광고를 낸 56개무인가신학교의 명단이다. (괄호안은 교장)

◇서울=▲平康신학교(金五成) ▲綜合신학교(趙興璧) ▲京畿신학교(趙京大) ▲大韓宣敎침례회신학교(崔仁元) ▲東亞신학교(金贊吉) ▲요한신학교(韓錫祉) ▲한국聖書침례신학교(프랑클린라서더·美) ▲首都침례신학교(金齊煥) ▲東部신학교(朴泰善) ▲서울東성서신학교(李起慶) ▲서울長老會신학교(姜信明) ▲밥·존슨신학교(제럴드·존슨·美) ▲韓國여자신학교(金玉培) ▲大韓예수교長老會총회신학교(黃成洙) ▲領東여자신학교(張成士) ▲合同신학원(朴國善) ▲總合신학원(崔義元·金堂洞) ▲總合신학원(李鎬泰·方背洞) ▲總合신학교(李炳圭) ▲韓國알라위안스신학원(張澤九) ▲總合서울신학교(朴一雄) ▲韓國성서신학원(馬慶一) ▲칼빈성경전문학교(강태국) ▲高麗신학교(李秉哲) ▲韓國聖書신학원(石元泰) ▲서울聖書신학원(金東彬) (鄭文鎬)

◇부산=▲부산장로회신학교(曹海壽) ▲부산東여자고등성경학교(金東洙) ▲西面예스레여성신학원(李正源)

◇大邱=▲慶北고등성경학교(金基植)

◇仁川=▲한국성서신학원(鄭鍾道) ▲仁川신학교(李浩文) ▲仁川고등성경학교(朴道三)

◇京畿=▲首都침례신학교(金鍾煥) ▲統一신학교(李有한)

◇江原=▲監理敎동부신학교(李鳳九) ▲江原성서학원(任憲英)

◇忠北=▲忠北성서학원(閔丙德) ▲忠北老會선교교육원

◇忠南=▲監理敎남부신학교(金奎泰) ▲예·長통합大田신학교(文全燮) ▲漢城신학교(金顯英)

◇全北=▲全北신학교(金鍾植) ▲全北선교교육원(李千洙) ▲全北성서신학원(李允喆)

◇全南=▲서울大부설平信徒훈련원(李相訓) ▲光州신학원(丁奎五) ▲光州신학교(崔基彩) ▲全南신학교(池榮燮) ▲麗水성경고등학교(崔善在) ▲聞慶神學校(崔善在)

◇慶北=▲大韓예수장로교회노역자양성원(朴成萬) ▲大邱신학교義城분교(蘇鍾烈) ▲慶西성서학원(林炳吉)

◇濟州=▲濟州성서학원(孫榮浩)

社會漫評

「한탕主義」「한팡主義」…

地平線

많은 사람이, 지진이 난줄로 알았다고한다. 그 정경을 짐작이 되고도 남는다. 서울의 都心—金融街1번지라불리는 南大門路 일대는 점심시간의 인파가 한창 붐빌 시간이다.

그때, 그런 폭음을 들으리라 짐작한 사람은 있었을 까닭이 없다. ▼한일은행 은행장실의 폭발사고 소식을 듣고 놀란 사람은, 비단 같은 건물안에서 지진같은 충격을 느꼈거나, 가까이서 폭음을 들은 사람만은 아닐것이다. 신문을 보며, 방송을 들으며 많은 사람이 섬뜩했을 것이 틀림 없다. 범인의 신원이 24살의 대학낙방생이란 사실과 어이없는 동기에서, 그런 불안은 더욱 증폭이된다. ▼신문을 보면, 그는 고등학교를 나와 大入에 실패하고 軍에 다녀왔다. 제대뒤 다시낙방한 것이범행을 생각한동기인모양이다. 이것이 그가은행장실을 찾아가, 『어차피 죽을몸』이라 뇌인 배경인 셈이다. 여기보인것은 이따금 논의를 불렀던 청소년의 자살충동이란 것이다. 그것은 스스로 올가미를써운 絶望感이 지나쳐 短絡的인 思考로 치닫는 경우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을수가 있다. 『쓸모없는놈은 죽어야한다』 『어차피 죽는놈이라면 겁날것이 없다』 『그럴바에야…』 이렇게해서 「한탕主義」로 치닫는것이다. 그가 남긴 메모는 은행에서 얻어낸돈을 여러은행에 분산 예금하고, 통장을 땅에묻어놓고 조금씩 찾아쓴다는 내용이 적혀있었다고한다. 동기에서 범행계획에까지 제3자가 보아서는 잘이어지지않는 短絡 투성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경우를 「衝動犯罪」라고해서 청소년 범죄의 한특징으로 꼽는다. 범행동기를 「衝動」으로 설명함은 그동기를 딱이 설명할 수가 없다는뜻이나같다. 그러나 청소년의 행동을 자세히살피면, 일을 저지르기전에 「豫告」가 있는경우가 많다. 그것은 구원을 요청하는SOS와도 같다. 이신호를 제대로 잡을수가있다면, 그 「衝動」을 사그러뜨릴수가 있다는 얘기가 된다. ▼이런 일반적인 얘기가 이번 사건의 경우에 얼마나 들어 맞을지는 모르나, 「진학」과 「돈」과 「죽음」이 곧장 이어 지는 短絡현상을 눈감기는 너무 두렵다. 다행히 범인을 덮친 姜信學비서역의 용기로, 이번 사고의 희생은 두사람에 그쳤다. 모든 시민에게 요구할수없는 행동이기에 그죽음은 더욱 고귀하다. 世態를 생각하며 그의 명복을 빌뿐이다.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구독신청은
(416)
533·2361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궁중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 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 동 산

김 종 조
535-0028
535-7200

SunLife
OF CANADA

김 신 명
●생명보험
●연금제도
●교육보험
●그룹보험
●주택, 건물 사업금융 모기지보험
●R. R. S. P
922-3111 (B)
791-8196 (R)

한국일보
구독 신청은
TEL: (416)533-2361

고국의 향수가 듬뿍어린
미도파백화점 비디오부
연속극, 가요, 문학, 영화, 전설…
454 BLOOR ST. W.
536-1692

주식회사 황용현부동산
HWANG

* Drive in Hamberg Shop.
주매상 : $13,000 바쁜 네거리에 있음.
가격 : $385,000

* Donuts Shop
주매상 : $4000.5,000.6,000.6500

* Variety Store
주매상 : $6000.5,000.4,500.4,000

★Shopping Centre
①Breadman과Health food Store
주매상 : $5,000 전망밝은 지역.
가격 : $229,000
②Gift 와Hobby Store
년매상 : $170,000
가격 : $80,000
③Television, 전축
년매상 : $300,000
가격 : $35,000

이외에 투자용 건물및 아파트등 다수있음.

TOM HWANG REAL ESTATE LTD.
REALTOR
101 DUNCAN MILL RD., SUITE G5, DON MILLS, ONT.
TEL. (416) 449-8644, 8645(B), 286-1548(R) M3B 1Z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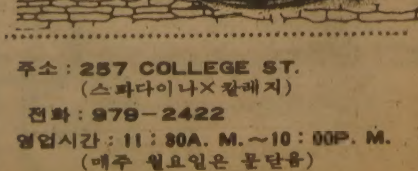
Young—Sook's Jewellery
보석상 개업특별봉사

오는3월1일부터 다운타운에 보석상을 개업합니다. 교민 여러분께 최저 가격으로 특별봉사코자 하오니 꼭 한번 들러 주시거나 전화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각종보석, 다이아몬드, 금·은 취급
*품질보장
*뉴 디자인으로 마음에 맞게 해드림.
*옛날보석 개조 또는 교환 매매.
*보증서 발행

민 영 숙
(B)368-7961
(R)690-5217
First Toronto Jewellery Exchange
Booth No. 10—No. 11
215 Yonge St.
(영×퀸)

머리털이 빠져 고민하십니까?
머리털을 보존 하십시오.
STOP HAIR LOSS NOW!
●위험신호 :
①당신이 머리를 빗을때 빠지는 머리털을 많이 보십니까?
②머리가 가렵거나 비듬이 많으십니까?
③당신의 머리털이 건조하거나 아니면 기름이 많으십니까?
④당신의 머리가 잘빠지거나 불균형 하게 자랍니까?
당신이 위의 말 어느곳에 해당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늦기전에 전문가를 만나보십시오.
※상담은 FREE입니다.
영업시간 : 매일 오전11시~오후8시
토요일 오전9시~오후3시
Peoples Hair and Scalp Specialists
Bloor & Dundas Medical Centre
2333 Dundas St. W., Suite 305
537-3104

京 華 樓
(경 화 루)
PEKING— RESTAURANT
※전통적인 맨다린 음식
※특별 : 북경오리 음식
* 겨울 스페샬(Peking Duck & Firepot)
●진미의 해산물 요리
●국수, 야채전문
●항상上海점심 스페샬

주소 : 257 COLLEGE ST.
(스파다이나×칼레지)
전화 : 979-2422
영업시간 : 11 : 30A. M.~10 : 00P. M.
(매주 월요일은 문닫음)

背後엔 北傀의 赤化陰謀

온국민의충격 테러團낀 음모使嗾

全대통령 危害기도로 드러난 殘悪相

제3國人까지 動員 安定에 초조감發惡

北韓공산집단이 국제암살조직까지 끌어들인 全斗煥 대통령 危害음모사건은 평화통일을위한 우리의 성실한 民主통일방안이 제의돼 南北韓의 對話가 국내외에서 촉구되고있는 이때에 밝혀졌다는 점에서 더욱 충격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이번사건은 한마디로 그들이 괴뢰政權을 수립한후 지금까지 계속해온 對南赤化통일의 야욕을 아직도 버리지 않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특히 주목해야할점은 北韓공산집단이 무장공비를 南派하고 간첩을 침투시키는데 그치지않고 해외동포와 제3國人까지 동원, 다른나라에서 우리의 요인을 암살하려 기도했다는 사실이다.

캐나다의 한국관계전문가들은 이번사건에대해「金日成은 한국이 제5공화국 출범이후 정치·사회·경제적으로 급속히 안정기반을 구축하고 나아가 획기적인 통일방안을 제의하면서 88서울올림픽을 유치, 국제적인 한국의 지위가 확고해지자 초조해진 나머지 이같은 사건을 사주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번사건은 74년 8·15 저격사건에 이은 제2의文世光사건 일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국내외에 충격을던져주고 있다.

당시 文世光은 朝總聯大阪府 生野區 西지부 정치부장 金浩龍과 北送船 만경봉호 북괴공작 지도원의 지령을 받은사실이 드러났었다.

北韓공산집단은 이보다 앞서 68년1월21일 무장간첩일당31명을 휴전선을 넘어 청와대부근에까지 침투시켜 만행을 저질렀으며 70년 6월22일에는 6·25 20주년기념일에 국립묘지를 참배하려는 朴正熙전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요인을 암살키위해 국립묘지 현충문에 電子式 시한폭탄을장치하려다 폭발, 미수에 그치는 사건도 저질렀다.

또 65년7월18일에는 무장간첩인 盧성집등 3명으로 特攻隊를 편성, 政界요인암살임무를 띠고 유원지인 京畿道松湫에 잠입하려다 검거되기도 했다.

이같은「흉흉한前歷」을 지니고있는 北韓공산집단은 66년이후▲阿中東21개국▲中南美15개국▲아시아5개국▲유럽2개국▲北美1개국에 국제테러조직과 연계돼 게릴라훈련을 지도하고 테러를 선동하는한편 무기와 자금을지원하는 국제테러 조직의「主犯」과「共犯」이 되고있다.

이번 사건으로 北韓공산집단은 세계각국에 겉으로는 우호와 친선을 내세우며 안으로는 그나라의 국가전복을위한 게릴라와 테러활동을 조직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北傀는 지난해 말 미국이나 캐나다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나 북한의 가족찾기를 희망하는 사람을 모집한다는 계획을해외동포사회에 선전한적이 있는데 이는 우리가 제의하고있는 이산가족 찾아주기사업을 공동으로 주관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라 할수있다.

또한 금강산관광이라는 美名아래 관광단을 모집한다고 선전한것은 해외동포에게 달콤한유혹을뻗쳐 親北교포를 늘리려는 不純한 기도인 것이다.

아뭏든 이번 국제암살단 조직사건은 저들의 對南赤化흉계가 보다 조직적이고 계획적이며 특히 외국인까지 끌어들인점에서 우리에게 경계를일깨워주고있다.

赤化야욕을 위해서는 수단방법을 가리지않는것이 北傀의 변함없는 전략이라는점을 감안할때 우리는 다시한번 저들의 불법적凶計와 魔手를 국제사회에널리 알리는한편 우리의 對共태세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것같다. 【政治部】

北傀의 對外暴力革命 지원內幕

게릴라 支援 42個國 顚覆·파괴…外交추태

캐나다교민 崔重華 일당이 획책한 全斗煥 대통령 危害음모사건을 계기로 北傀의對外폭력혁명지원전모가 드러났다。

北傀의 對外폭력혁명 지원은 크게 3가지 형태로 나눌수있다。

첫째가 顚覆공작으로 대상국가내의 좌익반정부단체와 연합해서 반란을 배후조정하거나 직접 가담하는 형태를 취하고있다。

北傀는 지난70년 콩고와 우르과이 정부의 전복공작에 가담한데이어 英國, 이집트(72년), 西獨(73년), 로디지아(76년), 印度(79년)등 10년동안 14개국을 상대로 16차례에걸쳐 전복활동을 벌였다.

北傀는 이로인해 71년4월 스리랑카로부터 외교단절을 통고받았고 75년에는 이집트에 주재하는 공관원이 축출을당하는등 국제적 수모를 입었다.

北傀의 전복공작가운데 美·英·西獨등 우리의 전통友邦國을 상대로 벌인일련의 획책은 특히 주목되고있다。北傀는 71년6월 미국내左翼흑인단체인 블랙·팬더(黑豹)단체에현금및 게릴라전술에 관한책자를 지원하기도했다。이듬해인 72년5월에는 北傀 게릴라요원1명이 英國의 北에이레반란군(IRA)에 가담한 사실이 판명됐으며 西獨의 테러단체인 바더마인·호프團이 北傀로동당에 군사훈련과 정치적협력을 요청하기도 했다.

둘째는 게릴라훈련 지원이다.

66년부터 北傀가 주력하고 있는 對外게릴라훈련지원은 여러가지 폭력혁명수출방안가운데서도 그규모나 제도면에서 주축을 이루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北傀게릴라전문가가 대상국현지에 파견, 常駐하는 방식과▲외국게릴라요원을 平壤에 초청, 교육시키는 2가지방법을 쓰고있다。

전자의 규모는 9개국 1백50명에 불과하나 후자의 경우 33개국 총2천8백명규모에 이른점으로 미뤄 후자의 방식이 크게 채택되고 있음을 알수 있다。

인민무력부 정찰국이 주관하는 초청훈련 방식은 短期(3~6개월)와 長期(1년6개월)로 나뉘어 15개소에 산재한 특별초대소에서 실시되고 있다.

주요 교습과목으로는▲정치학(金日成 주체사상)▲無電學、地形學、武術등 기초군사훈련▲폭파·매복·습격·게릴라戰法등 게릴라훈련▲戰術學등이며 교육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北傀가전담하며 피교육자에게는 月50원의 봉급도 지급되고있다。

과테말라、우르과이、칠레등 中南美 9개국으로부터 지난66년부터 71년까지 平壤을 거쳐간 反정부게릴라의 수는 1천3백여명에 달하고있다。같은기간동안 차드, 시리아, 이라크등 中東지역 17개국에서도 7백여명의 게릴라들이 이코스를 이수후 현지로 돌아갔다。

79년11월에는 女大生을 포함한 4명의 레바논대학생들이 平壤에 강제유인되어 간첩교육을 받은사실이 레바논기독교방송으로 밝혀졌었다。

세째는 전복활동을 위한 자금제공이다。北傀가이를 위해 투자(?)한 액수는 65년부터 79년까지 11개국 反정부단체에 걸쳐 2백만달러를 기록한것으로 집계되고있다。

자금제공의 대상은 케냐와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中南美국가의 反정부단체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中南美지역은 中東이나 아프리카와는 달리 中蘇에 얽혀 진출할 필요가 없는、다시 말해서 北傀의獨自행동이 가능한지역인 탓도 있다。

구체적인 자금제공의 內譯은 武器지원이 주종을 이루는데 소총, 기관총、수류탄등 소화기등이다。

北傀의 對外폭력혁명은 앞으로도 계속 증가될것이라는 것이 관계당국의 일치된 분석이다。다만 과거처럼 무분별한 전복활동의 결과로 대상국들로부터 심한 거부반응에 직면한 이상 北傀는 앞으로는 정치적지원확대와 경제적實利를 병행, 군사요원의 파견이나 招致 또는 무기의 有償공여방식을 택하리라는 것이 관계당국의 전망이다。

세계태권도
한국、金6개…종합5連覇 확정
金鍾基·朴千在·河龍成도 우승

【과야길(에콰도르)=閔炳宅특파원】 한국은 27일 이곳 콜리세오체육관에서 속개된 제5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3일째 경기에서 금메달 3개를 따내 이날 현재 금메달6개로 종합 5연패가 확정됐다。

밴텀급의 金鍾基(해군)는 이날 준결승에서 프레이테스(네덜란드)를 가볍게 누른뒤 결승에서 제수스·베니토(스페인)을 맞아 받아치기와 돌려차기로 착실히 공격, 판정승으로 이체급에서 3연패를 기록했다。

웰터급의 朴千在(한국체대)는 결승에서 오스카·메우롬(멕시코)을 힘겹게 판정으로 눌러 금메달을 따냈다。

또 라이트헤비급의 河龍成(한국체대)도 결승에서 베다트·파힘(이집트)과 맞섰으나 국제대회 경험부족과 특기가없어 고전끝에 판정승, 금메달을 따냈다。

이번대회는 28일(한국시간)페더급과 라이트 미들급경기를 끝으로 폐막된다。

◇제3일전적
▲밴텀급결승
金鍾基 판정 제수스·베니토
(해군) (스페인)
▲동웰터급
朴千在 판정 오스카·메우롬
(한국체대) (멕시코)
▲동라이트헤비급
河龍成 판정 베다트·파힘
(한국체대) (이집트)

실업野球 봄·여름·가을3차로 9개팀 풀리그벌여

대한야구협회는 27일 실업야구감독회의를 열고 82년실업야구 일정을 확정지었다。

실업야구는 금년부터 정규리그를 봄·여름·가을의 3차로 줄여 9개팀이 풀 리그로 실시키로했다。

실업야구는 4월8일 日本關東지방 사회인선발 초청경기를 스타트로 정규리그외에 釜山시장기、大邱서라벌기、서울백호기대회등을 치르게된다。

한국、타이를꺾어 4國 女子필드하키

【세렘반(말레이지아)27日=韓】 한국은 쿠알라룸푸르남쪽 약60km지점의 세렘반에서 27일 속행된 4개국 여자필드하키 선수권대회에서 타이를 4-0으로 물리치고 1승1패를 기록했다。

말레이지아는 이날 싱가포르를 3-0으로 격파했다。

26일 거행된 대회첫날 경기에서 韓國은 싱가포르에 2-0으로 패했으며 말레이지아는 타이를 4-0으로 물리쳤었다。

金承學 동률5位로 홍콩오픈 2회전서

【홍콩26日AP=韓】 韓國의金承學은 26일 속개된 상금13만달러의 홍콩오픈 골프 2회전에서 1오버·파71打로합계 1백39打를 기록, 다른5명과 함께 동률 5위에 머물렀다。

첫날 1회전에서 2언더·파68打의 좋은 기록을 보였던 金承學은 이날 백코스에서 2오버·파의 부진을 보여 1위와 3打차로 벌어졌다。

美國의 커트·콕스와 濠洲의 스튜어트·진은 이날 현재 1백36打로 동률 선두를 달리고 있다。

고메즈、32連續KO로 세계最多기록
國內선 白仁鐵이 16연속 KO거둬
주말맞아 金光玟 방어전등 빅게임

프로복싱

◆…2월의 마지막휴일을 맞아 프로권투 경기가러시를 이룬다。

WBA 주니어페더급 6위에 올라있는 金貞諸(25)은 28일 낮 문화체육관에서 日本의 구와바라·구니요시(桑原邦吉·日本페더급4위)를 맞아 10회전을 벌인다。79년1월 프로데뷔이래 6승(5KO) 2패의 전적을 기록하고 있는 金은『올해에는 세계도전의 꿈을 꼭 이루고 싶다』며 재기를 다짐하고 있다。

◇白仁鐵

◇金光玟

한편 金貞諸-구와바라 메인 이벤트에 앞서 한국대표 최종선발전 라이트플라이급서 우승을 차지했던 아마복싱 한국대표 張興民(23)은 日本의 사또·가쓰미(佐藤勝美)와 프로 데뷔전을 벌인다。

28일 저녁에는 아마복싱 플라이급 한국대표 선수였던 金知元이 필리핀의 다닐로·이노시안(밴텀급4위)과 문화체육관서 프로데뷔2차전을 벌이며 이경기에앞서 81년도 주니어밴텀급 신인왕 安益魯(18)가 孫秀熙를 상대로 8회전경기를 벌인다。安은 현재 5연승(4KO)을 기록하고 있는 유망주이다。

동양 태평양권투연맹(OPBF) 라이트급 챔피언 金光玟(27)은 28일낮 淸州에서 동급 1위 金得九(23)와 타이틀을 3차방어전을 벌인다。

◆…日本 주니어 웰터급의 신예 아까이(赤井英和·22)는 22일밤 오오사까에서벌어진 日本웰터급4위 나까오(中尾和美)와의 경기서 2회 KO승, 80년 9월 프로데뷔이후 9연속 KO승의 日本신기록을세워 새로운 유망주로 떠올랐다。

이때까지 日本의 연속KO기록은 前WBA 주니어미들급 챔피언 미하라(三原正)가 마크한 연속8KO였는데 이기록이 아까이에의해 깨졌다。미하라가 8연속KO를 기록하기까지 34라운드를 소화한 반면 아까이는 총19라운드로 연속 9KO승을 기록, 펀치의 위력을 과시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각종 권투기록에 대한 공식집계가 돼있지 않으나 현OPBF 주니어 미들급 챔피언 白仁鐵이 16전16승 KO승의 경이적 기록을 세워 국내최다 연속KO기록보유 선수로 주목을모으고있다。

연속KO 부문의 세계최고기록은 WBC슈퍼밴텀급 챔피언 윌프레도 고메즈(푸에르토리코)가 지난해살바도르·산체스(멕시코)에게 패하기 전까지 기록했던 연속32KO。국내주니어웰터급 유망주 李相鎬와 日本의 신예 아까이간의 링대결이 주목된다。【契】

한국、바레인大破 3國 친선농구서

【매나마26日=韓】 韓國남자농구대표팀은 26일밤 매나마에서 가진 바레인팀과의 친선경기에서 홈팀을 1백15-1백10으로 격파했다。

韓國대표팀은 전반에서 55-55로 바레인팀과 비겼으나 후반들어 맹공을펼친끝에 게임종료 3분을 남기고 1백11-97까지 리드했었다。

배드민턴協 總會 사업계획등 확정

대한 배드민턴협회는 27일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82년도 사업계획과 1억3천만원의 예산을 승인했다。

花郞、강호 伊격파 4-2
印네루컵축구 내일 中共꺾으면 決勝진출

【캘커타26日AP·UPI=韓】 한국은 26일 캘커타에서 속행된 6개국초청 네루골드컵쟁탈 국제축구대회 4차전에서 崔淳鎬의 수훈에 힘입어 이탈리아를 4-2로 격파하여 1승3무승부를 기록했다。

崔淳鎬는 이날 전반전에서 두골、후반전에서 한골을 넣어 해트트릭을 기록했다。

한국팀은 이날 전반전을 2-0으로 앞선후 후반들어 이탈리아에 2골을허용、2-2로 동점을 이뤘으나 李泰昊와 崔淳鎬가 득점, 쾌승했다。오는 3월1일 中共(2승2무)과의 예선마지막 경기에서 이겨야만 결승전에 진출할수있다。

◇26일전적
한 국 4 (2-0 2-2) 2 이탈리아
(1승3무) (1승2패)

訪美善德팀 4연승
韓美 여자농구

【로스앤젤레스26日=韓】 전지훈련차 美國을방문중인 한국여자농구 善德팀은 로스앤젤레스에서 4차례가진 美大學팀과의 친선경기에서 각팀을 큰점수차로누르고 4연승을 기록했다。

善德팀은 25일밤 로스앤젤레스에서 고별경기로가진 페퍼딘大學팀과의 제4차전을 1백11-61로 이겼다。

善德팀은 美國랭킹10위인 오리건대학팀과 경기를 가질 예정이다。

金榮煥 1승올려 그랑프리테니스

6백20만원 상당의 부상이 걸린 실업테니스연맹전 81년도 그랑프리대회가 27일 1~4차까지의 남녀우승자 8명이 참가한 가운데 장충코트에서 개막되었다。

풀리그로 진행되는 대회첫날 남자부의 金榮煥은 소속팀 大宇의 선배인 周昌男을 6-4、6-2로 제압、1승을 올렸으며、여자부에서도 薛妟淑이 農協의선배 金男淑을 7-5、6-3으로 눌러 첫승리를 거두었다。

이번대회 남녀 1위에게는 三星컬러·TV(20인치)와 VTR、3위에게는 컬러·TV(20인치)、4위에게는 컬러·TV(16인치)가 부상으로 주어진다。

◇첫날전적
▲남자부
金榮煥 2 (6-4 6-2) 0 周昌男
(대우) (대우)
▲여자부
薛妟淑 2 (7-5 6-3) 0 金男淑
(농협) (농협)

檀大축구팀 美원정

81년도 추계대학 축구연맹전 우승팀인 檀國大축구팀이 韓美수교 1백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美國원정친선경기를 갖게 된다。

한국「제2中東붐」예상
美의 中南美개발 建設업체 이미工事진출

【워싱턴26日=曺淳煥특파원】 레이건 대통령의 장기간에걸친 엘살바도르、코스타리카、자메이카등 카리브海지역 국가들의 경제개발지원계획은 한국경제성장에「좋은기회」를 주게될것이라고 24일 미국의 고위관리가 해외프레스센터에서 행한 배경설명에서 말했다。

백악관 안전보장회의(NSC)에서 국무성및미통상대표부의 고위관리가 행한 배경설명 기자회견중 한관리는 한국이 이미 카리브海지역건설공사에 진출해있지만 레이건의 카리브海지역개발계획에 따라 카리브海국가들의 경제규모가 확대되어 한국에 제2의 중동건설붐을 안겨다줄지도모른다고 전망했다。

레이건 대통령은 캐나다、멕시코、베네수엘라등 미주국가외에도 유럽、일본및 다른 아시아우방들이 카리브海개발계획에 참여할것을 23일 중대한 연설에서 호소했다。

다른한 관리는 한국이 자메이카와 자본협력등 경제협력을하고 있으나 레이건의 카리브海국가들에대한 향후12년간 섬유류 이외의 비관세 수입조치발표로、기업이흥청대고 일본자본마저흘러들어가면 한국과 카리브海국가들의 무역도 상호보완적인것으로 규모가 확대될것이라고 말했다。

과테말라는 한국무기를 수입하고있다고 뉴스 위크지는 최근호에서 보도했다。

레이건 대통령이 23일연설에서 카리브海국가들에 3억5천만달러의 경제원조、6천만달러의 군사원조를 밝혀、이미 경제원조로 책정되어있는 액수와합치면 금년도만도 이지역원조는 8억2천3백90만달러에 이른다고 월스트리트저널지는 보도했다。

레이건 대통령의 경제및군사원조、12년간에 걸친 섬유류의 비관세 수입조치및 투자장려책으로 카리브아지역경제개발계획에는 수십억달러가 투입될것으로 보인다고 워싱턴포스트지는 25일보도했다。

西獨 賂物스캔들
財相·經濟相등 千명조사

【본26日AP=韓】 서독정부의 오토·람스도르프 경제상과 한스·마트회퍼재상을 비롯한 서독내각의 전 현직각료들이 26일 불법선거자금모금과 관련, 서독검찰당국의 조사를 받고있다는 사실이 밝혀짐으로써 헬무트·슈미트수상의 연립정부가 중대한 시련에 봉착했다。

본 검찰당국은 이날 발표를 통해 람스도르프경제상과 마트회퍼재상、만프레드·란슈타인관방장관 다른 서독연립내각의 정치인및 기업인들을 불법선거자금제공과 탈세혐의로 조사하고있다고 발표했다。

서독검찰이 발표한 조사대상자중에는 이밖에 서독제2의은행 드레스덴은행장인 한스·프레더릭스전경제상 프리드리히·플리크사의 폰·브라우히치부회장및 플리크사 회장이 포함되어있으며 이들은 모두 약7백건에 달하는 탈세와 이에따른 정당의 위장치자금모금혐의로 조사를 받고있는것으로 밝혀졌다。

멕시코도 油價引下 배럴당 2.50달러

【멕시코시티25日AP=韓】 멕시코는 오는3월1일부터 최고급경질유인 이스트머스의 가격을 배럴당2.50달러내린 32.50달러로, 중질유인 마얀은 1.50달러내린 25달러로 각각 인하한다고 국영석유사 페맥스가 25일발표했다。

歷史의 눈

메아리

서양사가들은 희랍의 헤로도투스를「역사의 아버지」로 추앙한다。동양에선「史記」의 저자 司馬遷을 손꼽을수 있다。

52만6천5백字나 되는 방대한 史記를 저술하다 司馬遷은 어떤 사건에 말려들어 치욕적인 宮刑을 받고 불구의 몸이 되었다。비록 불구가 되었지만 태고부터 당시까지 그가 알아낸 과거사를 보다 바르고 상세하게 후세에 알리려 불멸의 기록을 끝내 완성시켰다。

口傳이나 史料의 선택에 그는 인간 이성으로 판단할 수 있는 史實에 입각, 냉철한 객관성을 보였고 역사가로서 불굴의 사명감을 지녔다。자신이 한일엔「과거를 만들어내거나 바꾸는것이 아니고 과거를 받아들여 그속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것을 분석하는것이 역사가의 임무」라고 E·H·카는 주장한다。현대사회에 보여지는 근본적 변화와 그 배후에 있는 먼 옛날부터의 과정을 끌어내 그것을 밝히는것이 史家들의 할일이라는것이다。

역사에서 事實과 史實은 구별된다。단편적 事實의 단순한 종합이 역사가 아니다。過去事는 사가의 눈을 통해 의미 있는 史實로 기록되는것이다。

事實的기록은 당대에 쓰여지며 각종 문서 메모 일기 회고록등은 귀한 史料로 여겨진다。사실의 기록은 객관성이 생명이다。어느시대이고 공개되지 않은 秘話가 있을것이다。그 秘話가 史實化하려면 더욱 기록의 정확성이 요구된다。

우리는 기록하는 습관과 그 보관에 대한 관심이 빈약하다。史料가 될 자료가 너무 적으니 역사기술에 고민이 따른다。

우리가「어제」로 살아온 제3공화국이 신문지상을 통해 그간 역사의 조명을 받았다。지금 살고있는「현재」는 과거의 산물임을 생각할때 독자들의 큰 관심은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질 수 있겠다。과연 이 시점에서 그「과거」가 엄격한 객관성을 갖고 비춰질수 있을까하는 의문이 제기되었다。「秘話의 證言」이 자기辯護가 아닌 사실의 자료일까하는 회의도 있음을 안다。

어떻든 제3공화국은 우리의 지난날이다。역사의 눈은 이과거를 더욱 발굴하고 정확하게 기록해 갈 것으로 기대한다。「역사는 과거의 정치요 정치는 현재의 역사」라는 19세기 영국사학자 존·실리의 名言을 다시 음미해 본다。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48>

朴婉緒 作 金光培 畵

숨바꼭질 ㊺

유원장의 예상은 들어맞았다。

열살 때의 일이었지만 그여러모로 이유(離乳)와 흡사했다。까무러칠듯이 보채며 집착하던 고비를 넘기자 언제 그랬더냐싶게 그것을 잊고 지내는 것같았다。그것을 훔쳤던 친구와의 사이도 아무일 없었던 것처럼 예전 같은 사이로 돌아갔다。

그 광기나 가시거던 돌려주리라고 마음먹고있던 유원장도 막상 그렇게 되니 새삼스럽게 그것을 돌려주는걸 열적게 여기다가 차츰 그 사건과 그 물건에 대해 아주 잊어버리게 되었다。

실상 그 물건은 값 나가는 물건이 아니었기때문에 어른이 오래 기억할만한게 못됐다。한때 그런법석을 치던 물건이건만 이삿짐 한귀퉁이에도 못낀 것만 봐도 그 보잘것 없음을 알수 있었다。

창밖으로 연기가 가벼운 옷자락처럼 너울대며 지나갔다。

일환이의 기침소리가 들렸다。부엌에서 들려오는 모양이었다。무언가 우지끈 분지르는 소리와함께 기침소리가 도움을 청하는 것처럼 발작적이었다。

그러나 목이는 그자리에서 꼼짝도 안했다。그녀에겐 방금 부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보다는 옛날 적에 있었던 일이 훨씬 가깝게 느껴졌다。

목이의 주머니속엔 작은 은노리개가 꼭 쥐어져있었다。그녀는 그게 주머니속에서 청홍의 눈을 뜨고 살아있는 것처럼 느꼈다。그것은 분명히 살아나고 있었다。그것은 이해할수없는 그리움과 비밀스러움이었다。

부엌쪽의 연기가 누더기처럼 타래지면서 출렁이 마당을 기다가 가까스로 떠올라 빨래줄을 전모리고 마당에 자욱해졌다。

길고 긴 빨래줄도 그냥 남아있었다。매일매일 얼마나 많은 누더기가 그 위에 널렸던가。겨울날 계곡의 찬물에 빨래를 헹구면서 얼마나 간절히 장밭장이 섬뜩 뒤로 다가와 그곳으로부터 자신을 구해주기를 바랐던가。

아아、목이는 작은 소리로 신음했다。그 작은소리엔 그녀의 오랜꿈과 소망과 설깔이 극도로 압축되어있었다。

『목아、다 됐어。먹자』

부엌에서 일환이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목이는 흠칫 놀라면서 주머니의 것을 펴보았다。마침내 돌아왔구나。

그것을 훔친 아이의 팔뚝을 물어뜯을때의 잔혹한 쾌감이 생생하게 이 뿌리를 근지럽혔다。목이는 부르르 진저리를 쳤다。

『목아、어딨냐? 어서 나와、라면 불으면 맛없어』

목이는 노리개를 서둘러 속 주머니 깊이 간직했다。

흘리고 거만하게 소리쳤다。

『나 안방에 있어。안방으로 가져올래? 부엌에서 먹기 싫어』

이윽고 일환이가 널빤지쪽에 라면 두 그릇을 받쳐들고 들어왔다。

『넌 어쩌면 그렇게 꼼짝도 안하고 나만 부려먹니。생각했던 것보다는 너 얌체로구나』

『그까짓 라면도 오빤 혼자 못끓여?』

『누가 혼자 못끓인댔어? 혼자 끓여 먹는 게 지긋지긋해서 그런다。옆에서 거드는 척이라도 하면 얼마나 재미있냐?』

일환이가 씩 웃었다。콧구멍에 그을음이 많아 연통속처럼 시커멨다。뻐드렁니가 눈에 거슬려 코엔 신경도 안 썼었는데 이제보니 천격스럽게 생긴 들창코였다。

朴永復 또詐欺 再收監

5개유령會社차려 再起노려

23차례 3억7천 不正貸出

內緣의 처등 一黨8명검거

病院住居제한 이탈로 刑執行정지 취소

우리나라 금융사상 최대의 거액부정대출사건으로 세상을 놀라게했던 朴永復씨(46·전金鹿통상대표)가 형집행정지로출소,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또다시 유령·부실회사를만들어 각종 대출서류를 위조, 모두 3억7천여만원을 사기로 부정대출 받은사실이 검찰에 의해적발됐다。

서울지검은 26일 이같은사기숫법으로 재기를 노린 朴씨를 비롯, 뇌물을받고 거액의 부정어음 할인을하도록도와준 신용보증기금 大邱지점장 成基彦씨(47·大邱市中區東仁洞3街1005의3)、朴씨의 내연의처 李順德씨(51·여·서울鍾路區苑南洞189의1 학산요정주인)등 일당8명을 검거, 이중 지점장成씨등 7명을 사기등혐의로 구속기소하고 1명을불구속기소하는 한편 관련자5명을 전국에 지명수배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지난78년 1월18일간염、당뇨증등의 사유로 형집행 정지결정을받아 서울대학병원(9503호실)으로 주거를제한, 입원치료를 받아오던 朴씨를4년만인 지난11일 주거지이탈, 건강회복등의 사유를들어 형집행정지결정을 취소, 서울구치소에 재수감했다。

검찰에 따르면 朴씨는 형집행정지기간중인 80년12월29일부터 작년10월21일까지 자신이 입원중이던 서울대학병원등지에서과거의사업동료및 측근자들의 명의로 亞豐물산·유현·나호·二朝산업등 5개의 부실또는 유령회사를 인수하거나 설립했다。

朴씨는 李永國이란 가명으로 亞豐산업회장으로 행세하면서 이들 5개부실회사가모두 신용과 거래실적이 양호한 정상업체인것처럼 위장하여 모두23차례에 걸쳐 금융기관으로부터 3억7천20만원을 부정대출받도록 배후에서 조종, 대출금을 가로챈혐의를 받고있다。

검찰수사에 의하면 朴씨는 80년7월께 신용보증기금 大邱지점장 成씨에게 4차례에 걸쳐 4백만원을 사례금으로 준뒤 신용보증서를 발급케해 그해12월29일부터 81년7월11일까지 모두 21회에걸쳐부실담보를 제공하고 유령회사인 亞豐산업등 5개회사명의로 大邱투자금융등 大邱시내 8개 단자회사에서 2억1천만원을 부정대출받게 했다는것。

朴씨는 또 작년 6월22일부터 10월21일까지 서울신탁은행 종로4街지점과 동대문지점등에 사채시장에서 끌어모은 6억원을 예금시킨뒤 신용이있는것처럼 꾸미고 자신의 가명인 李永國등의 명의로 5회에걸쳐 6천20만원을 대부받는 한편 작년10월16일께는 은행담보를 희망하는 李憲永씨(58·서울 城北區 石串洞323의3)에게 부동산담보를 제공해주면 은행대출을 받아주고 그 반액을 사용하고 이자를 매월 내겠다고 속여 李씨소유의 5층건물(대지2백23평·건평 5백평)을 신탁은행 동대문지점에 담보로 제공케하고 대출금중 1억원을 가로챘다는 것이다。

朴씨와 내연의 처 李씨는 위조한 공문서와 인장으로 신탁은행동대문지점에서1천만원을 부정대출받은 혐의이고 인장업을하는 鄭基成씨(63·서울中區藝舘洞)는 朴씨의 부탁을받고 인감증명서 위조에 필요한 「한남제2동장인」과 「한남제2동」 「용산구 한남2동」이란 소인등 3가지 인장과 기호를 새겨준 혐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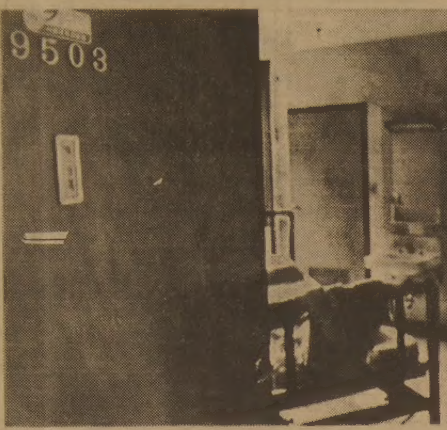
구속된 다른사람들은 5개유령회사의 간부이거나 자신의 인감증명서를 朴씨가 위조하도록 도와준 혐의다。

朴씨는 지난74년2월 기소돼 75년11월25일 서울고법에서 징역10년형이 확정돼 복역중 76년5월22일 검찰이 朴씨의 지병을 이유로 첫번째 형집행정지를 결정, 서울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朴씨는 그뒤 주거가 제한된 병원에서 자주 이탈하는 사례가 적발돼 형집행정지가 취소돼 재수감됐다가 78년1월28일 병이 다시도져 형집행정지결정으로 두번째로 출소돼 지난11일 3번째 수감되기까지 서울대학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朴씨외에 구속기소된 7명의 명단은 다음과같다。

▲成基彦(47·신용보증기금 大邱지점장) ▲李順德(51·여·朴씨의 내연의처) ▲申東焙(46·목산물산대표·서울中區乙支路4街293의1) ▲曺章年(39·朴씨운전사·서울龍山區漢南洞726의154) ▲洪性鐸(39·목산물산이사·서울龍山區漢南洞726의155) ▲鄭基成(63·인장업·서울龍山區二村洞시민아파트·1동409호) ▲金斗纘(48·亞豐물산대표이사·仁川市南區朱安3洞138의6)



◇말뿐인 住居제한 入院중에도 나들이　朴永復씨가 형집행정지로 구치소에서 나와 신병치료를 위해 입원했던 서울대학병원 9층 503호실。문밖에 걸려있는 다른 환자의 명패 뒷면에는 아직도 「박영복」이라고쓴 이름이 적혀있었다。

4년 入院費 3千3百萬원
요정 鶴山중심 事業총지휘

入院중의 朴永復

朴永復씨는 지난78년1월23일 서울대학병원 9층503호실에입원、지난15일 퇴원했다。

朴씨의 입원비는 모두 3천3백1만2천10원으로 검찰에 연행되기전 8백60만원을 지불했고 1천백여만원이아직 남아있다。

장기입원의경우 입원비는 매월말에 결산하게돼있는데 朴씨는 입원비지불을 미루어 49개월간 입원하면서 15∼16차례에걸쳐 지불했는데 한번에 8백만원에서 1천만원씩을냈다。

서울대학병원의 경우 하루수입이 7천∼8천여만원인데 朴씨가 1천여만원을한꺼번에 납입한날은 수입이 1억원이 넘는날도 있었다는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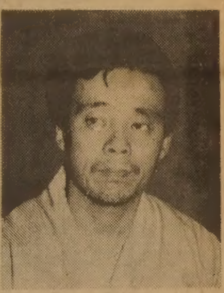
朴씨가 입원했던 9층간호원에의하면 항상 보디가드가 상주하다시피했으며 문병객들은 대부분이 남자들로안쪽에 있는 간호원실을 거치지않고 들어갔다가 나오곤했다는것。

朴씨는 입원중에도 이번에 같이 구속된 내연의처 李順德씨(51·여)가 경영하는 요정鶴山(서울鍾路區苑南洞89의1)에 자주들러 응접실에서 자신이차린유령·부실회사의 직원들을 불러 사업지시를 하기도했다。

요정鶴山은 3층양옥으로 방이 8개다。

李씨는 朴씨가 78년12월19일 유흥음식점 1종허가를 얻어 79년2월13일 병원에서 불과 5백여m 떨어진곳에 개업, 朴씨와 자주만났다。

李씨는 81년7월11일 사단법인 대한불교에서 大智行이란 법명을 얻었으며 80년에는 삼각산 신보사관음대법회 총무로 임명되기도했다。



◇재수감된 朴永復씨

「사기天才」에 세상또 깜짝

—朴永復은어떤 人物인가

信用保證書빼내 어음할인
74년엔 74億부정貸出…銀行長파면도
변조印鑑에 은행도놀아나

朴永復씨(46)는 이번부정대출사건에서도 사기의 천재성을 그대로 입증했다。

수사기관의 관찰이 소홀했지만 형집행정지로 서울大병원으로 주거를 제한받고있었으면서 교묘히 조종、유령회사를 설립해놓고 또다시 수천만원을 부정대출을 취한 그대담성에는 놀라지 않을수없다。

지난74년 첫번째 사건당시의 숫법이 인감을 변조하거나 가짜를 사용한 것이었는데 이번에도 역시 공문서를 위조하거나 부실담보물을 사용한것、유령회사를 설립한것도 과거와 똑같았다。

74년당시엔 부정대출에 관련된 업체가18개업체이고 대출총액이 74억원에 달했으며 관련은행장 1명이 구속되고 1명이 경질되는등 금융사상 유례없는 후유증을 남겼었다。

그당시 朴씨가 주로 사용한 신용장 변조숫법은 당시과잉보호를 받고있던 수출금융지원제도에 헛점이 있었기때문에 가능했다。

경북軍威가 고향인 朴씨는 大邱에서 D고교를 마친뒤 해양대학을 졸업하고 1년간 선원생활을 하기도했다。

그후 무허가벌목으로 약간의 돈을 모은뒤 68년 타고난 사기성을 처음으로 첫발휘、大邱市南區大明2洞 임야4만2천평을 헐값에 사들여 한국감정원에는 다른땅을 이땅이라 속여 1억4천여만원으로 감정받은후 이감정서사본을 당시 아진흥업대표 高모씨에게 1억원을 받고 은행담보물로 빌려줬던것。

朴씨의 이번 거액부정대출사건이 첫번째 사건때와 다른점이 있다면 이번에는 권력층을 끼지않고 철저하게 자신의 잔꾀로 현행 금융제도의 헛점을 교묘하게 이용했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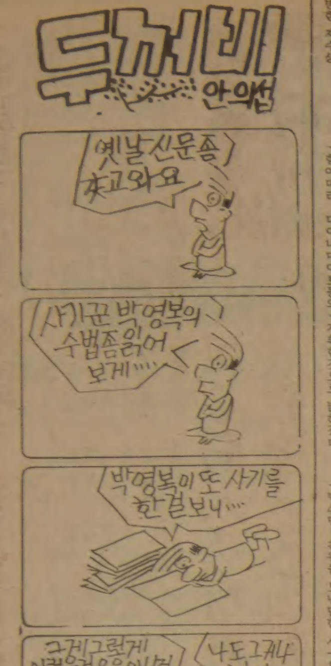
지점장이 뇌물을 받고 발급해 줬다고는하나 朴의 하수인 金正洙씨(渡美중)가 신용보증기금 大邱지점에서 쉽게 신용보증서를 21장씩이나 신용보증대상회사에 대한 신용보증측의 확인업무가 소홀했다는 사실은 변명할 여지가 없다。

또 변조된 인감증명에 속아 유령회사에 수천만원씩 신용대출해준 서울신탁은행 鍾路4街지점과 東大門지점등 금융기관도 지나치게 대출실적에만 신경을 쓰고 대상회사의 자산파악이나 신용조사에 소홀했던 책임도 묻지않을 수 없다。

집행정지로 나와 서울大병원으로 주거가 제한돼있었는데도 쉽게 빠져나가 일을 꾸미거나 측근들을 불러들여 사기극을 지시했고 지난해10월21일이후에는 아예 자취를 감춰버렸다는 점을 볼때 수사기관의 형집행정지자에 대한 관찰규정 준수여부가 문제점으로 부각되고있다。

朴씨는 처음 서울고법에서 형이 확정돼 복역중 간염과 중증당뇨증세로 형집행정지결정을받아 풀려났을때도 주거가 제한됐던 서울大병원을 빠져나간것이 발각돼 재수감된적이 있는 요주의인물이었다。

게다가 朴씨는 처음수감됐을때 신병이 있었던것도 사실이지만 증세가 더욱 심하게보여 출소、형집행정지를 받기위해 노랑색 황달약을 몸에발랐을정도로 집념이강한 인물이었다。【崔鑫植기자】



犯人은 올大入落榜生

韓一銀폭발사건
日記帳엔 "성공하면 분산預金"
指紋조회로 身元밝혀져

한일은행본점 은행장 비서실폭발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은 27일하오 범인이 洪福基씨(24·무직·서울江西區木洞128의24)임을 밝혀냈다。

경찰은 현장에서 채취한 범인의 오른쪽 손가락5개의 지문을 근거로 감식결과 신원을 밝혀내는데 성공한 것이다。

洪씨는 고교졸업후 군에 입대했다가 금년에 제대한뒤 서울C대학입시에 응시했다 낙방한 재수생。

한편 사건현장에서 수거한 10여개의 파편을 경찰이감정한결과 폭발물은 사제다이너마이트로 밝혀졌다。

경찰은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릴때는 도화선을 점화시켜 폭발시키는 방법이있으나 범인은 사건당시 폭발물에 불을 붙이지않은것으로 미루어 다이너마이트에 특수전지를 연결, 방전을 일으켜 폭발시킨 것으로 보고있다。

한편 경찰은 범인이 폭사함에따라 다이너마이트등의 출처수사에 진전을 보지못하고있다。

경찰은 신원을 밝혀낸후 洪의 집에서 『은행에서 돈을 뺏으면 헛간에 묻어놓고 1천만원씩 여러은행에분산예금, 천천히 찾아서 쓰겠다』고 쓴 일기를 발견, 돈을노린 범행이라고 결론지었다。

洪씨는 대학입시에서 낙방한뒤 이를 비관해오다 『돈이나 실컷 써보자』는 생각으로 지난1월26일부터 범행을 계획한것으로 밝혀졌다。

洪씨는 일기와 메모에서 범행에 성공하면 시중각은행에 예금한뒤 예금통장을 땅에묻겠다』고 써놓았다。

부모가 생존해있는 洪씨는 2남2녀중 차남으로 지난69년3월 서울D국민학교를 졸업 73년 C중학을, 76년 Y고교를 졸업한뒤 77년6월서울麻浦區大興洞에 있는 중앙컴퓨터학원에서 6개월코스를 수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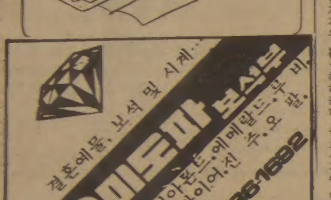
경찰은 洪의 일기와 메모등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우편행낭現金 또 도난당해
金庫 보관중 4백40여만원

【浦項=聯】 경북迎日郡杞溪面縣內洞 杞溪우체국 금고에 넣어둔 송금행낭에서 현금 4백40만9천원을 도난당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24일상오8시30분께 환금계직원 崔홍식씨(36)가 浦項우체국으로 송금하기위해 금고문을 열어보니 송금행낭봉인의 끝이 칼로 찢겨진채 5만원권 자기앞수표 2장만 남아있을뿐 현금은 모두 없어졌다는 것이다。

경찰은 내부사정을 잘아는 자들의 소행으로 보고 이날 숙직근무자 李모씨(38)등 2명과 직원들을 상대로 수사를 펴고있다。



北傀흉계에 치떨려

全대통령 危害음모사건 市民반응

재외동포가 북괴의 사주를 받아 외국인 테러리스트를 끌어들여 全斗煥 대통령을 위해하려던 음모사건이 발표되자 국민들은 「제2의 文世光의사건」이라며 북괴의 악랄한행태에 분노를 금치못하고있다。

시민들은 우리정부가 그동안 수차에걸쳐 평화통일을위한 대화를 제의했지만 이를외면해온 북괴가 또다시 엄청난흉계를 꾸며온 간악한행동에대해 새삼경악하고 경계를 늦추지말아야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국내에서 지도급인사로 행세해온자들이 변신, 북괴의 앞잡이가되어 추태를부리는것은 정말 부끄럽고 통탄할일이라고 입을 모았다。

▲金斗鉉씨(56·대한변호사협회회장)=북괴가 한편으로는 평화의미소를 지으면서 또한편으로는 남침야욕을 버리지못하여온것을 잘아는 우리국민이지만 새삼 놀랍고분노를 금치못할 일이다。

동족사이에 벌어지는 망신스런 추태가 국제적으로알려진데다가 국제적인 범죄단●와 관련된 崔모란는 해외교포가 가담하고있다는 것은 민족적 양심에서 참을 수 없는일이다。

북괴는 우리가 제시한 평화통일방안으로 피할수없는 궁지에 몰리자 실현가능성도 없는 생떼를 부리면서 우리 재외동포를 회유하고있는 이유를세계는똑똑히 들여다 볼수 있을것이다。

사전에 발각되어 아무일이 없었음이 천만다행이다。 음모가 있었던 캐나다정부는 철저한 사건규명을 기대한다。

▲鄭秉俊씨(32·회사원·경기富川市遠美洞)=북괴의 간악한 실체를 다시 확인시켜준 음모다。 우리정부가 그동안 여러차례에 걸쳐 북괴에 대해 평화를위한 대화를 제의해 온것에 대해서는 침묵과 거부를 일관해 오면서 한편으로 엄청난 흉계를 꾸미고 있었다는 것이 놀라울뿐이다。 더구나 북괴가 돌지각한 반정부해외교포와 외국인 범죄꾼들을 이용, 외국에서 우리국가원수를 해치려 한것은 북괴가 최소한의 민족적 긍지조차 저버린 범죄집단임을 드러낸 것으로 가증스럽기 짝이 없는 일이다。

▲姜儀業씨(40·상업·서울동작구노량진1동)=지난74년에 文世光사건의 악몽이 사라지기도전에 또 같은일이 일어날뻔 했다니 아찔하기만 하다。

특히 대를 이어가며 해외에나가 반한활동을하던 사람들이 급기야는 북괴의 사주를받아 국가원수까지 해칠 음모를 꾸몄다니 그들을 동족이라고 부를수없을것이다。

▲朴龍姬씨(49·주부·서울龍山區厚岩洞 미주아파트)=충격적인일이다。 외국에나가있는 동포가 북한을넘나들며 외국인들을 사주、국가원수에 위해를 가하려했다는점에 놀랍고 무서울뿐이다。 앞으로 정부는 이같은 재외반한인사들에 대한 대책을강구해야겠고 우리나라가처한 실상을 소상히 이해시키는 노력을 기울여야할것이다。

▲白基鎬씨(32·은행원)=이번사건으로 북괴는 그들의 모함과 악랄성을 드러냈을뿐 아무효과가 없는것으로 생각한다。 나이지리아에서 초대통령을 초청했다는데 이같은 위해음모가 또 없는지 면밀히 사전점검해야할것이다。

▲金昌鎬씨(45·서울道峰區上溪1洞)=휴전이후 한시도 쉬지않고 남침을 기도해온 북괴가 이번에는 해외교포를 사주해 국가원수를 해치려는 음모를 꾸몄다는 보도를듣고 다시한번 북괴의잔인성을 분명히 알았다。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가리지않는 북괴의 온갖흉계에대해 철저한 대비를해야겠다。

▲張英子씨(40·주부·서울江南區개나리아파트)=8·15저격사건의 끔찍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북괴가 또다시 全대통령위해음모사건을 꾸몄다는 뉴스를듣고

黃金連休 맑고포근

觀光客장사진 호텔 동나

28일은 3·1절과 겹치는 황금연휴。 전국의 고속버스터미널과 역은 27일 하오부터 명산과 온천을 찾아 나서는 관광객들로 장사진을 이뤘다。

설악산과 내장산등지의 각 관광호텔은 이미 20일전에예약이 완료。

중앙기상대는 연휴기간중 전국이 맑거나 약간 구름이 끼겠으며 기온은 최저 영하4도에서 최고 영상11도로 이른봄 나들이에 좋은 날씨가 될것이라고 예보했다。

漢陽大·外大졸업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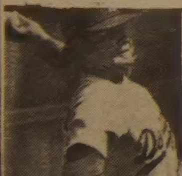
▲漢陽大는 27일 상오11시 노천극장에서 학위수여식을 갖고 박사19명, 석사2백18명, 학사2천3백36명을배출했다。

李炳熙총장은 이날 치사에서 『대학을 나서는 것이 곧 사회지도자가 되는것이 아니다』고 강조하고 『이상과 현실에는 항상 거리가있는만큼 한 노력을 꾸준히 해줄것을 당부했다。

▲外國語大學도 27일 하오2시 본교운동장에서 학위수여식을거행하고 박사2명, 석사54명, 학사8백14명을 배출했다。

서울大3교수 停年

서울大는 27일상오11시 본부제1회의실에서 權彝赫총장을 비롯, 교직원 1백여명이 참석한가운데 인문대 許亨根(독문학) 농대 白雲夏(농생물학) 음대 張師勛교수(국악)등 교수3명의 정년퇴임식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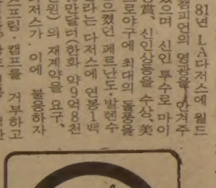


발렌수엘라 年俸 10억원요구

81년 LA다저스에 월드·챔피언의 영광을 안겨주었으며 신인투수로 마이영賞, 신인상등을 수상, 美프로야구에 최대의 돌풍을 일으켰던 페르난도·발렌수엘라는 다저스에 연봉1백40만달러(한화 약9억8천만원)의 재계약을 요구、다저스가 이에 불응하자 스프링·캠프를 거부하고 나섰다。

당초 연봉 1백만달러를 요구, 35만달러를 제시한 다저스와 평행선을 긋던 발렌수엘라는 플로리다의 스프링·캠프 베로·비치로 향하는 다저스전용기가 떠난 다음날 LA·타임즈지와의 인터뷰에서 『연봉1백40만달러를 줄때까지 다저스훈련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했다。

다저스의 오말리구단주는 『지난해 그의 공적은 인정한다。 그러나 2년경력선수에게는 35만달러만해도 사상최고의 연봉』이라고 맞서고 있다。【外紙에서】



한국인 유일한
에코시 가구점
● 최고품질의 차원 높은 가구
● 친절봉사, 에프터 써비스
● 특별염가

2300 YONGE ST.
(영×에그린톤 센타)
486-0397 김 만 구

아직도 <한국일보>를 구독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한국일보>는 캐나다 교포사회에서의 유일한 일간지이며, 우리 이민생활의 반려자입니다.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며, 교민사회의 거울로 언제나 그리운 고향소식을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이민생활의 각종 정보와 함께 교민 여러분께 제공해 드립니다.
한국일보는 잠시도 휴식없이 활동을 계속하고 있읍니다
한국일보 토론토사 (416) 533—2361
구독료 : 월9달러, 6개월 50달러, 년99달러
■보내실곳: THE KOREA TIMES
1025 DUPONT ST.　TORONTO ONT. M6H 1Z7

구독 신청서
한국일보
NAME ....
ADDRESS .... APT
CITY .... PROVINCE ....
POSTAL CODE □□□ □□□　PHONE ....

안녕하십니까
한국일보
몬트리얼 지국장 입니다.
기사·광고·구독등 신문사 관계사항 일체에 관해 도움 드립니다.
정 관 성
(514)672—8399(R)
(514)845—7151 EXT.343(B)
THESE TIMES NEEDS
THE KOREA TIMES

LISBON AUTO COLLISION INC.
●토잉써비스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RUST PROOFING
B)533－8507 533－8508
R)439－ 6548
이영두, 이건하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캐나다 외환은행
☎ : 364 : 2890
2 First Canadian Place Suit 1140
(KING × YORK)

자동차수리

CENTRAL AUTO SERVICE 길 창 세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532－3946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라지에타 개스탱크 · 히터 · 워터펌프 수리
CITY WIDE RADIATOR CO.
☎ : (B) 245 1978; (R) 248－6032 김 용 환

FRED DOMINELLI BP SERVICE
PICK UP & DELIVERY
873 QUEEN ST. W. ☎ : 366－2673, 366－2206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번 달 원
☎ : 651－9324(B), 226－5430)R)

자동차 출장수리(오전및 주말) MR. 박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 : 749－9749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 (BLOOR & 키플링)
☎ : B) 231－6951, R) 742－5408 오 세 호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 595 KEELE ST. TOR. ☎ : 762－3247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두꺼운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 :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FIRST AUTO SERVICE
●메카닉샵 : 튠업, 브레이크, 전기부분
●오토바디 : 토잉써비스, 사고차량 일체수리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호
☎ : (B) 532 0200, (R) 533－2157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TLAND ST. ETOBICOKE
☎ : 255－2111(B), 828－5001(R) 전기덕

꽃 집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각종 어랜지먼트 & 각종플랜트 ●각처주문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 : 751－5851(B), 757－6711(R) 이 동 환

정 손 꽃 집 MARKLANDWOOD PLAZA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 622－8516(B), 279－5719(R) 허소피아

제인·파크 꽃집 (JANE PARK PLAZA 안)
•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주문, 배달함.
875 JANE ST. TOR. ☎ : B)769－0609 R)262－5194(여정용)

꽃 집 크로스웨이(구 클레어리)
2340 DUNDAS ST. W.
(B) 535－1355, (R) 757－0905 남파 김

자동차 매매

North York Chev. 김 병 권
7200 Yonge St. Thornhill
☎ : 881－5000

Marvin Starr
3132 Eglinton Av. E. Scarboro
☎ : 264－2311 조 의 문

Grant Brown
1575 Weston Rd.
☎ : 247－7161 이 한 구

광고료 · 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소 독

ZAP SUREKILLER ☎ : 368－9018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장 의 사

장 의 사 (R. S. Kane Funeral Directors)
모든 장의관계 일체 취급
4812 Yonge St. E. (세파드 써브웨이) ☎ : 221－1159

이삿짐및 운송

각종 운반및 이사짐, 피아노, 쿨러
☎ : 630－6602
나 라 운 수

카펫 · 카텐

M & M 카 펫
카펫, 리노리움, 비닐, 세라믹타일, 벽지, 인서레이션, 무료견적봉사
☎ : 536－7875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펫·브라인드
2390 LAKESHORE BLVD. W.
☎ : (B)252－4857 (R)252－6602 유원덕

카펫 크리닝 : 카펫 · 소파 · 쉐어 · 자동차시트
☎ : 439－6277 박 최신 스팀삼푸 크리닝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 : 751－9236, 757－2106 홍진표

SIGN & GRAPHIC,
건축설계상담시공
바우종합광고회사 637A BLOOR ST. W.
☎ : 535－0647, 465－1722 송 판 현

보 험

Sun Life (윤 호 영) ☎922－3111

Sun Life (백 용 빈) ☎497－3800

Sun Life (김 신 명) ☎922－3111

Canada Life (강 학 수) ☎868－0922

조 규 혁 종합보험 ☎233－6236

김 종 조 종합보험 ☎537－7200

임페리알 Life (김 홍 량) ☎482－0166

불 교

선 련 사 ☎ : 532－3491
46 Gwynne Ave.

불 광 사 ☎ : 223－9152
288 Hownslow Ave.

대 각 사 ☎ : 463－8998
11 Dawson Ave. Tor. Ont.

선물 센타

거 북 이
617 Bloor St. W. ☎535－2143

미 도 파
454 Bloor St. W. ☎536－1692

Big Seven
678 Bloor St. W. ☎530－0523

Mr. 오 선물센타
100 City Centre Dr. Square One
Shopping Mall, Miss. ☎ : 275－2187

건축 · 설계

K C ENGINEERING INC
☎ : (416) 624－4319
COMPLETE BUILDING DESIGN & PROJECT MANAGEMENT
건축설계, 공사감독
공사견적, K. C CHUNG P. ENG
STRUCTURAL ENGINEER

신용조합

한 인 신 용 조 합
641A Bloor St. W. (2nd Fl.) Tor. Ont. M6G 1L1
☎ : 533－9387

천주교회 신용조합
941 DUNDAS ST. W. TOR. ONT. M6J 1W4
☎ : 363－0097

회계사무소

김인규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501 YONGE ST. #207, TOR.
☎ : 960－5736(B), 844－0178(R)

이 경 복 회계사무소
INCOME TAX & BOOKKEEPING ☎ : 766－5639
COMPUTER SYSTEM. 3416 DUNDAS ST. W. SUIT. 206

공인회계사 이 명 세
사무실 : 1454 DUNDAS ST. E. SUITE 110
☎ : 278－7300 MISSISS.

YOUNG C. LEE M. B. A. R. I. A. "METRO WIDE" ACCOUNTING & TAX SERVICES
●8년간의 캐나다 회계및 세금조정, 현 CA Office근무중
●BOOK KEEPING & ACCOUNTING
●MANAGEMENT CONSULTING 이 영 철
●INCOME TAX PREPARATION ☎ : 239－6802

Chung's Accounting 정 필 주
* Tax Return, Planning
전 C. A. Firm Accountant ☎ : 661－1819

태 권 도

박종수 태권도장 사범 : 박종수
719 YONGE ST. ☎ : 961－7100

임송학 태권도장 :
1963 WESTON RD. (1층)
☎ : 247－7577(웨스톤×로렌스)로브로 앞

손명수 태권,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 : 763－1155

학 교

씨알한국인학교 (교장 유희자)
☎960－0074

Y 어린이 학교 (김창열)
☎536－1166

미시사가 한글학교
☎822－6438

샛별한글학교 (스카브로)
☎267－2292

쇼햄한글학교
☎663－1178

김용순 무용연구소
☎924－3905

김미영 한국민속무용연구소
☎ : 499－5079

스 포 츠

브랜든 운동구점 (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취급
337 BLOOR ST. W. ☎ : 598－3732 이 건 영

MUNAMI TROPHY & SPORT
•각종트로피및 상패 50% OFF
•GOLF PRO SHOP
영업시간 : 월～금 10AM－8PM, 토요일 10AM－6PM
880 Ellesmere Rd. Scarboro. ☎ : 298－3584

약 국

돈 밀 약 국
☎ : 429－4117
이 요 한

SUPER × DRUGS
☎ : 368－2746
조 남 오

번역및통역

번역 통역 CHARLES YU(유좌석)
10 SUNRISE AVE. UNIT203 TOR.
M4A 2R1 ☎ : 759－9505(5시이후)
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각종서류 번역및 법정통역.
정부기관 통역등 해드림.
☎281－1677 이영화(전 대학강사)

한 방 원

침 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내장질환)
진료시간 : 매일10AM～8PM ☎ : 922－7090
700Ontario St. #517(St. Jamestown)박영숙

동 양 한 약 상 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Hydrotherapy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 병 섭 M.C.I.C. R.M.
* Downtown Office : (416)537－6685 8AM～6 : 30PM
621A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 Willowdale Office :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 에서 Bayview거의다가 서임)
VISA 또는 MASTER CHARGE는 CASH이상 환영.

안 강 용 한 약 건 재 상
중국한의사 4명으로 정확한 진찰, 신속한 효과
●진품웅담●녹용●우황청심환●사향●경면주사
●특수한약 처방및 침술에 의한 한방치료
●보제첩약및 각종병에 대한 처방약
6일영업 아침10시～저녁8시 (수요일 휴업).
차이나타운내(465 DUNDAS W.)
☎ : 363－3883, 363－2088 최 호 권

하르빈 한약상사
* 20년간 한의사 경험(중국의사 자격증 소유)
* 20년간 하르빈한의 대학교수
* 정확한 진단과 처방
* 한약으로 암환자를 치료
* 중국 본토에서 한약 직수입
(사향. 경면. 주사. 우황. 진주. 웅담. 인삼. 녹용등)
643A BLOOR ST. W (신용조합옆)
서 춘 봉

신비의 생 약 "알로베라" 판매 정 효 기
가정 상비약으로 필수
4020 Dundas St. W. ☎ : 248－1362(R), 769－4347(B)

인 쇄

윌슨인쇄소 ☎ : 638－6919 임 윤 식
904 Wilson Ave. Downsview, Ont. M3K 1E7

TOP PRINTING CO. LTD.
각종인쇄 염가봉사, 최신의 장비및 기술
96 REXDALE BLVD. 746－0675

비둘기사진식자인쇄소 •주보 •명함 •청첩장 •책자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493－8894, 윤 중 대

스피디인쇄소 ☎ : 535－3520 곽 호 중
619 Bloor St. W.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주소록 출판, 도서출판, 기업광고 포스터및 플라이어, 명함, 봉투, 인보이스, 주문서등 인쇄 및 디자인.
고급 4색인쇄, 정밀인쇄, 고급창정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 : (B)789－7351, 789－7352
대표 이인용

LEE'S 프린팅 최고의 품질 저렴한 가격
2157A WESTON RD. WESTON. ☎ : 244－2301

미 용

킴 스 미 용 실 (코리아하우스 뒤)
☎ : 532－7094(B), 248－2437(R)

헬 렌 미 용 실 김 조 자
377 Albion Rd. 한국식품 서부지점에서 동쪽에 위치
☎ : 741－7829

소 니 아 미 용 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 옆) (B) 759－8854, (R) 755－2759 미세스 허

스 타 미 용 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 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 741－4410, (R) 742－0827

로 마 노 미 용 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 : 248－2957(B) 247－6875(R)

시계·귀금속 수리

M & J Jewellery Repair
1530 Albion Rd. Rexdale(Kipling × Albion)
☎ : 742－1205(B), 745－1632(R) Mr. 마

流星의 賦

<320>

李炳注 作
李友範 畵

虛實의 時間 ⑰

수길이 최종적으로 진격명령을 내린 것은 3월23일이다。그런데 이 모든 사실을 조선은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다。

정월에 안성으로 돌아온 홍계남은 마침 농한기(農閑期)이기도 한지라 인근 마을의 장정들을 불러 모아 군사훈련을 시켰다。이 훈련은 뚜렷한 목적과 일정한 방침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춥다고 해서 겨울 동안 방구석에 앉아 씨알머리없는 얘기나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건장한 체구를 늘려 단련하는 한편 다소의 무기(武技)라도 익혀두는 것이 재미도 있고 유익할 것이다』

하는 정도로서 시작한 것이다。

계남은 먼저 투석술(投石術)부터 가르쳤다。길이 한발쯤 되는 죽간(竹竿)끝에 짚으로 엮어 작은 표주박 모양의 것을 달아 거기에 조약돌을 담아선 목표물을 향해 던지는 기술이다。

다음은 높이뛰기를 가르쳤다。높이뛰기는 담장을 짚고 뛰는 방법、장대를 이용해서 뛰는 방법등 갖가지가 있었다。계남은 특히 높이뛰기엔 남의 추수를 불허하는 기량을 가지고 있는지라 향리 사람들이 모두 감탄했다。

대를 휘어서 만든 활을 이용하여 궁술의 초보를 가르치기도 하고、몽둥이를 깎아 봉술(棒術)을 가르치기도 했다。

나아가서는 팔진도(八陣圖)에 따라 집단전투의 흉내를 내기도 했다。그런데 계남이 가장 유감스럽게 여긴 것은 검술과 창술을 가르칠 수 없는 사정이었다。당시 칼과 창을 민간인이 연습하는 것은 불온하다하여 금기하고 있었던 것이다。

계남으로부터 무술과 무기를 배운다는 것은 계남의 기량을 구경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해서 인근의 아이들이 많이 모여들었는데、계남의 이러한 노력을 냉대(冷待)한 것은 그의 일가 친척이었다。계남의 훈련을 받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래라」「저래라」하는 구령(口令)과 명령(命令)을 들어야 하는데 서출(庶出)인 계남으로부터 그런 말을 듣는 것이 부당하다고해서 꺼려했다。

그래도 정처소산(正妻所産)의 아우 세([illegible])와 전(電)과 뇌(雷)는 계남을 따라 무예훈련에 끼이고 했었는데 어느날 그들의 모친인 청주한씨(淸州韓氏)는 「천생(賤生)의 구령에 따라 이리가고 저리가고한 것이 뭐냐」고 심히 꾸짖어 계남과의 합석을 금하는 동시 계남에겐

『네가 왜방(倭邦)까지 가서 무슨짓을 했는진 알바가 아니다。그러나 집안에선 내분수를 지켜야 할것이니라』

하고 따끔한 침을 놓았다。

아우인 제는

『어머니、어디서 낳았건 형님은 형님이 아닙니까。보다도 그 인품과 기량이 우리의 형으로 모시기가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하고 간원했으나 청주한씨는 듣지 않고 호통이었다。

『고래로 예(禮)가 있느니라。사람이 잘나고 못나고에 어부가 있는 것이 아니다。예에 어긋난 출생이면 천생이다。천생을 어떻게 천생이 아니게 대접할 수 있느냐。집안의 흥쇠는 가풍을 잘 지키는가 안지키는가에 있다。나를 계남을 잘 대접한 생각이 없는건 아니다。근래 머리가 너무 커서 너희들을 누르려는 눈치가 보이는구나』

조 규 혁
종 합 보 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상점보험
●생명보험
233－6236
745－8236

아세아 한약방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물리치료. 부인병
신경통 각종보약.
678 BLOOR ST. W.
☎ : 530-0522(B)
531-4165(R)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스피디 인쇄소
SPEEDY PRINTING
각종 인쇄물, 책자, 청첩장, 봉투, 편지지, 명함, 주보, 광고 팜플렌.
619 Bloor St. W.
☎ : 535-3520, 630-8491

구 인

테크닉 사원 모집
하드 웨어에서 2년이상 경험있으신분 구함
▪급료 우대함 ▪Permanent Job.
관심있으신분 내방바람.
608 Bloor St. W. (Bloor×Bathurst Hardware Co.)

Kim's Beauty Salon
☎ : 532-7094
(1)Manager
(2)Hair Stylist Net : $1,500/Mon.

Donuts Shop에서 풀타임 오전 8 : 00~오후 4 : 30 일하실 여자분 구함. 직접내방 바람.
(영×칼레지 써브웨이 안)

Full Time일하실 여자 Cashier구함
유경험자에 한함
☎ : 598-2546(다운타운지역)

경험있는 풀타임 재봉사 2명구함
☎368-2819 (Mr. Wong)

토요일, 일요일에 일하실 여자분
캐쉬어 구함(12시부터 오후8시까지 근무)
다운타운지역 ☎921-0624

풀타임 여자 캐쉬어 구함
☎ : 438-1528(스카보로지역)

경험있는 캐쉬어 구함
(오후10시~아침8시)
☎ : 691-6768

Donuts Shop(11시P·M~7A·M.)
☎ : 743-3822, 222-3877
키프링 × 알델

최석봉 씨를
양찬국씨가 찾읍니다.
샌프란시스코(미국)
☎ : 1-415-582-3124, 1-415-581-4211

매매및 양도

후렌차이스 매니저 구함.
가게를 매매할 수 도 있음.
☎ : 759-9224(Ellesmere×Midland)

성업중인 수퍼마켓 매매
냉동식품, 우유제품, 그로서리, 야채류, 과일 그리고 고기(육류)등 취급.
동쪽끝 지역
☎ : 466-8283 (Mr. Mett)

도너츠 샵 급매(토론토지역에서 25마일 떨어진 지역)
주매상 : $3,000, 아스킹 : $85,000
☎ : 783-5454

그로서리와 버라이어티 스토아 급매
주매상 : $3,000 렌트 : $515 (전기포함)
☎ : 694-7848

Equipment for Sale
★Shelves for 700 Sq. ft., 3개의 Frozen food or 아이스크림 캐비넷, 6 ft. 와 5ft. 의 Sliding door냉장고, 아크릴사인(간판), 그외 여러가지.
★ East York에 위치한 900 Sq. ft. Space와 3베드룸 렌트 합니다.
TTC 정거장 바로앞에 위치해 있음.
☎ : 851-3866, 851-1731(저녁7시 이후)

하드웨어 스토아 급매(던다스×더프린)
☎ : 536-3826 7 : 00PM까지
656-4686 7 : 00PM이후

Convenience Store (900 Sq. ft.)
년매상 : $300,000 (Midland × St. Clair)
☎ : 267-8747(Tom Sherman)

Store for Sale 또는 매니저 구함.
주매상 : $3,500 렌트 : $650
리스 : 4년+5년 Option
현금다운페이 : $7,000(매니저의 경우 2,000Deposit)
☎ : 1-(514)637-6444 (몬트리올 지역)

드라이 크리닝
①년매상 : $160,000(3베드룸 아파트 포함)
②년매상 : $127,000(리스가 오래됨)
③년매상 : $160,000(오렌지·빌 지역)
아스킹 : $75,000
☎ : 275-5555(데이브·랄)
Export Business, Realtor

Royal Trust Co.
(1)쾌적한 4베드룸 포함한 그로서리와 버라이어티 가게, 관광중심지역
년매상 : Over $400,000
넓이 : 2200Sq. ft. 아스킹 : $149,000+스탁
(1)작은 도시에있는 Convenience Store
매우 깨끗하고 전망좋은 모퉁이에 위치한 4베드룸 아파트(2개의 차고)
아스킹 : $114,900+스탁
가족끼리 운영할수있는 좋은기회.
(3)21 Unit Motel.
면허있는 식당과 별개의 카테지(3베드룸 벽돌집)
Color T. V. 냉·난방장치 갖춤.
평균 객실점유율 : 60%
년매상 : $157,000 아스킹 : $550,000
Royal Trust Coopertaion of Canaba, Realtor.
107 Mississauga St. Orillia, Ont.
Mr. Irven DeGraw.
(B)705-325-6193, (R)705-325-6069

성업중인 Flower Shop 매매
3901 Bathurst St. ☎ : 635-9794

작은 그로서리 스토아 가정형편상 급매
가격 : $20,000+스탁, 비데오 머신도 있음.
1430 Dundas St. W. (Gladstone 코너 : 관심있는분 내방바람)

집안사정으로 급히 버라이어티가게 팝니다.
렌트 $570(월) 리스 5년 + 5년
주매상 $5,200 ☎298-7635(Mr. 정)

바쁜지역의 건물포함한 버라이어티 스토아
가정형편상 급매
연매상 : $200,000
Call Cliff or Joe, ☎ : 763-5161
Cimerman Real Estate LTD.

가게와 아파트 포함한 건물매매
교통이 번화한 Parkdale지역
현대식 건물 1베드룸과 2베드룸
몰게지 : $71,000(11.25%)
아스킹 : $129,900
Call : Neville Lehrer
☎ : 763-5555, 769-0531
R. Cholkan Co. Ltd. Realtor.

매매 부동산

A. E. LEPAGE (우덕이)
☎ : 741-9170

CANADA PERMANENT (황순일)
☎ : 481-3443

ROYAL TRUST (유복영)
☎ : 762-8255 West 지역

이대환 부동산 ☎ : 535-1251

복덕방 ROYAL TRUST CO., (로얄 트러스트)
곽 석 용 ☎ : (B) 752-3111, (R) 298-2546

D. F. McALLISTER R. E. LTD.
투자 전문(IC & I)
(B)497-0600, (R)298-8558 김시성

황용현 부동산
☎ : 361-0880

식 품 점

한 밭 식 품
◎미시사가지역 교민들께 편리.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일요일은 오후 4시~8시까지 OPEN
466 SOUTH SERVICE RD. MISSI.
☎ 274-5401

고 려 식 품 680 Bloor St. W. Tor.
▪주7일영업(오전10시~오후11시까지)
▪배달가능, 각종서적및 월간잡지 ☎ : 531-2242

동 양 식 품
일주일 내내 영업, 일요일도 정상영업 합니다.
(화요일만 오후1시~8시까지) 많은 식품을 준비하고 있아오니 계속 이용해 주십시요. ▪배달도 합니다.
1662 Jane st, Weston. Ont. ☎ : 248-5131

삼 복 식 품 ☎ : 743-8270
2437 Finch Ave. W. Weston
주7일영업, 배달합니다.

제 일 식 품 (구 단풍식품)
●7DAYS OPEN(오전10~오후10시까지)
●배달합니다.
●뒤에 파킹 LOT 마련.
☎ : 532-1054(아리랑식당 옆)

서 울 식 품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367 Pit field Rd.
☎ : 743-8270

T V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특별대매출, ●월부판매 알선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서부 Finch West Mall (Finch & Weston) 745-5555

Hi-Fi House (고급 전축 스테레오전문)
4544 Dufferin #19(더프린×핀치) ☎633-2332

Stereo King ☎:766-4770
○ 고급 라디오, 전축 전문센타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킬×던다스)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사 진

KIM'S CAMERA ●여권사진 즉석촬영
●각종카메라·전자제품 판매및 수리 ●각종 증명사진
☎ : 534-1085 김 춘 탁 619 BLOOR ST. W.

무지개 칼라- VIDEO 촬영
36 Neapolitan dr. 438-4435
●COMMERCIAL ●ART PHOTOS ●WEDDINGS

새한칼라 현상소
●결혼 ●돌사진 ●각종 증명사진 ●회갑 ●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 : 535-7772, 630 BLOOR ST. W. TOR.

액 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 : 746-2120 조혜숙

시설및 수리

목공소 FineWoodwork 879 Westport Cr. Unit 3, Mississauga, Ont. 676-1173 769-9468
상점시설및 주택개소 싸우나 설치, 진열장 찬장등 가구세작

전기시설·보수
CANCO ELECTRIC CO. 각종 냉동기 에어콘
☎ : 270-3118 오현구

집수리·신건축
건축 목공 각종 가게시설및 진열장 카운터 제작
페인팅 타일 ☎ : 669-5784 미스타 심

KIM ELECTRIC LTD.
MET. LIC. E1018 전기시설·보수·경보장치 설치
FIRE ALARM ☎ : 438-3795 김 영 호

TV 출장 수리
☎ : 431-0102 미스타 박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보수·가게신설·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김부원
☎ : (B)245-5544(PAGING)2790, (R)255-2161

식 당

Choi's Restaurant
▪메뉴 : 초밥, 튀김덮밥, 모밀국수, 갈비, 불고기, 덴뿌라, 스끼야끼, 기타 ※일요일 휴업
▪시간 : 주중=낮12시~저녁10시, 주말=낮12시~밤12시
▪주소 : 2432 Eglinton Av. E. Scarboro(at Kennedy)
☎ : 759-8512 최 영 호

아 리 랑 식 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 월~일요일 까지 : 낮12시~새벽 1 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 : 532-2727

오리엔탈팔레스·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코 리 아 하 우 스
666 Bloor St. W.
☎ : 536-8666

동 궁 (홍콩식 중화요리 전문)
영업시간 월~금 오전11시30분부터~새벽 1 시까지
토 오후 4 시30분부터~새벽 1 시까지
일 4 시30분부터~ 밤10시까지
1416 VICTORIA PARK AV. (South of Eglinton) 757-6334

한 국 관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대소연 200석 완비
OPEN 11 : 00AM~1 : 00AM
628 BLOOR ST. W. (☎ : 536-0290, 531-0277)

서 울 하 우 스
615 Bloor St. W.
☎ : 532-0602

클링턴하우스
693 Bloor St. W.
☎ : 535-9541 김 영규

거 구 장 5 Bethridge Rd.
☎ : 742-1618

악 기 점

SOO PIANO SERVICE(조율, 수리)
Simpson's Mr. Music의 Representative
☎ : 222-4662 김 수 용

피아노 수리, 조율, 재생, 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 : 636-1430(R), 783-6871(B)
주소 : 1178 EGLINTON AVE. W. 이 상 철

여 행 사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535-6004
535-8801 최 동 주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536-2155 김창범

천 우 여 행 사
720 SPADINA AVE.
928-3335 김현투

북 미 여 행 사
376 Queen St. E. Tor. Ont. M5A 1A1
☎ : 368-9018
366-0960(B) 임 태 호

에어콘·히팅·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판매·수리
●정확한 진단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 HOUR SERVICE
☎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KIM'S 냉장고, 에어콘
시설, 수리일체
☎ : 749-3178 김 진 환

Palmer's 시설·판매·수리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 : 746-3840~1(B), 493-9945(R) 김 봉 균

CENTURY ☎ : 221-5441
(냉동기 시설및 수리) 미스타 이

운전학교

아스트라 운전학교 ☎ : 769-1960(B)
743-3377
761 Jane St. Mr. Eastman

오 행 근 운 전 학 교
423-3035

양 장 점

O'Kim Embroidery
각종 꽃수, 명찰, 마크, 아동복, 부인복
Covering등. ☎ : 633-9341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파티드레스··웨딩드레스·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 W. ☎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인벤토리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공휴일 무관)
☎ : 532-7741(B), 536-6250(R) 호 세 환

— INVENTORY —
①STORE인수, 인계 INVENTORY
②STORE정기조사 INVENTORY
③STORE납세대비 INVENTORY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 : 259-5822, 255-8301(B), 252-2963(R) MR. 오

페인트 벽지(팔페이퍼)

★봄맞이 집단장을 하시지 않으시렵니까?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기술로써 성심껏 모시겠읍니다.
★전화상담도 환영합니다. ☎745-6792(Mr. 우)

도 서 판 매

한국전집
광복20년(전25권), 한국인물사(전10권)
삼국지(전6권), 한국의 가정요리(4권)
새생활 백과(전8권), 토지(전6권)등
☎ : 690-2216(Mr. 최)

World Book(백과사전)
☎ : 533-2364(Mrs. 김)

메리야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 메리야스
602 BLOOR ST. W.
☎ : 532-5394(B), 742-0737(R)

하우스 렌트

방세놓음(월 : $170 독신자원함)
Pape Subway 에서 1블락거리
☎ : 282-0236, 466-3764

한국일보 안내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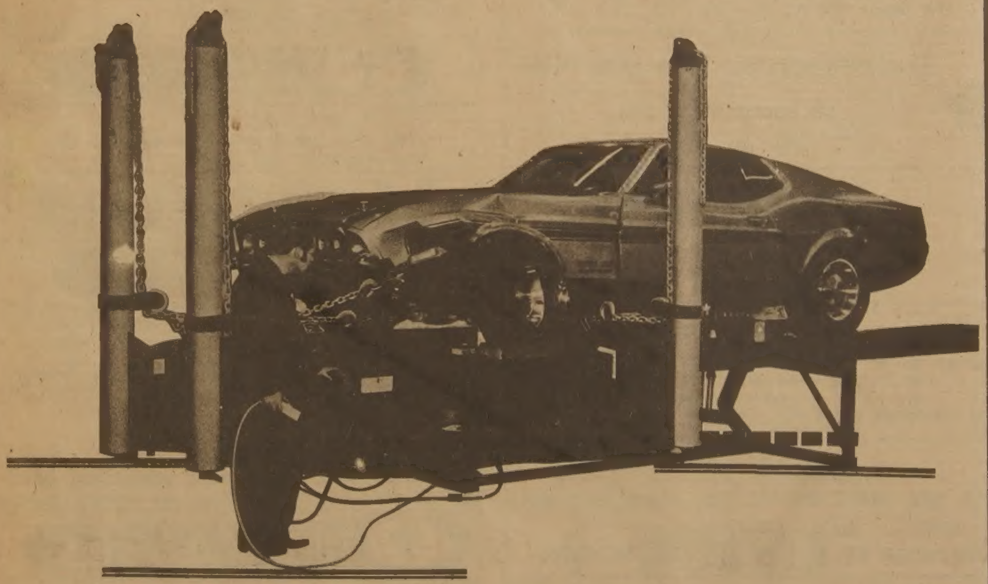
한국일보 안내광고를 이용하세요.
즉시 좋은 결과를 얻으실 것입니다.

LISBON AUTO COLLISION INC.

교민 여러분께 특별 써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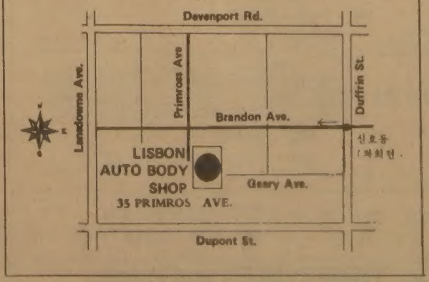
수리후 문제점이 있을시 책임보증!

- A급 LICEENCED BODY MAN
- A급 LICENCED 페인터
- 사고후 보험처리
- 수리중 차대여
- TOWING 써비스
- 완전 BODY WORK
- 철저한 신용



이 영 두

이 건 학



주소 : 35 PRIMROSE AVE. TOR.

전화 : 533－8507, 533－8508(B)

439－6548, 266－8925(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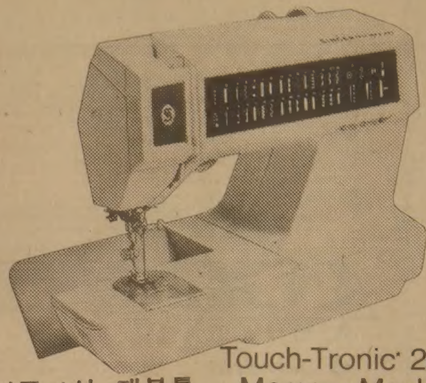
3월 수퍼 스페샬

싱－거 재봉틀

★싱－거회사중 이곳에서만 특별세일 합니다.

기간

3월12일～ 20일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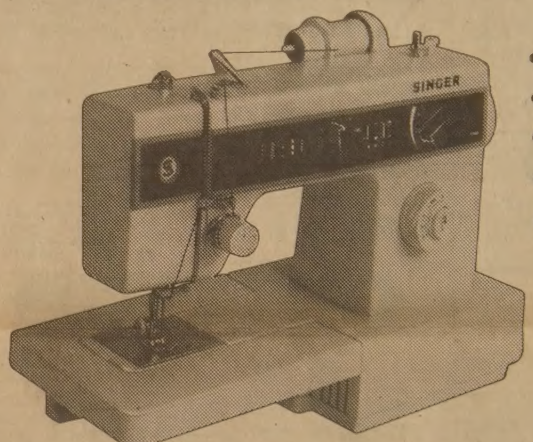


A. REG. $1349

Save $300.

컴퓨터식 재봉틀 Touch-Tronic* 2010 Memory Machine

• Touch-Tronic memory panel and stitch selection • Flip & Sew* panel • Universal pressure system • Twin needle capability •



- FREE ARM
- BUILT IN BUTTONHOLER
- STRETCH STITCH
- SLANT OVEREDGE
- BLINDSTITG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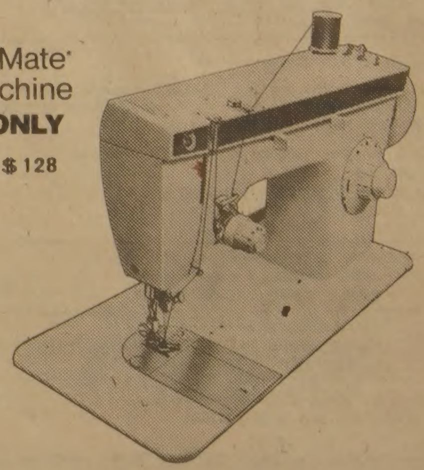
B. REG. $2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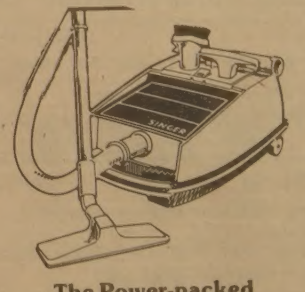
SAVE. $75

Fashion Mate* Zig-Zag Machine

• Front drop-in bobbin • Snap-on presser feet • Sews elastic and stretch fabrics • Three needle positions • Model 247

ONLY $128





The Power-packed Canister Vacuum

Step right up to fast, deep-down cleaning at a smooth Singer price. *Model C-141*

D. REG. $169.95 SPEC. $111.95

튠업(TUNE－UP)

REG $29.95
쿠폰을 가져오면 $10 할인

SINGER FAMOUS
4 STEPS TUNE－UP

★무 료 강 습

※VISA, 매스터카드 환영

SINGER－SQUARE－ONE

MISSI, ONT.

(416)277－0341

*Trademark of THE SINGER COMPANY
Authorized user: Singer Company of Canada Ltd.

SINGER APPROVED DEALER